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0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3호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포항 강진에 15곳 사찰 성보 피해

기림사 대적광전 공포 이탈 등… 문화재청 국보 · 보물 진단 실시

지난 11월 15일 포항 북구 9km 지점에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 · 경주 · 영천 등 지역 사찰 15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문화재청 등은 지진 직후 피해 사찰과 문화재 피해 상황을 집계했으며, 집계 결과 사찰 15곳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했다.

포항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경주 기림사다. 경주 기림사의 경우 보물 제833호 대적광전 공포부 주두 일부가 탈락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성보 박물관 전시장 상부가 지진으로 이격됐다.

또한,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국보 제40호)의 경우 석탑 옥개석 부재가 이동되는 피해를 입었다.

포항 지역에서는 보경사 · 용연사 · 임허사 · 죽림사 · 대성사 · 운흥사 · 관음사 등이 지진 피해를 받았다. 포항 보경사는 보물 제1868호 적광전의 천정 및 포벽 흙 표면이 탈락됐으며, 내부 불단 하부 박석이 침하됐다. 또한 보물 제430호 보경사 승탑은 상륜부가 이동됐다.

용연사는 경내 삼층석탑 모서리가 파손되고 기단부 일부가 이탈됐으며, 임허사는 담장 일부와 기와 부분이 파손됐다.

죽림사는 석등이 파손됐으며, 대성사는 축대에 금이 가고 탑 2기가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운흥사는 요사채 기와와 물탱크가 파손됐으며, 관음사도 요사채 지붕 기와가 파손됐다. 총지종 수인사와 선림사는 사찰 기와가 파손됐으며, 포항 원효종 고왕사는 대웅전에 피해를 입었다.

영천 · 양산 · 창녕의 일부 사찰들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 영천포교당은 법당 기와와 담장 기와 일부가 탈락됐으며, 양산 법천사는 담벽 일부가 금이 가는 피해를, 창녕 극락암은 요사채 벽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현장 진단과 복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종은 주변서 조사 중인 전통사찰 전수조사팀을 기림사 현장에 투입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등 관련 유관기관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진단을 계획 중이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첨성대, 불국사 등 23건의 주요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영남권 소재 국보 · 보물 691건과 국가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145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 지진 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한 이재민의 손을 꼭 붙잡으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위로 방문은 설정 스님의 첫 대외 행보였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흥해실내체육관에 구호 부스를 설치하고 이재민 구호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조계종 홍보국

조계종, 피해 지역에 구호 시작
설정 스님 첫 행보로 위로 방문
본사주지협, 성금 1천만원 쾌척

위덕대, 학생 전원 귀가 조치
현재 건물들 안전진단 진행 중

불교계 구호 자비행 '잰걸음'

피해 사찰 성보 피해 복구와 더불어 피해 지역에 대한 불교계의 자비행도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포항 강진 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 이재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는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대외 행보였다.

돗자리를 깔고 담요를 덮은 채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설정 스님은 "정부와 국민이 여러분 뒤에 있다. 위기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다 같이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20분가량 머물면서 이재민들의 힘을 북돋았다.

이후 설정 스님은 지진으로 인한 사찰 피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경사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함께 보경사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김 청장에게 문화재 관련 조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16일 오전 포항 지역 피해지역에 조계종긴급구호단을 급파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진 발생 직후 긴급구호 매뉴얼에 따라 현지 사찰 및 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이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긴급보고를 받고 조계종긴급구호단 파견을 결정했다.

현장에 급파된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보호작업장과 연계해 흥해실내체육관에 천막부스를 설치하고 생수, 음료, 과일, 떡 등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500개를 지급했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이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곁에서 살피며 드라이푸드 등으로 구성된 구호 물품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각종립 위덕대 발 빠른 조치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진각종립 위덕대는 지진 발생 직후에 발 빠르게 안전 조치를 취했다.

위덕대는 지진이 발생한 11월 15일 학생 전원에 대한 안전 귀가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가용한 학교 차량부터 관광 버스까지 대절해 지역별로 학생들을 귀가 시켰으며, 현재는 학교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이종렬 위덕대 홍보실장은 "위덕대는 지진 피해 지역에 소재한 만큼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으며, 현재 건물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에 자비 손길을

현재 강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대피소를 찾는 이재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상황에 대해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체육관 내부에 자리를 잡은 가족은 그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체육관 한편 의자나 외부 차량에 몸을 뉘인 채 불안한 상황이 종료되길 기다리는 이재민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밤새 계속된 2.0 이상의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불교의 자비정신을 전하는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불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복지재단은 피해지역 현장 복구 및 주민 지원을 위해 구호물품 및 구호기금 지원을 위한 후원모금을 진행하고 있다.(하나은행 271-910006-64104 / 예금주: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성민 · 윤호섭 · 박진형 기자

포교대상 정우 스님 · 故 윤용숙 보살

조계종 포교원 16일 발표…12월 6일 시상식



정우 스님



故 윤용숙 보살

조계종 포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스님과 불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포교대상에 前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보덕학회를 창립한 故실상화 윤용숙 보살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16일 제29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공개했다. 대상인 종정상을 수상한 정우 스님은 11968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조계종 9~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통도사 주지, 불교방송 이사를 지냈다.

스님은 특히 1985년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주지 부임 이래 도심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구룡사 · 여래사 · 원각사 · 법계사 · 반야사 · 연화사 · 장안사 · 보명사 등 도심 포교당을 건립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 관인 · 구룡 · 장안 · 선재 등 어린이집을 운용해 어린이 포교에도 힘을 쏟았으며, 인도 고려사 · 설산사 · 호주 정법사 · 뉴욕 원각사 등 세계 각국에도 사찰을 건립해 한국불교를 알리고 국격을 높였다.

통도사 주지로 있을 당시에는 2009년 대만 불광산사와 금란가사 봉헌 및 수재민 돕기 지원을 했으며, 다비장 대중화 등을 이끌었다. 2013년 군종교구 3대 교구장으로는 인재불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장병 핫팩 보내기, 교구본사와 군사찰 자매결연, 수계불자 12만명 돌파 등 큰 공로를 세웠다.

故 윤용숙 보살은 1974년 여성불자 모임 불이회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을 맡은 후 40년간 불이상 시상과 봉사, 전법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불이회 강좌를 40년간 꾸준히 열어 500회가 넘게 개최해왔다. 1993년에는 남편인 보덕 류홍우 거사와 재단법인 보덕학회를 설립해 20년 동안 전국 각지 불사후원, 불교학술 지원 등에 앞장서 왔다. 또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번역, 한국불교연구원의 〈원효사상 전집〉 발간 등 불교계 굵직한 학술사업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로상은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김인수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故브라이언 베리 前명예 국제포교사와 사찰인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가 수상했다. 원력상에는 前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선운사 신도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스님과 불자들에게 법률자문을 해준 김윤봉 씨, 원주 구룡사 신도로 포교와 봉사활동을 해온 김선희 씨, 법주사 신도로 지역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헌신해온 김임중 포교사, 서울교통공사 법우회장 김영만 포교사, 김기호 포교사, 전상삼 포교사, 불교연극과 뮤지컬 등을 창작해온 정광진 씨와 단체로 작은보시 큰자비연등(봉은사)이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의장단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 열린다

11월 27일 57차 회의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조계종 원로회의 제57차 회의가 11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열린다. 현재 원로의장 종하 스님과 부의장 암도 · 세민 스님 임기는 12월 10일까지다. 회의서 선출되는 신임 의장단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서는 중앙종회서 추천된 원행(월정사) · 현호(송광사) · 일면(봉선사) 스님에 대한 원로의원 선출의 건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도 다룬다. 대종사 법계 대상자는 원로의원인 성타 · 월주 · 지하 · 보선 · 법타 · 철웅 스님을 비롯해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법계위원 경일 스님,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전등사 조실 세연 스님, 계단위원 무관 스님,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 등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⑰ 고승이란

재화에 무관심했기에…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고승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두루뭉수리하게 '도가 높은 분'이라고 말한다. 또 불교를 조금 아는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화두를 깨친 분'이라고 대답한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들어줄 만하다. 그런데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도 있다.

고승이란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다 보는 분'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야 과거를 보는 숙명통, 미래를 보는 천안통을 얻은 분이지만, 과연 그러한 경지까지 간 고승이 정말로 있을까 싶다. 물론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불운하게도 나는 그런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길상사의 전신이었던 고급요정 대원각을 법정 스님께 시주했던 김영한 여사가 생각한 고승은 좀 색다르다. 여사가 판단한 고승의 조건은 아주 소박하다. 〈무소유〉를 읽고 감동한 김영한 여사가 미국에서 법정 스님을 만났던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인(因)과 연(緣), 즉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만났던 것이기에.



일러스트 · 정윤경

김천 직지사에 주석하시던 관응 노스님을 뵌 적이 있다. 내 나이 30살 쯤 되었을 것이다. 그때 스님께서 무슨 말씀 끝에 인과 연을 이야기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사과나무는 인이고, 사과밭은 연이라고 하셨다. 같은 사과 씨라도 평평한 밭과 비탈진 밭에서 자란 사과나무의 사과는 모양이 다르다고 강조하셨다. 밭에 따라 사과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던 것 같다.

법정 스님께서 상도동 약수암에 오신다는 전화를 받고 나는 즉시 그곳으로 갔다. 약수암 큰방에 들어가 보니 나이 지긋한 여성과 감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그리고 법정 스님이 앉아 계셨다. 남다른 내공이 있어 보이는 여성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스님은 듣기만 했다. 요지는 이러했다. '아무 조건 없이 제가 대원각을 내놓겠으니 스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다만 절이 잘 운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감사 한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감색 양복을 입은 남자는 감사 후보자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스님은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서시더니 "우리나라에는 고승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신 뒤에 믿음이 가는 분에게 시주하십시오"라고 한 마디 하시고는 나가버리셨다. 그때부터 여사는 2년 동안 사람들이 고승이라고 존경하는 스님들을 찾아가 두루 만나보았다고 한다. 여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에다 여사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더 붙여 맡겠다는 스님들이 제법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사는 결국 다시 법정 스님을 찾아와 "감사를 두겠다는 조건을 거두겠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며 당시 1천억 원대의 대원각을 시주했다.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지만 자신의 재산에 정작 무관심했던 법정 스님이기 때문이었다. 여사가 생각하는 고승의 조건이란 바로 그것이 전부였다. 자신의 재산을 받아줄 스님을 기어코 찾아낸 여사의 내공도 녹록치 않은 것 같다.

붓다로살자앱 출시 "수행도 SMART하게"

조계종 포교원 공개… 수행 · 명상 프로그램 탑재

E-book 형식 독경 도우미
사진으로 사경 결과물 공유
유튜브 활용, 명상콘텐츠 제공



조계종 포교원이 개발한 신행운동앱 '붓다로살자' 구동 화면.

조계종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붓다로살자' 앱을 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15일 "생활 속 신행을 증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신행앱 '붓다로살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기존에 존재하는 수행 콘텐츠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붓다로살자' 앱은 8가지(참선 · 염불 · 독경 · 사경 · 주력 · 명상 · 108배 · 개인수행)의 다양한 선택수행과 나의 수행기록을 주요 테마로 갖추고 있다. 특히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염불과 주력'은 조계종 의례위원 스님들의 참여로 제작했으며, '참선 및 명상'은 황수경 · 윤소희 교수 등 여타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명상'은 유튜브를 활용해 혜민 스님, 정목 스님, 법능 스님의 음원을 함께 실어 더욱 풍성한 명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사경'의 경우 앱 화면에 사진 형식으로 사경 결과물을 올리고 다른 이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건 자신의 수행 결과물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독경은 우리말 경전을 E-book 형식으로 읽을 수 있게 해 놓았으며 절 수행은 포교원이 지속 개발하고 있는 '마음거울' 시리즈가 탑재돼 돕는다. 또 수행일지를 작성하는 란도 마련돼 있다. 개인수행은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수행 프로그램은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꾸며졌다.

여기에 나의 수행기록을 다른 수행도반들과 공유할 수 있는 '도란도란 붓다들' 메뉴는 자신의 수행담을 함께 공유해 신행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포교원 측 "앱 개발과 함께 개발진이 템플스테이를 다녀오는 등 불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앱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신행혁신 붓다로살자는 불자들의 삶 속에서 신행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여러 신행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붓다로살자 앱은 현재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붓다로살자'를 검색해 설치하면 즉시 구동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현재 5천여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을 정도로 인기다. 이번 정식 개통 후 전국 사찰에서 홍보가 진행되며 포교사단 등을 통해 일선 포교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붓다로살자 앱은 모바일 시대를 맞은 불교 신행의 또 다른 변화"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정상화 위한 초석 박차

새 집행부 인선, 교육기금 18억원 부채상환 투입

총무원 부원장에 성오 스님
교육부원장 등 집행부 인선
교육기금 전용 18억 원 확보

태고종이 종단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틔웠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는 11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31회 임시회를 열고 새 집행부 인선안 동의를 비롯해 종단 부채상환을 위한 교육기금 전용안을 가결시켰다.

종회의원 57명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고종 종회는 먼저 새 집행부 인선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총무원 부원장에는 성오 스님, 교육부원장에는 능화 스님, 총무부장에는 정선 스님, 재경부장에는 법정 스님, 문화부장에는 석천 스님, 규정부장에는 혜암 스님, 홍부부장에는 혜철 스님이 각각 임명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법규위원장에 서봉 스님, 고시위원장에 원명 스님, 호법원 사무처장에 황봉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에 등묵 스님이 임명됐다. 다만 교육부장과 사회부장직은 동의안이 부결됐다.

또한 2013년부터 전 중앙종회의장 혜공 스님이 약정에 따라 보관해오던 18억 여원에 달하는 '종단 교육불사 특별기금'의 종단부채 상환을 결의했다. 태고종은 5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새 집행부 당면과제로 부채상환을 꼽고 있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종무방침연술에서 "오랜 세월 인습화된 수많은 적폐와 불합리가 온존해 있음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다. 종단의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종단 총화를 실현하고, 각종 제도 및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고종 중앙종회는 개회와 함께 보궐로 추천된 종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연수 인증 프로그램 모집

교육원, 11월 24일까지… 숙박 · 통학 교육 신청 공고

수행 · 교학 연찬 · 전법 중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11월 24일까지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 프로그램을 모집한다.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 6조에 의거해 이뤄지는 인증 제도는 종단 스님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불교계 기관 및 단체가 개설한 교육과정에 대해 연수 인증을 하는 것이다. 인증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내용은 수행, 교학 연찬, 전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2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숙박교육은 2박 3일 12시간 이상, 통학교육은 1강당 90분 이상으로 총 10강 이상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와 기관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 인증기관은 현재 63개로 매년 1500여 명의 스님들이 인증 교육을 통해 연수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 (02)2011-180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35대 집행부 첫 총무부장 정우 스님

신임 국장단 인사도 마쳐

조계종 제35대 집행부 첫 총무부장에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국장단 진용을 갖추며 본격적인 종무행정에 돌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정우 스님에게 총무부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정우 스님만큼 공심과 원력을 갖춘 사람도 드물다"면서 "스님이 스님답게 종무에 임해야 한다. 총본산 성역화를 비롯한 종단 불사를 잘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 종도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보람을 주는 불교를 만들어보자"고 당부했다.

이에 정우 스님은 "아침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땐 오늘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한 없이 하루하루 소임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설정 스님은 14일 교역직 국장단 인사를 단행하고 △총무국장 선웅 스님 △기획국장 지상 스님 △재무국장 행관 스님 △문화국장 범종 스님 △사회국장 해공 스님 △호법국장 각승 스님 △조사국장 성본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상임감찰 성주 스님, 호법과장 선보 스님,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광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용주 스님, 수행사서 덕원 스님도 임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대행 선사 가르침, 물질과학과 소통하다

(재)한마음선원, 11월 12일 '제2회 한마음 학술대회'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선수행 · 교육학 · 의학 등을 융합 · 통섭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재)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2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선원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마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마음과학원은 대행 선사께서 펼쳐 주셨던 한마음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마음의 원리를 다양한 전공과 현실 분야에서 연구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정진하는 연구와 스터디 그룹토론 등을 통해 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정신계의 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마음과학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산하 연구, 교육기관인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불성을 믿어라"는 법어를 기치로 하여,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교육학 · 의학 · 선수행 부문에서 통섭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선법가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한마음과학원 연구진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식물 · 의학 · 교육 · 오공(五共)' 스터디 그룹의 연구 성과들이 눈길을 끌었다.

최재석 신라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스터디그룹은 '선법가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의 1차년도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선법가, 대행 선사 법문, 한마음 내기가 식물의 생리학적 메커니즘 및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연구하는 스터디그룹은 1차년도 사업을 통해 △문헌조사를 통한 실험방법론 확립 △예비 실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스터디그룹은 식물과 관련된 대행 선사 법문 정리 · 연구방법론 설정 등의 성과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동안 선법가와 대행 선사의 법문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회 한마음 학술대회에 참여한 학자들이 논문 발표 후 자유토론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 주관으로 열려
선원 사부대중 400여명 참석
대행선사 가르침을 바탕으로
禪 · 의학 등 통섭한 논문 발표

최 교수는 "해당 연구는 최종적으로 과도한 농약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기존 농법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농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학 · 의학과의 상관관계는

교육학과 한마음 교육 원리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만 하다. '한마음 교육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스터디 그룹의 대표로 발표한 유정오 미천초 교사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한마음교육학'이라는 학문으로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마음교육의 개념,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 한마음 교육 시행 방법론 등을 설명했다.

유 교사는 "한마음교육학은 대행선사 가르침의 일반 · 보편화를 통해 교육현장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학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행선사께서 말씀하신 법문 원전에 기반한 법문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마음과학원 스터디 그룹 의학팀이 발표한 '한마음법에서의 생명 이해'를 통해서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가르침과 의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에 대해 대표 발표자인 장미란 경희대 교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암이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 것인지, 왜 한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 원리를 통해 어떻게 실제적 연구할 수 있는 지를 대행 선사의 법문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공 사상의 현대적 구현 방안을 제안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고명석 조계종 포교연구실 상임연구원은 발표한 '오공 사상의 철학적 조명과 공동체 정신의 현대적 구현'을 통해 현대적 공동체 운동으로서 오공 사상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고 연구원은 노사 문제 · 지역 포교 · 환경 운동을 예로 들며, "오공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공식(共食)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공의 실천은 화엄연기와 진여연기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마음도리와 교육, 한마음 의학과 선수행 세션에서는 '플라톤의 교육관에 비춰본 한마음교육의 원리(김영래)', '간화선의 관점에서 대행선에 대한 고찰(이상호)', '인체는 과연 공생 · 공체인가(안영우)' 등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립대들 입시일정 연기
교육원 산사캠프도 조정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규모 강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불교종립대 입시 일정과 수험생들을 위한 산사 캠프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동국대는 2018년도 수시모집 입시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19일 치러질 2018학년도 동국대 논술고사는 11월 26일에 열린다. 또한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는 12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천태종립 금강대와 진각종립 위덕대 역시 대학교육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입시 일정을 1주일씩 연기키로 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에서 처음 실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산사캠프도 일정을 연기했다. 교육원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화 전등사에서 진행키로 했던 산사청춘캠프 일정을 12월 14일부터 1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가 접수를 12월 1일까지 연기했다. 7~10일로 예정된 낙산사 산사청춘캠프는 예정대로 진행하나, 학생들의 기말시험 관계로 신청 접수를 12월 4일로 연장했다. **신성민 기자**

미국 경매 나온 '옥천사 나한상' 돌아온다

이달 중 환수 예정… 도난 후 30년 만에 제자리

도난 7존 중 5번째 환수 사례
해외 경매서 발견 이번이 처음
조계종 · 문화재청 공조 성과

1988년 경북 고성 옥천사에서 도난됐다 최근 미국 경매 시장에 출품됐던 나한상 중 하나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미국 경매에 출품돼 판매될 상황에 놓인 도반 성보문화재 '옥천사 나한상'을 확인했고, 해당 경매사와 협상을 통해 이달 중 환수하게 됐다"고 11월 14일 밝혔다.

국내로 돌아오는 나한상은 옥천사 나한전에 모셔졌던 16존의 나한상 중 하나로, 1988년 1월 30일에 7존이 한꺼번에 같이 도난당한 이후 약 30여 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5번째 존이다.

옥천사 나한상은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2존씩 총 4존이 회수됐으며, 환수 예정인 이번 나한상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3존 중 하나다. 환수되는 나한상은 중 도난 7존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발견된 사례다.


미국 경매에 나왔다 도난 문화재로 확인돼 환수되는 옥천사 나한상. 1988년 1월 30일 7존이 한꺼번에 도난됐다. 2014 · 2016년 4존이 환수됐으며, 이번이 5번째 환수다.

옥천사 나한상이 경매에 출품된다는 사실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유통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조계종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문화재가 도난품임을 파악했으며, 조계종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탁받아 미국의 해당 경매사에 도난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수개월에 걸쳐 경매사 측과 우호적인 협상을 진행한 끝에 나한상 반환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외 소재하는 불교문화재의 조사와 환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국외소재 불교문화재에 현황과 반출경위 등의 조사와 정보교환을 통해 꾸준히 협력해왔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2015년 6월 '선암사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2016년 12월 '송광사 오불도'를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나한상 환수는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국외서 환수하는 세 번째 성보문화재이다.

이번 환수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이번 옥천사 나한상의 환수를 계기로 외국에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의 도난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거래 대상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경매사 등과의 협상을 통해 자발적 반환을 이뤄내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전고법, 정혜사 소유권 소송 기각

15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파기환송심서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1월 15일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선학원 정혜사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6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학원 측은 "재산관리인에 불과한 석청 스님에게 선학원의 중요 재산 처분에 준하는 권한이 없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측 모두 만공선사가 중창한 사찰로서 서로 덕숭총림 구성원으로 인정해오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합의 내용이 수덕사에만 이익이 되고 선학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석청 스님이 수덕사 이익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양측 갈등 이전에 정혜사를 사유화하려는 일부 승려 시도에 맞서 수덕사의 창건주 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인 점 △수덕사 요청에 따라 덕숭총림서 선출된 스님을 분원장으로 임명한 점 △수덕사로부터 관리를 받아온 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20년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상 문제 삼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선학원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토지가 선학원 소유라고 당연히 전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양도 내지 증여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선학원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주목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8기 법계위원 위촉

위원장에 원로의원 월탄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월탄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現법계위원 월탄 · 종진 · 경일 · 무관 · 동광 스님과 신임위원 원경(원로의원) · 진아(前존자암 주지) · 현고(前송광사 주지) · 정여(前범어사 주지)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호섭 기자

"복지보살, 속환사바 하시길"

제원 스님 49재, 12일 삼천사서 봉행



불교사회복지의 거목 길음당 제원 스님의 49재가 11월 12일 서울 삼천사(회주 성운)에서 봉행됐다. 제원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불교복지와 수행 현장에서 인연을 맺은 많은 이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49재에는 수행도반 모임인 구인회 소속 스님들이 대거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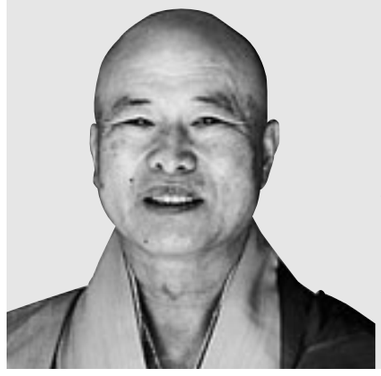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 연탄나누기



(사)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공동대표 인경, 천불사 주지)는 11월 11일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관내 불우이웃 90가정에 연탄 3만 6000장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는 천안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직자들이 2008년 창립한 순수봉사단체로 매년 사랑의 1채 집짓기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제15회 대원상 포교대상 특별상 성운 스님

장려상 자비명상 · 통일바라밀숲… 콘텐츠 대상 문창용 · 전진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불법 홍포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포상하기 위한 제15회 대원상 포교대상 출가부문 특별상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이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포교대상 출가 부문 특별상에 성운 스님을, 장려상 수상단체로 (사)자비명상(이사장 마가)을, 재가 부문 장려상에 통일바라밀숲(대표 남지심)을 각각 선정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콘텐츠 대상에는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를 제작한 문창용 감독과 전진 프로듀서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일러스트레이션 '붓다, 얻다'를 그린 장정윤 작가를 장려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포교 대상 특별상(출가 부문)을 수상한 성운 스님은 196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장 · 해인사 승가대학 조교수 · LA삼천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성운 스님은 일찍이 사회복지 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설립을 시작으로 20년 이상 각계각층 복지포교에 헌신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불교 복지포교에 헌신 공로

"발심의 새 계기 삼을 것"

성운 스님은 "그동안에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내 자신이 부끄러운 점을 느낀다. 상이란 것은 나에게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거울을 통해 주어진 삶에 마하반야바라밀로 모든 생명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스님이 말한 마하반야바라밀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사회복지 바라밀 실천을 의미한다. 스님은 이어 "크나 큰 채찍으로 그동안의 나태했던 스스로를 바라보며 발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출가 부문 장려상 수상단체인 (사)자비명상은 명상 지도자인 마가 스님이 이끌고 있으며, 불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과 명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대에 적합한 수행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가 부문 장려상 수상단체인 통일바라밀숲은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장학금 및 역사기행, 템플스테이 지원을 통해 불자로의 포교 및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하도록 이끌어주는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문창용 · 전진의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티베트 불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9살 소년 앙뚜와 스승 우르갼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줘 콘텐츠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장정윤 작가의 일러스트레이션 '붓다, 얻다'는 일상에서 친근하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시도한 재치가 돋보여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편,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7일 마포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렸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원, 우수상은 7백만 원, 특별상은 5백만 원, 장려상은 3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준원 금강대 제6대 총장 취임



금강대 신임총장으로 선임된 이준원 제6대 총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강대는 11월 16일 교내 원각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이준원 제6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이 총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강대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가 왔다"면서 △불교문화 진흥 △소수정예 강소대학 육성 지속 △대학역량 강화 △위상 재정립 △대학 안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춘광 스님은 치사에서 "이 총장은 풍부한 경력과 넓은 인품, 남다른 안목과 열정이 있어 구성원 모두 힘을 보태면 괄목한 성장이 보장될 것"이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생활불교조계종 15주년 법회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11월 11일 총본산인 영양 관법사에서 '창종 15주년 기념대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을 비롯해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종단임원 등 10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도선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창종 15년을 맞아 생활불교 실천의 목표를 더욱 드높이고 화합과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암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것이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며, 이는 생활이 곧 수행 정진임을 아는 것"이라고 바른 수행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발전에 공헌한 임원 및 신도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음악, 佛法 소리 표현 예술"

조계종 교육원, 기본교육기관 불교음악 특강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표현하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불보살을 찬탄 공양하는 음악'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를 소리로 표현하는 음악'이 불교음악입니다."

불교음악의 역사와 전래, 현재 현황을 짚어보고 전문 합주단의 실연을 감상하는 특강이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13일 봉녕사 경내 문화원 금라에서 승가대학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특강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음악여행'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주관한 것으로 앞서 지난 10월부터 송광사, 통도사, 법주사 등을 순회하며 강의가 진행돼 왔다. 봉녕사에서의 이번 특강은 5번째 이뤄진 것이다.

특강은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불교음악의 역사와 실체'를 주제로 한 이론 강연과 봉은국악합주단의 불교음악 실연과 해설이 이뤄졌다. 이날 박 원장은 특강을 통해 불전에 기록된 불교음악부터 △불교의 음악관 △불전상의 악기와 음악 용어 △불교음악 전래사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일상 의례인 염불도 불교음악"이라고 강조한 박범훈 원장은 신심 나는 염불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 특유의 독특한 민요 가락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13일 봉녕사 승가대학서
불교음악원 주관한 5번째 특강
봉녕사 학인 스님 100명 참석
강의부터 음악 실연 · 해설 진행
"불교음악 대한 이해 높아졌어요"

박범훈 원장에 따르면 예전에는 황해도 지역 스님들은 산염불조로, 경기 지방 스님들은 경기민요조로, 전라 지방 스님들은 육자백이(남도 계면조)조로 염불 가락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강원도 산간지방의 민요조인 '메나리'조 가락으로 통일됐다.

이에 대해 박범훈 원장은 "앞으로는 각 지방의 다양한 민요조의 염불이 다시 불러지길 기대한다"면서 "그래야 불교음악이 다양하고 풍부해지며 예술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론 강의 이후 진행된 실연과 음악 해설 시간에서는 봉은국악합주단의 연주로 강원도아리랑 · 보렴 · 성주풀이 · 회심곡 · 비나리 각 지방별 민요 가락을 소개했으며, 근대 이후 만들어진 창작 찬불가들에 대해서도 해설했다.

이날 강연에 참가한 봉녕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불교음악과 염불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3학년 혜승 스님은 "불교음악은 사실 생소했는데 역사와 전래를 되짚어 새롭게 다가왔다. 염불의 의미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며 "일반 불자들과 시민들도 쉽게 불교음악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강좌들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과 불교음악원은 11월 20일 3차례 더 진행된 특강을 통해 학인들의 염불과 불교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아지길 기대했다.

수원 봉녕사=신성민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휠체어에 탄 양궁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찰음식을 각자의 그릇에 담으며 밝은 웃음을 짓고 있다.



평창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협회장, 스님 등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패럴림픽 태권도 대표단이 즐겁게 사찰음식을 맛보고 있다.

평창 장애인 국가대표 "사찰음식 먹고, 메달 딸래요"


퇴휴 스님

"사찰의 좋은 기운 받길"


황민규 선수

"경기력 도움, 메달 획득에 큰 힘"


고운소리 선수

"입에도 맞고 체중조절도"

패럴림픽선수단 11월 14일 사찰음식 오찬 현장

"장애를 극복한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수행의 정신을 담은 사찰음식을 드시고, 다가오는 평창 패럴림픽에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불자들이 사찰음식 오찬을 열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과 조계종 직능체육인전법단(단장 퇴휴)은 11월 14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원에서 사찰음식 오찬을 개최했다.

이날 사찰음식 오찬에는 3월 9일부터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 10여 명을 비롯한 250여 선수, 관계자가 참여해 사찰음식으로 체력을 회복했다. 김의수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정진완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장, 조성동 스키에어리얼 국가대표 감독 등 체육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중 조절 등에 바쁜 선수들을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측은 랜틸콩크로켓, 호두군만두, 버섯구기자 팔보채, 능이 · 송이탕수 등 40여 가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 단호박죽, 더덕잣즙무침, 우엉부각무침, 버섯강정, 홍시배추김치, 새송이장아찌, 우엉들깨탕 등 〈2018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에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1스타를 받은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의 쉐프들이 총출동해 음식이 지닌 고유한 맛을 선보였다.

음식 준비를 도운 선수촌 전현희 영양사는 "평소 급식에서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준비하고 있다. 사찰음식이 채식이어서 걱정했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구성이 있어 놀랐다.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배식이 시작되고 선수들은 각기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맛보았다. 연잎밥과 잣죽 등 소화를 돕는 음식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평창 패럴림픽 선수 대거 참여
각종 기력 충전 음식 선보여
"체중 조절 등에 효과적" 호평
체육회, 불교계에 감사 표해

양재림 패럴림픽 알파인스키 국가대표는 "목표는 메달"이라며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음식에서 기운을 얻어 힘을 내 준비를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계 패럴림픽 태권도 국가대표인 박현희 선수는 "일단 염분이 없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다. 체급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사찰음식이 오히려 딱 맞는 듯하다"고 호평했다.

시각알파인스키 가이드 고운소리 씨는 "어려서 홍천의 한 사찰에서 지내 사찰음식이 낯설지 않다. 오늘 사찰음식은 특히 입에 맞아 오랜만에 과식했다"며 활짝 웃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탄덕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스님들이 산사에서 수행식으로 먹던 음식"이라며 "음식에 담긴 좋은 기운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전달됐으면 한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찰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직능체육전법단장 퇴휴 스님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은 국민적인 스포츠 축제다. 여기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사찰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수들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입소한 것만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은 인간승리자들"이라며 "모두가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 당시에도 불교계가 사찰음식을 제공해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번에 사찰음식을 제공해준 전법체육단과 불교문화사업단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런던 때와 같이 선수들이 맛있는 사찰음식을 먹고 큰 힘을 얻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날 닥종이 인형 전시와 홍보영상 상영도 함께 진행했다.

이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12월 7일), 풍수지리(+관상) 최고지도자 과정(12월 11일) 공개강좌



주임교수 爽度(석하) 소재학 박사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명리학자(공식전공 사주명리학박사 1호)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 회장 ,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제헌하원정미래학회 회장, 한국성명·작명학회 회장, 서울신문 STV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자문위원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GFCA) 회장, 기업 투자 경영자문
MBN 황금알, 부동산TV 풍수야 놀자, MBC, SBS외

성공과 실패의 시기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창시 및 10년 주기 인생 4계절 석하리듬 개발 보급 / 음양오행과 십간십이지,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등 동양 역학의 미신적 요소를 벗겨 과학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 서양 미래학의 접목을 통해 동양미래예측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6기

때를 찾는 지혜, 불확실성의 시대, 동양의 미래예측학, 과학역학(易學), 현대 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과정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성공을 위한 필살기 / CEO, 관리자, 역학관심자, 미래학 관심자

*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 기존 사주명리학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해도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왕초보도 1년이면 충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에게는 총정리하는 필살기, 왕초보자에게는 단기간에 나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단기 속성과정입니다.
* 수업기간 : 2학기 33주+ 완성, 통합 등록금 430만원,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 수 있는 능력 배양시까지 추가비용 없이 무료 반복 수강
* 타고난 성격적성 분석법, 이유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와 공짝지의 유효기간, 최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찾는 법, 누구나 존재하는 10년주기 인생 사계절 '석하리듬' 분석법 마스터
* 일반 CEO 과정처럼 성공담 듣고 교양 높이고 인맥 쌓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미래, 때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 근거 없는 비법들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음양오행, 십간십이지,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부터 공부합니다.(유투브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황금알 263회 속설 검증 참조)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공부를 통해 동양미래예측학으로서의 사주명리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를 마스터 하는 유일무이한 최고위과정입니다.
* 검증 가능한 작명법, 타고난 성격적성 분석법, 이유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와 공짝지의 유효기간, 최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찾는 방법 마스터
* 1학기 15주+ 'G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 관련 교양, 수상학(손금), 주역(피듬), 오행(五行) 건강법 및 선천 성격적성,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외, 등록금 240만원
  2학기 심화과정(현대사주석하명리 최고지도자 과정 제27기) 별도 수강 가능(월 17:00~19:30),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수강자 소재학 교수 평생 사주 상담
  1학기 수료시 : 동국대G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수료증 및 명리 진로적성상담사 2급자격증(소정의 절차후), 2학기 수료시 동국대GFCA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증 및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지도교수 및 특강교수 : 신기원 교수, 백민 교수, 정창근 교수, 박청화 교수, 유래용 교수, 노승우 교수, 조규문 교수, 김민재 교수, 문봉 박재범 교수, 이명학 전 장관, 조석준 전 가상청장, 양종승 박사 외

* 공개강좌 : 12월 7일(목) 18:00~21:00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 세미나실 * 수업 : 12월 14일 부터 매주 목(木) 18:30~21:00 * GFCA사무국 : 02)3443-4984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지도자과정 제3기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지리(風水地理) 및 생활관상 전문가, 최고지도자 양성과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지도교수 최명우 박사, 정경연 박사,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전임교수 노승우 박사, 세준 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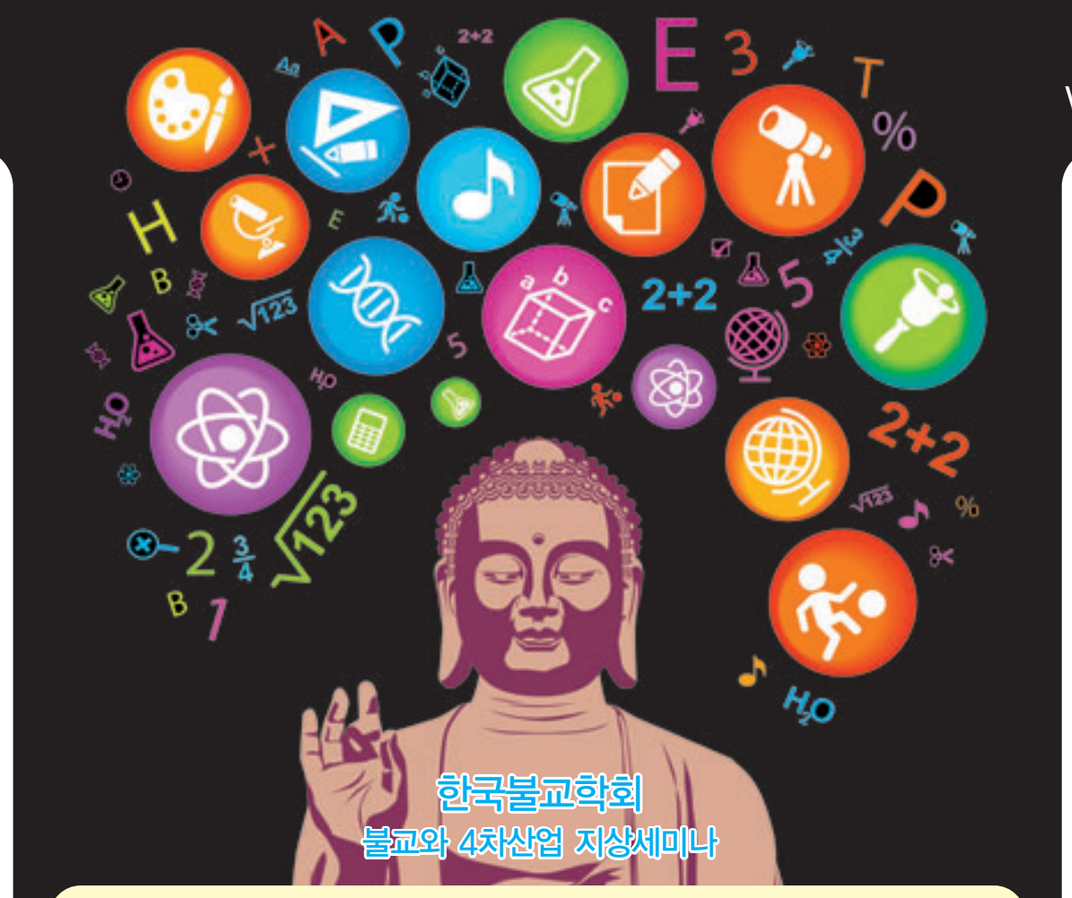
양택풍수, 음택풍수, 이기풍수, 형기풍수, 현공풍수, 삼합풍수, 비보풍수, 도시풍수, 부동산풍수, 인테리어 풍수, 기(氣) 풍수, 릴리안 투 풍수 등 풍수지리 종합 마스터 과정

좋은 자리 및 좋은 터 찾는 법, 좋은 장자리, 좋은 책상자리, 생기(生氣)가 흐르는 좋은 곳과 살기(殺氣)가 흐르는 곳 찾는 방법, 생기를 끌어오고 살기를 피하는 법, 수맥 찾고 수맥파 차단하는 법, 엘로드 사용법의 허와 실, 제대로 된 엘로드 사용법, 복 부르는 관상, 돈 되는 관상, 관상 궁합, 성형관상, 사업 관상, 1학기 15주, 2학기 33주+ 과정, 등록금 390만원, 풍수지리 및 관상 왕초보부터 전문가까지, CEO, 관리자, 부동산 관계자, 풍수지리 관계자, 수강자 살비 풍수감정 및 소재학 교수 평생 사주상담

* 공개강좌 : 12월 11일(월) 18:00~21:00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 세미나실 * 수업 : 12월 18일 부터 매주 월(月) 18:30~21:30 * GFCA사무국 : 02)3443-4984

한국불교학회
국제학술대회
불교와 4차산업
12월 2일~3일
개회식 : 동국대 중강당 10시 30분

Digital 불교 · Social 불교로 변화 시작



① 인공지능 · 로봇 기술과 불교
② IOT·스마트시티와 불교의 미래 4차산업 시대, 불교 포교
③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전법포교
VR/AR을 이용한 불교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④ 특별대담 '4차 산업 시대 속 불교'
⑤ 국제학술세미나 현장

한국불교학회(학회장 성운)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동국대 중강당, 만해관과 다향관에서 '불교와 4차산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Iot 및 스마트시티 기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 등 4차산업 기술 전반에 대한 불교사상적 접근이 시도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50여 석학이 참여하는 대형 세미나로 마련된다. 이에 앞서 지상세미나 및 대담을 통해 주요학자들의 발표를 미리 맛보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4주제
4차산업혁명 사회의 전법포교

Chapter 1 인간소외 심화 시발점

권서용 부산대 교수는 〈4차산업의 문제점과 불교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4차산업혁명의 어두운 이면과 이에 대해서 불교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권서용 교수는 4차산업 혁명의 낙관적 전망을 피력하는 전망의 중심에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또한 한때 학자들이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던 데 반해서 실제로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더 많아졌다는 유발 하라리의 언급이 4차산업 혁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불교의 해답이 선불교에서 전하는 관심(觀心)의 법에 있으며, 결국 나를 돌아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피력한다.

Chapter 2 사찰, 소셜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김현구 교수는 〈4차산업 시대의 디지털 사찰〉의 발표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서 불교 승단 최초의 사찰과 현대의 사찰을 비교한다.

디지털 사찰은 홈페이지 또는 웹을 통해 바로 온라인 포교를 하는 경우 디지털 기술 기반 소셜미디어와 연계가 가능하다.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이래로 생활 전반에 모바일 라이프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사찰 역시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서 김현구 교수는 불교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킬 내용으로서 장례(葬禮) · 기제사(忌祭祀) 문화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 즉 모바일 사찰 앱의 연계를 제안한다. 이는 고려시대 불교 전통에 근거한 상장례와 제사 문화에 토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로에너지 사찰과 모바일 앱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가 연관되어 활용될 때 가족들이 손을 잡고 사찰을 방문하는 사부대중에 의한 상가 공동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Chapter 3 불교학 연구 디지털화 가속 예측

일본 큐슈대학의 함형석 연구원은 〈4차산업과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불교연구〉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불교연구 방법론을 조망한다.

함형석 박사는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개념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담론들에 대한 리뷰와 함께 역사학, 고고학, 문헌학 등 전통적인 인문학 분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불교학 분야에서 발달시킨 디지털 환경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후 CBETA, TBRC, SARIT, Himalayan Library등 저명한 불교학 관련 디지털 인문학 환경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불교학자들의 연구작업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결론부에서는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학의 조합이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보며 앞으로 불교학 연구환경의 변화를 전망한다.

제5주제
VR/AR을 이용한 불교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Chapter 1 빅데이터 기반 평생교육 확장

이재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 VR/AR을 이용한 불교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4차산업 혁명이 가져온 디지털 기술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물(제품, 서비스, 장소)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교육적 행위와 프로세스의 변화를 기반으로 불교적 가치를 확산하는 가능성을 참구한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불교문화유산의 기반을 현실에서 다양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의 제약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와 연등축제와 같이 현재 불교적 체험을 넘어 휴식에서 치유로 향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한다. 이재수 교수는 이러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은 불교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 수행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Chapter 2 자비, 무한욕망 감소에 도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지혜경 연구원은 〈가상현실의 실재화에 불교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최근 애플이 소개한 AR kit 어플리케이션은 가상의 가구를 사용한 가구 배치, 가상의 애완동물, 가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포탈 등 다양한 AR의 활용 기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불교는 신기술을 흡수하여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과 신기술이 가져올 문제들을 고민하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혜경 연구원은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가상현실의 기술의 발달 수준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한 불교가 나아갈 바를 기술의 활용과 비전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논한다. 이와 더불어 AR을 활용한 몇 가지 불교 콘텐츠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Chapter 3 새 사회 윤리사상 도출에 불교사상 활용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의 문진건 교수는 〈심리상담분야에 미치는 4차산업의 영향과 이에 대한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상담에 끼치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심리치료 분야에의 적용은 정신건강치료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을 예상된다.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 변화에 대한 불교적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교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진건 교수가 지닌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치료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사용되는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한 문진건 교수는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언한다. 결론부에서 심리상담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상담의 질과 양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하므로, 인지기능을 벗어난 심리상담의 해결방법과 접근법에 대한 심화연구가 필요하다고 문진건 교수는 주장한다.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불자 대학생, 청년 멘토를 만나다

대불련 진모영 감독 시사회 및 정목 스님 토크콘서트

대불련 선배 진모영 감독 대화의장 정목 스님 토크콘서트로 고민상담 "청년 꿈과 행복 위한 고민 해야"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 오른쪽)이 진모영 감독과 청년불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년불자들이 청년멘토를 만나는 자리가 연이어 열려 눈길을 끈다. 진학과 취업 전선에서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한 줄기 감로수와 같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청년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1월 13일 종로3가 피카디리 영화관에서 영화 '올드마린보이' 상영회와 함께 진모영 감독과 대화의장을 개최했다. '올드마린보이'는 가족을 위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민 잠수부 박명호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날 자리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포교부장 가섭 스님,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등 포교원 스님들과 이경수 대불련 회장, 김성권 대불청 회장 등 200여 청년불자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큰 원력으로 영화를 잘 만들었다. 진모영 감독은 보살"이라며 "진 감독의 영화 속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 청년불자들이 영화 제작에 대한 원력과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올드마린보이'의 차이, 탈북민을 캐스팅한 이야기 등이 오갔다.

김성권 대불청 회장은 "대불련 출신으로 일반 기업 취업 외에도 청년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진 감독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며 "청년불자들이 막연히 진학, 취업 등에 스트레스 받기 보다는 자신의 꿈이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고, 생활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대불련은 11월 9일 고려대 4·19기념관에서 힐링멘토인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정목 스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기를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자기가 자신을 탓하면 누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청년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정목 스님은 "꿈을 가지돼 탓하지는 말자. 꿈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목 스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잠을 덜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하며 자고 싶을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등 스스로의 행동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에도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수 대불련 회장은 "정목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과정에서 내 인생에 배워가는 것이 하나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우리 삶의 많은 방향들이 많이 바뀌어서 나중에 미래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은 향후 각 학교별 동아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대학생들의 학내 불교동아리 가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다양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신도조직, 권역별 목소리 듣는다

중앙신도회,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 개최

영남지역 신도조직 활성화 주제 90여 신도 임원 참여해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에 참여한 신도대중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관하는 '2017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가 11월 14일 대구에서 '영남지역 교구신도회 간담회'로 시작됐다.

3년째 이어온 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는 2015년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구성과 함께 중앙신도회와 종단, 지역신도회와의 유대관계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그동안 교구신도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첫 번째 간담회는 11월 14일 대구 문화웨딩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권역별 간담회에는 제8교구 신도회(직지사), 제9교구 신도회(동화사), 제10교구 신도회(은해사), 제11교구 신도회(불국사), 제14교구 신도회(범어사) 등 영남지역 교구신도회 대표자들과 사찰신도회 임원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서는 조계종 신도조직 현황 공유 및 신도회 중점 사업소개, '신행혁신 운동의 의의와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포교부장 가섭 스님의 특강, 교구별 활동 공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 종단 내적으로는 출가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재가 신도들의 역할과 교구신도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짚어보는 자리가 됐다.

각 신도회의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신도회 중 운영 모범 사례가 소개됐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 추진중인 교구신도회 및 사찰 신도회의 신도등록 사업 추진 주체 발굴도 함께 진행됐다.

중앙신도회는 이와 함께 11월 20일 예산 수덕사 황화정루에서 충청지역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11월 22일 호남지역, 29일 수도권지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 측은 "지역 신도회 활동을 장려하고,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11월 11일과 12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신도회 임원 대상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신도단체 임원의 역할과 의무' 강연과 정현우 에듀이즈 기업컨설팅 강사의 '신도들과의 파트너십 형성 및 소통의 기술'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여기서도 모범신도회 운영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다도와 참선이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봉은사 11월 18~30일 달항아리 특별프로그램 개최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이천 도자기 명장 지강 김판기 작가의 전통 도예 작품인 달항아리를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전시해 함께 감상하며, 다도와 참선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불교에서는 달을 이용한 비유가 많다. '수월관음', '월광보살' 같은 표현에서 보이듯, 달은 '자비로움'과 '청정함'이라는 수승한 마음의 덕을 표현하기 위한 더 없이 좋은 구상적 표현 재료로 사용된다.

지강 김판기 작가는 1958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해 2000년 제28회 동아공예대전 대상,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도자전 특별상, 2001년 제1회 강진 청자 공모전 최우수상, 2008년 세계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 지정, 2010년 제1회 빛고을 공예대전 금상 등에 빛나는 명인이다. 2016년에는 이천 도자기 명장으로도 지정됐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봉은사 템플스테이사무국 으로 연락하여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다. (02)3218-4826 노덕현 기자

소외이웃 김장 나눔에 한파에도 '훈훈'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고양서 김장 나눔 행사


'따듯한 아랫목 만들기 김장행사'가 11월 15일에 진행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공

소외 이웃의 훈훈한 겨울나기를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과 한화S&C(대표이사 김경한)가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한화S&C와 함께 11월 15일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서 '제8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김장행사'를 개최했다. 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요즘 겨울을 나기 위한 소박한 김장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로 8년째 함께하는 한화S&C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이웃들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상임이사 묘장 스님과 조계종자원봉사단, 한화S&C 대표이사와 임직원,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및 결혼이주여성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마음으로 소외이웃들을 위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가정에 전달했다.

한화S&C 김경한 대표는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화S&C는 앞으로도 재단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자비손길로 정성스레 담근 2000kg의 김치와 백미 500kg은 고양시 일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200가구에 전달됐다. 봉사단의 온정에 감동한 한 어르신은 "불교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셔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진형 기자

공불련 제15차 사회봉사의날 실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12월 9일 금천구립 사랑채요양원에서 공불련 제15차 사회봉사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공불련은 2003년마다 매년 사회봉사의 날을 정해 연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금천구립 사랑채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72명의 어르신들이 요양하고 있다. 공불련 회원들은 청소와 어르신들과 대화 나누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공무원 불자로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믿고 따르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다"며 "공무원 불자 개개인이 수행의 자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묵담대종사, 그의 선·교·율



귀의 삼보 하옵고

금번 묵담대종사문도회에서는 묵담 대종사 탄신 121주년을

맞이하여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대종사님의 향훈을 결집한

「묵담 대종사, 그의 선·교·율」 출판 봉정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묵담 대종사님의 법향의 자리에

함께 하여주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1년(서기 2017년) 11월 吉日

묵담대종사문도회 대표 수열 합장

일 시 2017년 11월 25일(토, 음력 10월 8일) 오전 8시 30분

장 소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강당 제주시 516로 3120(아라일동)

문 의 064-783-3203(수암스님) 064-702-7851(춘강정사)

봉정식 수열스님·수암스님·수진스님 (사회:수상스님 집전:수지스님 고유문낭독:대성스님)

시간	내 용
08:30~09:15	-축사1: 한국불교태고종 편 백운 스님 -축사2: 대한불교조계종 암도 스님 -축가 : 금붕사 나유타 합창단 -환영사 : 춘강 이동한 거사
학술대회 (진행 : 이종수 교수)	
학술대회 제1부 (사회 : 고대만 교수)	
09:15~10:15	〈제1발표〉 이중표(전남대) : "묵담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제2발표〉 김경집(진각대학원대학) : "근현대 한국불교와 묵담 대종사" 〈제3발표〉 최종남(중앙승가대) : "묵담 대종사의 전법"
10:15~10:30	휴 식
10:30~11:30	〈제4발표〉 김호귀(동국대) : "묵담선풍의 구조적 특징과 그 전개 고찰" 〈제5발표〉 이자랑(동국대) : "묵담 대종사의 율학과 행" 〈제6발표〉 태경스님(동국대) : "묵담 대종사와 불복장의식"
11:30~13:00	점심 공양
학술대회 제2부(사회:최종남 교수)	
13:00~14:00	〈제7발표〉 인재철(제주대) : "묵담성우선사의 법명과 법호의 지전적 해석, 그리고 계승과 법어 등에 나타난 선사의 사상" 〈제8발표〉 만춘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학) : "묵담 대종사의 예수재에 대한 연구" 〈제9발표〉 박용진(능인불교대학원대학) : "묵담유물관 소장 「범망경」 및 계율관련 불서의 현황과 의의"
14:00~14:15	휴 식
14:15~15:15	〈제10발표〉 정지희(서울역사박물관) : "고종의 후궁 보한당 귀인정씨와 임상궁의 사주품" 〈제11발표〉 박윤미(단국대) : "묵담유물관 소장 섬유류 유물" 〈제12발표〉 유근자(동국대) : "묵담스님과 담양 용화사 불교조각"
15:15~16:00	휴 식
16:00~17:00	〈제13발표〉 유경희(국립중앙박물관) : "담양 용화사 불교회화의 특징과 의미" 〈제14발표〉 이종수(순천대) : "묵담유물관 소장 근대 이전 불서"
17:00~17:10	- 폐회사 - 사홍서원

生死서 벗어나는 길을 찾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⑧ 자유 향한 태자의 여정 '팔상탱' 2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병듦과 죽음과 슬픔과 멸함이 있는가?" –〈중부경전〉 26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합니다. 일찌감치 어머니와 사별한 탓에 삶의 무상함에 눈 뜬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는 29살의 나이에 출가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싯다르타 태자를 늘 괴롭혀 왔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삶과 죽음(生死)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존재'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웬만한 헛짓거리에는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진 모순투성이의 가치관 또는 제도 속에 꼼짝없이 갇혀 삽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자신도 괴롭고 또 남도 괴롭힙니다. 하지만, 태자는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화두에만 온 관심을 집중합니다.

세간 일에 관심없던 싯다르타
오로지 '존재'에 대한 관심만
성문 밖 나들이서 만난 사람들
'生老病死' 고뇌를 깨닫게 해줘
결국 태자는 出家의 길 걷는데



법주사 팔상도 중 〈유성출가상〉의 모습. 태자가 말을 타고 성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흑시라도 소리가 날까 사천왕이 말발굽을 떠받히고 있다. ⓒ하지권



법주사 팔상전 내부의 〈설산수도상〉과 〈수하항마상〉 ⓒ하지권

태자는 이 같은 의문을 품고 자주 골똘한 사유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제 점차 성인이 되어가는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픈 아버지 정반왕은, 왠지 출가할 것만 같은 아들을 보고, 주의를 돌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청년기의 태자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법한 사냥 · 연회 · 아름다운 여인 등 다양한 흥밋거리를 제공하지만, 태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일대기 중에 태자 시절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아버지가 세간 일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들은 '다 부질없다'는 애늙은이 같은 답변만 합니다. 일단 한 번 태어나면 '늙음(老)-병듦(病)-죽음(死)'라는 정해진 틀에 갇힌 운명인데, 이 허망한 몸뚱이를 믿고 도대체 무얼 탐착할 게 있냐는 겁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生老病死) 우환/ 그 고통은 참으로 두려운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썩기 마련이거늘/ 그런데도 거기서 즐거움을 쫓는 구나 …

사람에게는 늙음 앓음 죽음 있어/ 자기 스스로도 즐겨할 것 없겠거늘/ 어찌 하물며 남에 대해/ 물들어 집착하는 마음을 내랴.

우리가 아등바등 욕심내며 탐착하는 근거가 고작 이 믿지 못할 몸뚱이라니. 태자의 눈에는 이미 존재의 무상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애가 탔습니다. 태자 역시 애가 탔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가장 시급한 일은 태자가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태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존재'의 비밀이었습니다. 존재는 고(苦)이다. 고는 왜 생기는가. 나고 죽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러한 화두를 풀기 전까지는 무얼 하든 무얼 먹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서로 참 야속했겠지요.

이 사람만 그러하냐? 나도 그러하냐?

태자의 이러한 화두는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의 대목에서 극대화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 궁궐의 4개의 문을 통해, 차례로 나들이를 나가서 세상을 목격합니다. 동쪽 문으로 나왔을 때 그는 '늙은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희고 눈은 짓무르고 코에서는 물이 흐르고 허리는 굽고 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숨을 헐떡입니다. 시들어가는 생명의 모습입니다.

태자: 이는 어떠한 사람이오?
시종: 노인이라 합니다.
태자: 어떤 이를 노인이라 하는가?
시종: 사람은 태어나 젖먹이 · 어린아이 · 소년을 지나면서 성숙기에 이른 다음에는 형상이 변하고 빛깔이 쇠퇴하기 시작해 소화도 안 되고 기력이 떨어져 고통이 극심하고 목숨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이를 늙었다합니다.
태자: 이 사람만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이냐?
시종: 예, 모두가 마땅히 다 그렇게 됩니다.
–〈석가보(釋迦譜)〉

다음으로, 싯다르타 태자가 남쪽 문으로 행차할 때 그는 '병든 사람'을 봅니다. 서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죽은 사람'을 운반해가는 상여를 봅니다. "이 사람만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이가 다 그러한 것이냐?" "모든 세간 사람들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다 마땅히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입니다"라는 시종의 대답에 태자는 몹시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태자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미래를 봅니다. '나도 늙고 늙음을 피하지 못한다. 나도 병들 것이고 병을 피하지 못한다. 나도 죽어야 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자 젊음, 건강, 삶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 · 로 · 병 · 사'의 가벼움

사람들이 울고 웃고 먹고 자고 바쁘고 또는 게으름 피는 와중에도, 생명은 이러한 자기의 속성을 어김없이 진행해 나갑니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목숨은 밤낮으로 다하려고 하니 부지런히 지혜의 등불을 켜고 힘쓰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성장하고 변하여 없어진다'라는 기정 선고를 받은 몸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존재 법칙이 그러하니까요. 이를 '무상(無常)'이라고 합니다. 용어의 뜻대로 풀면, 없을 '무(無)'자와 항상 '상(常)'자가 결합하여 직역하면 '항상인 것은 없다'란 뜻입니다. 즉, 항상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화의 선상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무상을 영어로 번역하면 'Law of Change(변화의 법칙)'가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상'이 무엇인지 다시 중생들을 위해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무상은 '세 가지 유위법(有爲法)'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생기는 것(나서 자라서 형체를 이루며 감각 기관을 갖는 것), 둘째는 변하는 것(이는 빠지고 머리는 희어지고 기운은 다하여 나이가 많아 몸이 무너지는 것), 셋째는 없어지는 것(모든 감각 기관이 무너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형상들은, 가상(假相:임시적인 상)이며, 그 원리는 연기(緣起:인연하여 일어남)이며, 그 실체는 공(空)임을 역설하셨습니다.

태자는 "나고, 늙고, 죽음을 건너지 못하면/ 영원히 여기서 노닐 인연은 없으리!"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넘어 출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천신과 용과 귀신 무리들이 제각기 자기 힘의 광명으로 앞에서 인도하여 그 밝음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기가 흐르는 별과도 같으니 동녘이 밝기 전에 이미 삼유순을 나아갑니다. 이러한 극적인 출가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입니다.

아직 검은 머리의 청년으로
막 어른이 된 한창 나이에
나는 울며 만류하는
부모님의 뜻을 외면하고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황색 옷으로 갈아입고
집 없는 곳으로 향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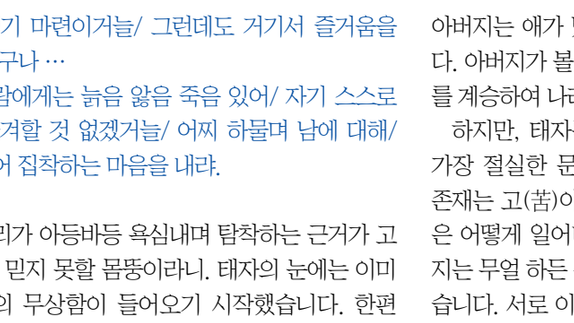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찜질욕 / 효도상품 현금특별 판매가 135만원

편백황토찜질침대

스님편백비누삭발쾌

편향의
특허청 인증서



구입처 : 010-3280-7776

"百日法問, 현대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

서재영 연구원, 17일 백련재단 학술대회서 발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중심으로 이전 50년은 봉건성을 벗고, 근대불교를 구축하기 위한 실험적 기간이었다. 그리고 백일법문 이후 50년은 근대불교를 청산하고 현대불교를 정립해 온 과정이었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근대불교를 청산하고 현대불교를 열어가는 데 있어 사상적 근간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사진〉은 11월 17일 (재)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개최한 '퇴옹 성철과 현대 한국불교의 정체성' 주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근현대불교에서 퇴옹 성철의 역할과 백일법문의 위치'에서 해인총림 설립 이후 설해진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 지를 조명했다.

일제강점기와 함께 도래한 근대 공간에서 한국불교는 "정체성이 해체되고 왜색 불교가 덧칠됐다"고 지적한 서 연구원은 해방과 6.25 전쟁 이후인 1954년부터 17년 간 진행된 정화운동이 탈근대적 운동이자, 한국불교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시 정화운동은 근대불교를 부정하고 단절하는 방향으로 전개됐고, 이로 인해 현대 한국불교는 대처승 점유 사찰을 되찾아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바닥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한계 상황에서 정화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안으로는 승단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해인총림의 설립이었다는 게 서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성철 스님 역시 해인총림에 대해 "승가 정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한국불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서"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총림이라는 외형적 틀은 존재했으나 그 그릇에 어떤 사상과 수행가풍을 채울 것인가는 과제로 남았다. 이 같은 과제에 응답해 총림의 사상적 내용을 채운 것이 백일법문이라는 게 서 연구원의 주장이다.

서 연구원은 "해인 총림은 정화를 통해 달성한 현대불교의 최대 성과였고, 해인총림이라는 그릇에 사상적 내용과 방향을 채운 것이 백일법문이었다"면서 "백일법문은 근대불교를 청산하고 현대불교를 열어가는 데 사상적 근간이 됐다"고 강조했다.



해방 後 이어진 정화운동 17년
불교 전통 퇴색, 방향성 사라져
해인총림 설립, 한계 극복 조치
백일법문, 총림에 내용 채운 것
"백일 장광설, 불교 지향점 제시"

또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저작이라고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백일법문 이전까지 승가교육 내용은 500년 된 교육과정에 토대를 두고 있어 전체 불교사상을 포괄하지 못했고, 현대적 불교관도 제시할 수 없었다"면서 "성철 스님은 전체 불교사상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근대적 성과까지 담아내 불교사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일법문은 현대불교의 탄생과 정착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 정신세계를 뒷받침했다"면서 "백일법문은 시대적 산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시대를 이끌어 왔으며,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가 지향할 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종수(순천대 사학과)의 '봉안사 결사의 배경과 불교사적 의미' △조기룡(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해인총림 결성의 배경과 현대적 의의- 퇴옹성철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박인석(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퇴옹성철의 선문헌 번역사업의 내용과 의의'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시대 제작 사찰 소장 목판들 보물된다

'묘법연화경 목판' 등 9건
문화재청, 보물 지정예고

전국 사찰 소장 중인 조선시대 제작 목판 9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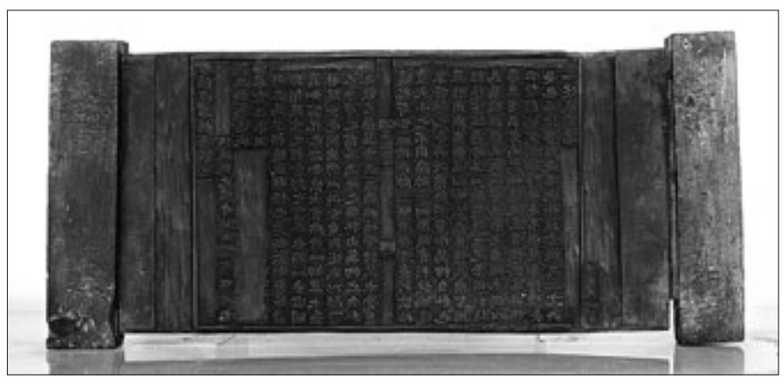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해남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 등 사찰 소장 목판 9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된 사찰 소장 목판들은 문화재청이 비지정 사찰 문화재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성과이다.

2014년과 2015년에 조사한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찰에서 소장한 목판 중 완전성, 제작 시기, 보존상태,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 9건을 최종 선정했다.

해남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1450년 문종의 병세가 나빠지자 안평대군 이용 등이 발원해 활자로 새긴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 〈묘법연화경〉을 명종 16년(1561년)에 전남 장흥 천관사에서 목판에 새긴 것이다.

갑인자본 계열 〈묘법연화경〉은 황해도 자비령사(1493년), 충청도 무량사(1493년), 경상도 신흥사(1545년) 등지에서 간행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유일본이자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전래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해남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 문화재청은 11월 14일 사찰 소장 목판 9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아산 세심사에 소장돼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은 1545년에 오응성이 한글로 옮긴 판본을 기본으로 하여 판각한 것으로, 현존하는 언해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오래됐다. 문화재청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언해본 경전의 현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서산 개심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고산 화암사판을 바탕으로 명종 20년(1565년) 충청도 가야산 보원사에서 다시 새긴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성달생계 묘법연화경 목판 중 강화 전등사가 소장한 〈묘법연화경 목판〉과 더불어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판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초심학인문 목판〉은 선조 17년(1584년)에 서산 개심사에서 제작한 목판으로 병충해나 균열 등이 없어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현존 〈계초심학인문〉 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목판이기도 하다.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은 선조 13년(1580년) 가야산 보원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총 5판 중 1판이 결판돼 현재 4판이 서산 개심사에 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에는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이 목판으로 간행된 사례가 매우 드물며 개심사 소장본이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본이자 가장 오래된 목판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은 선조 17년(1584년) 개심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6판이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중 가장 완전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주목된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선조 10년(1577년) 충청도 서산 가야산 보원사에서 다시 판각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26판이 완전하게 소장돼 있다. 원래의 목재 형상을 목판으로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다양해 조선시대 목판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예고된 사찰 소장 목판 9건에 대해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발전 우바이들의 신행을 논하다

불광연구원, 24일 학술연찬회… 실상화 보살 1주기 맞아

여성불자 모임 불이회와 (재)보덕학회를 설립한 실상화(윤용숙) 보살의 1주기를 맞아 근현대 불교 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1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을 주제로 제34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 대학 강사가 '초기불교의 재가여성들: 후원자, 수행자, 전법자로서의 역할과 힘'을,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근현대 여성불교 운동단체와 그 주역'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실상화 윤용숙의 삶과 나눔불사'를,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이 '한국 여성불자의 현실과 미래 전망'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종합토론에는 김현선 여성문제연구회 서울지회장, 이혜숙 금강대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제발표자들과 함께 여성불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연찬회에 대해 불광연구원은 "여성불자를 주제로 경전에 나타난 여성불자의 위상과 역할, 불교의 여성담론, 근현대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여성불자들의 삶과 신행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려 한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여성불자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잡아가야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경론 번역서 사용된 한글 술어는?

동국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12월 1일 학술세미나

경론 번역에 한글 술어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오는 12월 1일 오후 1시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2017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경론 번역에 사용된 한글 술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원전어에 해당하는 범어와 빨리어, 한문원전 등의 불교경론을 번역하면서 사용된 한글술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글술어를 위주로 한 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논의한다.

세미나에서는 심재관 강릉대 교수가 '범어본 경론의 번역에 사용된 한글술어'를, 임승택 경북대 교수가 '빠띠삼바다막가 역주에 사용된 한글술어'를 발표한다. 이어 이인혜 동국대 연구원이 '북한 선역본 팔만대장경의 한글술어'를, 강명희 동국대 교수가 '한글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한글술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티베트대장경의 본격적인 역경에 앞서 기존 역경작업에서 사용된 한글술어를 정리함으로써 한글술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역경원에서 준비하는 한글술어를 기반으로 티베트대장경을 번역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불교원전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한글술어를 가능한 많이 사용한 번역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으로 불교한글술어를 개발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티베트대장경을 번역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근본경전연구회 깨달음 주제 학술대회

부처님의 생전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근본경전 4부 니까야와 율장으로 '깨달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열린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주지 뿐냐디빠)은 11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처를 만드는 깨달음(근본경전이 말하는 확정적 결론의 제시)'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주지 뿐냐디빠 스님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심층토론에는 청경 스님(칠불사), 선엽 스님(구봉암 주지), 김재욱(근본경전연구회), 최광옥(근본경전연구회)이 참여한다.

뿐냐디빠 스님은 "깨달음에 대해 부처님의 생생한 언어가 담겨있는 니까야로 정의하고자 한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31)573-4284

하성미 기자

참 나를 찾는 90일간의 여정

불기 2561(2017)년

재가(在家) 동안거 수행결사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되시길 발원합니다.

■ 수행기간 불기2561(2017)년 12월 2일(토) ~ 불기2562(2018)년 3월 2일(금)

■ 대 상 안거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신도

■ 방 법
- 부처님의 제자임을 자각하는 [삼 귀 의]
- 나와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 [수행서원문 염송]
-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1일 1선행]
- 대중의 역량에 맞추어 수행하는 [선택수행]

■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051)501-7554

■ 동안거 입재식
- 일 시 : 불기2561(2017)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홍법사 대광명전
- 법 문 : 심산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 90일 수행이력 성취시 안거증이 수여됩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2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언 제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1월 20일 〈3주간〉
모 집 인 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가)
수 련 회 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방한모 · 방한장갑 ·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매주 토요일 11시에 합니다.

일 과 표

시간	내 용
5:00	기상
5:30	새벽 예불 / 좌선 / 걷기명상
6:20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9:00	불교 강의
10:00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11:00	108배
13:00	독서와 사색
14:00	요일에 따라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효도마사지, 예절교육, 호신술, 트래킹
16:30	울력 (도량 청소 및 정리)
17:10	저녁 공양
18:30	저녁 예불

■ 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아성찰 : 힐링 명상, 요가, 자자회

■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禪問答

〈선문답(禪問答)〉이란 책을 펴낸바 있다. 선문답에 대한 관심과 울림을 위해 옮겨본다.

1. 상서(祥瑞)로운 일

한 여자 신도가 말했다. "큰 스님들이 열반에 드신 후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르거나, 어두운 밤에 방광(放光)의 빛줄기가 하늘로 뻗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스님께서 훗날에 열반에 드시면 어떤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죽으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질 것입니다."

2. 밥으로 살지

한 학생이 말했다. "여자는 아름다움으로 살고 남자는 명예로 산다고 합니다. 그럼 수행자이신 스님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밥으로 살지."

3. 환하게 드러낸 걸

한 스님이 물었다. "〈벽암록〉7칙에 있는 공안(公案)입니다. 혜초라는 이름의 구도자가 법안 선사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 답하기를 '그대가 혜초로구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대는 혜초가 아니로구나."

4. 솥에서 끓고 있는

한 스님이 물었다. "도마 위에 오른 물고기가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솥에서 끓고 있는 멸치에게 물어보게나."

5. 바른 눈과 바른 손에 대해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손, 천개의 눈 중에 어떤 손이 바른손이며 어떤 눈이 정안(正眼)이겠습니까?"

"보는 것이 정안(正眼)이요 쓰는 것이 바른손이지."

6. 부모님한테서 몸 받기 이전

한 도반이 내게 말했다. "부모님한테서 몸 받기 이전(父母未生前) 스님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답하길 "흐르는 물이 안개 되어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7. 동그라미 그려놓고

한 선객이 내게 물었다. "스님을 가운데 두고 큰 동그라미를 그려놓을 경우 스님께서는 그 동그라미의 선(線)을 지우지도 넘어오지도 말고 밖으로 나올 수 있으십니까?"

하여, 내가 말하였다. "스님께서 먼저 선을 넘지도 지우지도 말고 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구려. 그럼 그때 내가 나가리다."

8. 몸 안에 갇혀

교수 몇 분이 와서 나눈 대화다. 기독교를 신앙 한다는 교수에게 내가 물었다. "교수님은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십니까? 마음 밖에 모십니까?"

"마음 안에 모시지요."

"그럼 마음은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밖에 있습니까?"

"마음은 몸 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몸 안에 갇혀 답답하시겠군요."

9. 하늘이 잔뜩 흐려 있어서

한 스님이 찾아와서 내게 말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왜 손가락만 보게 될까요?"

"달보다는 손가락이 가깝게 있기 때문이지."

"달은 하나이나 천개의 강에도 달그림자를 남깁니다. 스님께서는 손가락도 달그림자도 아닌 진짜 달을 보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은 어렵겠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어서."

10. 짚신을 머리에 이고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벽암록〉63칙에는 남전선사가 고양이 목 자른 부분이 실려 있고 64칙에는 조주선사가 짚신을 머리에 이고 문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63칙과 64칙의 공안에 대해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남전선사는 고양이는 죽였으나 동서양당(東西兩堂)의 스님들을 살렸고 조주선사는 짚신을 머리에 이어 천둥번개 치는 소식으로 태평가를 부른 것이지요."

11. 골고루 나누어 먹고

한 도반 스님이 해외여행 중 내게 말했다. "예전에 보문 스님이 해인사의 ○○ 스님에게 묻기를 '날마다 법당의 부처님 전에 마지를 올리는데 부처님은 어디로 그 밥을 받아먹겠는가?' 하고 물으니 ○○ 스님은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물음에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먹고 만인(萬人)이 두루 편안합니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먹고
만인이 두루 편안한 이치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금화구지(金華俱胝) 선사는 당나라 때 스님이나 정확한 생몰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았다. 남악문하의 계열로 마조의 제자인 대매법상(大梅法常:752~839)의 법을 이은 항주천룡(杭州天龍)의 제자다. 스승 천룡과 제자 구지 사이에 나온 일지두선(一指頭禪) 이야기가 있다. 이것 역시 선종의 한 공안인데 특이한 일화를 남기고 있다. 일지두선의 시작은 천룡에서 비롯되었으나 구지화상이 평생 동안 일지두선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구지화상이 실제(實際)라는 비구니에게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말이 막혀 체면을 구긴 적이 있었다. 자신의 공부가 비구니 보다 못한데 대해 큰 자괴심을 느꼈다. 어느 날 천룡이 그의 처소에 왔을 때 실제 비구니가 자신에게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 보았다. 천룡화상이 바른 손을 쑥 내밀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이 순간 구지가 깨달음을 얻었다. 참으로 묘한 오도의 계기를 얻었던 것이다. 구지가 입적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평생 엄지손가락 하나로 법을 보였는데 아직도 엄지손가락 법문을 다 쓰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무문관〉 3칙에 구지화상의 일지두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구지화상은 누가 무엇을 묻던 간에 한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후에 절에 있던 동자(童子)가 구지화상이 부재중에 절로 찾아와 화상의 법요를 묻는 외부에서 온 사람의 질문에 화상과 같이 흉내를 내어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안 구지화상이 동자의 손가락을 칼로 베어버렸다. 동자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갈 때 화상이 동자를 다시 불렀다. 동자가 머리를 돌려 돌아보자 이때 화상이 손가락을 세워보였다. 이로 인해 동자가 홀연히 깨달았다"라고 하였다.

손가락을 잘린 동자가 울며 도망을 가다 스승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다 스승이 세워 보이는 손가락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혹자는 이것을 유(有)와 무(無)를 뛰어 넘는 절대의 경지라고 하기도 하였다.

〈무문관〉 '평창(評唱)'에는 이렇게 말해 놓았다. "구지와 동자가 깨달은 핵심은 손가락에 있지 않다. 만약 이 공안의 참뜻을 알아차리면 천룡(天龍: 구지에게 일지두선을 가르쳐 준 스승)과 구지와 동자를 모두 자기 자신과 더불어 하나로 꿰뚫을 것이다.

또 〈벽암록〉 19칙 '평창'에는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면 구지선사의 뜻을 등지는 것이며, 손가락을 외면하고 이해하면 생철을 주조한 것과 같아 씹어서 맛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해해도 이럴 것이며 이해하지 못해도 이럴 것이다. 높아도 이럴 것이고 낮아도 이럴 것이다. 옳아도 이럴 것이고 틀려도 이럴 것이다. 그러므로 티끌 하나가 일어나면 바로 대지 전체를 그 속에 거두어들이고, 꽃 한 송이가 피려하면 세계가 전부 일어나며, 사자의 한 터럭에 백억 개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한다" 라고 하였다.

구지선사의 한 손가락은 알고 모르고, 높고 낮고, 옳고 그름 등을 담아내는 수단이다. 그러나 손가락에서 알아차리려 해도 잘못이고, 손가락을 떠나 알아차리려 해도 잘못이다. 이것이 이 양자 어는 곳으로도 나갈 수 없는 데서 이 일화는 공안으로서 생생하게 성립된다.

『선문염송설화』 522칙에는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가 구지의 일지두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구지가 찾아오는 스님들의 질문에 대답할 적에 으레 한 손가락을 세웠으니 아마도 위로 통하고 아래로 사무쳐 걸림 없는 경지에 계합(契合)해서 증득하려는 것이다. 병이 나은 이는 약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거늘, 후세 사람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예사로 손가락을 세우니 검고 흰 것도 구분 못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른바 '천 균(鈞)의 쇠뇌(弩)로는 다람쥐를 향해 쏘지 않는다' 했으니, 그러기에 정수리에 눈을 갖춘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나중에 조산(曹山)이 구지의 깨달은 경지가 어리둥절하다 했으니, 그는 겨우 한 계기 한 경계만 알았을 뿐이다. 어떤 장님 같은 이가 말을 따라 알음알이를 내어서 구지를 억누른 일을 사실이라 여기나니 마치 벽돌을 뜨겁게 구워서 바닥까지 언 것을 치는 꼴과 같은 줄을 전혀 모르도다. 자세히 살펴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비심 없다면 성불 못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⑲ 지혜와 자비의 수승함

智悲解脫品第二十六

智悲二事何者爲勝° 智者唯能自歸依° 悲者能使他人歸依無上之道° 有悲無智非智者所愛° 有智無悲亦非智者所愛° 能障無上道° 智不與悲心相應° 能障無上道智° 菩薩以爲無智° 一念不樂生死悲不欲解脫° 解脫味如甘露悲者以爲無味° 如美食無鹽以爲無味° 解脫雖甘若無悲心菩薩以爲無味° 若大悲與解脫別解脫皆應敬禮° 以大悲是諸佛母故° 解脫者名永無餘滅一切事° 悲心如善呪° 能呪死者還活° 若受有相續不斷身者是常過° 若取解脫是斷過° 離二邊故名之爲佛救一切眾生° 若無佛者則無解脫° 若無悲者亦無得佛° 悲能生解脫° 以是事故菩薩取悲° 悲體一事能作二事° 一能救眾生° 二能生佛種智°

번역 | 지비해탈품 제26

지혜와 자비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수승할까요. 지혜는 오직 능히 스스로의 귀의처가 되고, 자비는 능히 타인의 귀의처가 되는 위없는 도입니다. 자비가 있되 지혜가 없어도 지혜 없는 이가 사랑하는 바가 되며, 지혜가 있고 자비가 없어도 역시 지혜 없는 이의 사랑하는 바가 되지만 능히 위없는 도를 장애합니다. 지혜가 자비심과 더불어 상응하지 못하면 위없는 도에 장애가 되는 지혜입니다. 보살로서 지혜가 없으면 일념으로 생사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자비로 해탈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해탈의 맛은 감로와 같지만 자비로운 이는 무미하다고 여기는데, 좋은 음식에 소금이 없는 것처럼 맛이 없다고 여깁니다. 해탈이 비록 감로와 같아도 만약 자비심이 없다면 보살로서는 맛이 없습니다. 만약 대비와 해탈과 별해탈을 다 응당 공경할 것은 대비로써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탈이란 일체의 일이 멸하여 남음이 없다는 말인데, 자비심은 선한 주문 같고, 능히 주문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만약 윤회상속하는 몸을 끊지 못하면 항상 과오며, 만약 해탈을 취하면 과오를 끊는 것인데, 두 가지 경계를 떠났기에 부처라 부르며,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가 없으면 해탈도 없고, 만약 자비가 없다면 역시 부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비에서 능히 해탈이 생기는데, 이러한 일로써 보살이 자비를 취합니다. 자비의 근본 바탕은 하나지만 두 가지 일을 짓는데, 첫째는 능히 중생을 구제하며, 둘째는 부처의 지혜 종자가 생기게 합니다.

해설 | 지혜란 무엇일까.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고, 깨달아야 부처를 이룬다.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해탈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탈이란 일체의 일이 멸하여 윤회 상속하는 몸이 없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해탈하고자 하는 이는 생사를 싫어한다고 알고 있다. 생사를 싫어해서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바보살은 놀라운 말을 한다.

'지혜 없는 이가 일념으로 생사를 싫어합니다.'

불교 공부를 설핏하신 분은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고, 불교 공부를 좀 깊게 하신 분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생사와 해탈이라는 두 가지에서 조차 벗어난 이가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살은 생사윤회에 개의치 않는 존재다. 오로지 자비만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자비로써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비가 부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탈의 맛이 아무리 감로와 같아도 보살에게는 소금 간이 안 된 좋은 음식처럼 맛이 없다. 지혜로 해탈을 이루었다고 해도, 시큰둥하다. 진정한 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를 이루는 지혜 종자는 바로 자비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제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14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작은 100원’ 으로 전한 ‘큰 희망’

부산생명나눔, 환우 위한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장기이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기부전 환우에게 희망을 전하고 작은 정성 100원을 십시일반 모아 도움을 안겨주는 따뜻한 콘서트가 개최됐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1월 15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12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를 열어 희망을 선사했다.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는 경제적 ·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환우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큰 희망을 안겨준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콘서트에서는 해동고교 학생들이 모은 저금통 103개 성금 154만610원과 사단법인 미소원 회원이 1년 동안 모은 성금 515만8천원을 기탁하는 전달식도 열렸다. 미소원 회원들은 성금을 전달하며 정성이 담긴 모금 과정도 전해 훈훈함을 남겼다. 미소원 회원들은 성금 모금을 3년 동안 이어오며 환우 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범 단체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회원들의 기도금을 모아 준비했다. 또 회원들이 하루에 100원, 500원 등 정말 작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성이다”며 “3년 동안 함께 도울 수 있어 기쁘다. 환우들의 아픔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기 환우 치료비 전달식 및 특별환우 소개가 이어졌다. 정기 환우 치료비는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이유나(7) 양과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앓고 있는 조승철 씨에게 전달됐다. 특별 환우로는 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김서영(가명 · 3)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됐다. 김서영 어린이는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호흡곤란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그 충격으로 발달지연을 겪게 됐다. 현재 발달 재활치료을 이어가며 난청 귀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치료비가 시급하다. 부산생명나눔은 “힘든 병마로 인해 고통 받는 환우들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도 큰 사랑과 행복을 느낀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100원 십시일반 희망 저금통
절망 극복 큰 정성 되어 회향
환우 선정 및 사례 발표 ‘눈물’
사부대중 촛불 밝혀 행복 기원

콘서트장에는 특별한 사연을 담은 참가자의 소개도 이어졌다. 직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이어가는 노진석 씨와 장기기증 유가족인 홍우기 씨는 무대에 차례로 올라 감사 인사와 함께 장기기증 사례를 전했다.

노진석 씨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직장암이란 선고는 또 한 번의 고통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심정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원에 전달된 생명나눔 성금은 한줄기 희망과 같았고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안겨준 따뜻한 격려가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인드라 스님의 공연에 맞춰 사부대중이 초를 들고 함께 노래하는 모습.

장기기증 유가족인 홍우기 씨는 “아들 윤길이가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아들을 보내며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다”며 “현재 아들의 심장과 간, 콩팥 2개는 20~40대 환자 4명에게 각각 전달돼 새롭게 태어났고, 안구 2개도 시각장애인 2명이 이식받아 새 빛을 찾았다”며 사연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러자 대중은 흐느끼며 홍 씨의 아픔에 공감했다. 이어 홍 씨는 “지금은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을 홍보하며 아들을 기리고 삶의 고통에서 일어났다”며 장기기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콘서트는 인드라 스님, 백련싱어즈 및 윈다(winda)의 공연으로 채워졌으며 부산생명나눔 부본부장 자인 스님, 목종 스님을 비롯해 이사 스님들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콘서트 마지막 발원의 시간에서는 대중이 함께 촛불을 켜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상을 기원했다.

부본부장 자인 스님은 “이번 한 해 부산생명나눔은 76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전달하고 환우들을 격려 응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부산 불자들의 힘이다. 그 작은 정성이 모여 희망으로 빛을 발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단이슬어린이합창단, 창단발표회 열린다

12월 3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서

관음사 단이슬어린이합창단이 창단 발표회를 통해 대중들과 만난다. 관음사는 천진불자의 행복한 음성 공양 ‘꽃길 · 웃음길 · 마음길’ 창단 발표회를 준비 중이다.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는 단이슬어린이합창단 창단발표회를 12월 3일 오후 5시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꽃길 · 웃음길 · 마음길’이란 주제로 개최한다.

‘꽃길’은 어린이들이 나아갈 행복한 길을 의미하며 창작동요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꼭 안아줄래요’ 등 동심을 노래하고, ‘웃음길’은 ‘부모님의 열 가지 은혜’라는 곡을 통해 부모에게 선물 같은 곡을 선사한다. 마지막 ‘마음길’은 ‘기도를 하자’ ‘천진불 오신날’ ‘보현행원송’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불가로 구성된다.


지난해 단이슬합창단이 서로 호흡을 맞추며 곡을 연습하는 모습.

단이슬어린이합창단은 지난해 7월 관음사 어린이법회 소속 구성원을 주축으로 창단했다. 현재 단원은 만 6~14세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일요일 법회 후 환희요양원 5층 강당에서 연습 중이다.

지현 스님은 “단이슬은 부처님의 감로를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 말한 것”이라며 “천진불의 행복하고 순순한 모습에서 번뇌를 맑게 식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응공조계종 창종 6주년 기념법회

“수행종단 거듭나길” 발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6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식전에는 판소리, 경기민요,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삼신이운 · 운심공양게 · 중단권공 · 육법공양 · 오공양작법 · 종사이운 등이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장 보운 스님, 원로의원 평원 · 홍원 · 수덕 · 범승 · 혜담 · 혜광 스님, 태고종 종회의장 법도 스님, 문도회스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원로의장 보운 스님의 개회선언과 선조사스님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마하사 주지 설송 스님은 “창종 6주년을 맞아 동참하신 모든 이에게 지혜 복덕이 가득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게 진여의 일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귀의 하여지이다”고 발원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큰 꿈을 품고 힘찬 첫 날갯짓을 한 6년 전의 날이 인연돼 오늘에 이르렀다”며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 자신을 반성하고 자성을 밝혀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위해 변함없이 수행에 매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응공조계종은 불교교리와 범음범패 교육에도 더욱 노력하며, 문수보살행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수행종단으로 거듭나길 다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광사, 자비의 쌀 15톤 이웃 나눔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동참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김장철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봉사를 펼치고, 자비의 쌀 15톤을 나눴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11월 14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하늘다리에서 개최된 ‘2017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삼광사는 3300만원 상당의 자비의 쌀 15톤(10kg 1,500포)을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과 봉사자들은 행사에 참여해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격려했다. 세운 스님은 “지역의 소외계층들이 자비의 쌀과 김치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자리에서 만든 35여 톤의 김치를 소외계층인 독거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및 무료급식소,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강서구불교聯, 지역복지 돕는 축제

부산 강서구불교연합회가 일일찻집과 음악회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을 마련했다.

부산강서구불교연합회(회장 운암)는 ‘더불어 사는 세상 자비의 일일찻집’을 11월 11일 부산 강서구 청량사에서 개최했다. 일일찻집에는 강서구불교연합회 회장 운암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소속 스님 30여 명과 노기태 강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모듬북 공연, 사물공연, 청량사 합창단 음성공양 등이 진행됐으며, 운암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보현사 법주 스님의 바라춤 공연, 어린이 밸리댄스, 초대가수 무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다. 이날 모연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강서구복지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합창제 대상 ‘홍법사 불광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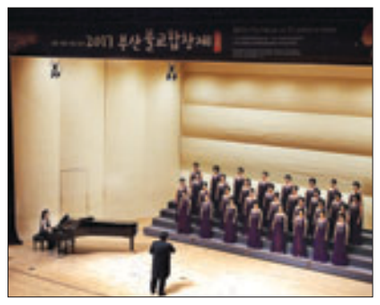
지휘자상 추현철 선정, 합창단연합 신임 지휘자로

2017년 부산불교합창제 경연대회 대상은 홍법사 불광합창단에게 돌아갔다. 아울러 지휘자상은 추현철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지휘자가 선정됐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 박화자)은 2017년 부산불교합창제 경연대회를 11월 14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관음사 환희합창단 등 11개 팀이 참여했다.

행사는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 경연 및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개회식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등 내빈들이 축하하고 격려했다.

2부는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을 시작으로 각 합창단들이 자유곡 1곡과 지정곡 1곡으로 경연을 이어갔다. 특히 각 사찰 주지스님이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서 인사하며 음성 포교를 이어온 대중을 격려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상은 홍법사 불광합창단이 받았으며 금상은 대광명사 소리장엄합창이 수상했다. 특히 새롭게 제정된 지휘자상은 추현철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지휘자가 받았다. 앞으로 추현철 지휘자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을 이끌 예정이다.


부산불교합창제서 대상을 수상한 홍법사 불광합창단이 경연곡을 합창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배천종 지휘자는 “9년 동안 이끌어 왔던 부산연합합창제를 마지막으로 연합합창단 소임을 내려놓게 됐다”며 “신임지휘자는 화합을 과제로 더욱 정진하고 잘 이끌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상을 받은 김행경 홍법사 불광합창단장은 “이 시간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단원들과 연습했다”며 “앞으로도 음성 공양과 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합창제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과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를 비롯해 각 사찰 주지스님,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콩닥콩닥 아기 심장소리와 함께 커가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1 + 0 = 1

1 + 1 = 3

2 + 1 = 6

혼자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삶
가족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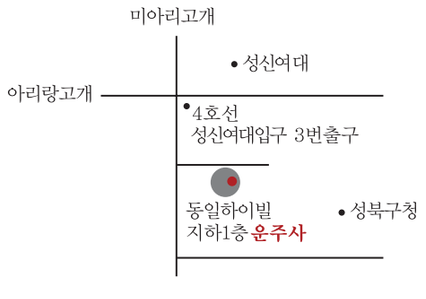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음악봉사로 얻은 마음의 위안"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마이산 탑사 탑밴드

"악기 연주를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큰 보람으로 다가올 줄 몰랐어요. 나의 즐거움이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전주시 기린로변의 한 지하실에서 마이산 탑사 탑밴드의 연습이 시작되자 북을 비롯한 여러 악기들의 흥겨운 연주소리로 들썩인다. 4명으로 구성된 마이산 탑사 탑밴드는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의 지도 아래 매일 별도의 지하 연습실로 출근한다.

지난 2013년 창단된 탑밴드는 초창기 10여 명의 단원들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각 단원들의 기량 차이로 4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진성 스님과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이 객원으로 출연하며 6명이 공연에 나서고 있다.

멤버들은 모두 50대와 60대로 구성되어 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천순희(천수행) 보살은 올해 66세로 최고령이고, 막내가 53세다. 모두 손자들 재롱을 즐길 나이지만 공연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공연구성은 난타와 색소폰 연주로 비교적 단출하다. 주로 빠른 템포의 트로트 곡과 대중의 귀에 익숙한 클래식 곡 위주로 공연한다.

탑밴드 결성은 진성 스님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시민선방을 운영하면서 상담과정 중에 신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타와 색소폰을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됐다. 이것이 발전해 이제는 소규모 공연을 기획할 정도로 성장했다.

진성 스님은 "신도들의 취미를 살리고 그 취미를 바탕으로 음악봉사를 하기 위해 탑밴드를 결성했다"며 "신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봉사를 통한 포교에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탑밴드가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곳은 다양하다.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군부대 장병을 위한 위문공연, 교도소 법회, 양로원 위문공연, 산사음악회를 찾는다. 공연장소도 전북지역을 넘어 점차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주 수정사 나누우리 산사음악회에 출연했고, 10월에는 충남 청양 광덕사 경로잔치에도 나섰다. 이달에는 충남 논산 안심정사 산사음악회에서 공연을 마쳤고, 경북 영천의 3사관학교 공연도 예약됐다. 그동안 출연한 공연 횟수만 100회를 훌쩍 넘겼다. 모든 공연은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된다.

매일 3~4시간 연습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있는 탑밴드 단원들은 모두 봉사를 통해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먼저 천순희 단장은 단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나이 60이 넘어 시작했는데 처음에 너무 어려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도반인 단원들이 옆에서 가르쳐 주고 이끌어준 덕분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난타공연 팀장을 맡고 있는 박성균(진실행) 보살은 내년 남편의 정년 퇴임식에서 멋진 색소폰 연주를 들려줄 깜짝쇼를 준비 중이다.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시작했는데 공연을 할수록 많은 청중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탑밴드는 앞으로 단독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레퍼토리가 완성되면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음악봉사로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탑밴드의 활약이 전국구로 퍼져나가길 기대해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순희 단장을 비롯한 탑밴드 단원들이 공연에 앞서 연습실에서 호흡을 맞추는 모습.

백제 월남사 복원 위한 발굴조사

송광사 · 남도불교문화硏, 전문가 조사 발표

강진 월남사가 백제시대 전형적인 가람구조를 갖춘 사찰임을 확인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와 남도불교문화연구회는 11월 10일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백제시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월남사의 가람과 중요유물인 진각국사 원조탑비의 성격에 대한 전문가 조사 발표를 진행했다.

학술대회에는 △월남사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김진희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연구부장) △월남사 가람 배치에 관한 고찰(천득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월남사 진각국사 원조탑비의 내용과 성격(전라남도 문화재전문 김희태 위원) △월남사 진국국사 원조탑비의 양식과 특징(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 △월남사 진각국사 원조탑비의 서체와 서풍(정현숙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발표됐다.

김진희 연구부장은 "1~7차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월남사의 가람 배치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월남사는 평지 가람으로 중문, 쌍탑, 금당, 강당과 주위에 회랑을 두르는 삼국시대 전통을 계승한 형태로 조성됐다"며 "13세기 진각국사가 무신정권 실력자와 연관되면서 사세가 확장되고, 조선시대에 점차 쇠퇴하면서 16세기말 경 폐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효균 전남대 학예사는 "7차 발굴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고려후기 이전의 건물지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하층 조사를 더 진행하다 보면 1~2년 안에 분명히 백제시대 건물지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차 조사서 고려양식 확인
추가 하층조사 기대 높아
법화 스님 "복원불사 필요"

월남사의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인 진각국사 원조탑비에 관해서 김희태 위원은 발표를 통해 "진각국사비는 왕명으로 비명 병서를 짓고 글씨를 썼다. 전서 또한 왕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각국사가 입적한 뒤 승탑은 송광사에 바로 세워지지만, 탑비는 1250년이 되어서야 월남사에 세웠다"며 "이번 진각국사 원조탑비에 대한 조사와 결과물이 불교 문화사와 향촌 사회사까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진각국사 원조탑비의 형식과 특징에 대해서 신용철 관장은 "진각국사 탑비는 신라하대에 성립해 고려중기까지 끊임없이 제작된 한국형 귀부의 사실상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이라는데 의미가 각별하다"고 평가했다.

진각국사 원조탑비에 새겨진 글씨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어졌다. 정현숙 교수는 "탑비는 고려시대 안진경풍과 저수량풍을 바탕으로 자가풍을 이룬 송 사대가 글씨 유행"이라며 "탑비가 세워진 전라도는 옛 백제 땅인데, 백제는 대대로 구양순풍보다는 곡선미가 돋보이는 저수량풍을 선호했다. 여러 정치적, 종교적 배경과 더불어 글씨의 우월함 때문에 김효인과 탁연이 쓴 이 비는 고려 서예사에 매우 의미 있는 금석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남사 주지 법화 스님은 학술대회에 앞서 "7차에 걸친 월남사지 발굴조사로 가람배치를 확인하고 수많은 불교 유물과 유구를 발굴해 월남사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발굴조사와 함께 하루빨리 복원불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진 월남사지는 13세기 초반 진각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1~7차의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유구와 가람터가 추가적으로 발견돼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소사에 숨겨진 단청의 멋

대웅보전 단청 기록사진 12월까지 경내서 전시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내소사 안에 숨겨진 단청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사진전을 개최했다. 내소사는 보물 291호 대웅보전의 단청을 기록한 사진 60여 점을 봉래루와 설선당에 전시하고 있다.

대웅보전 뒷벽에 그려진 백의보살 좌상,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탱, 나한상, 비천상, 옛 내소사 모습 등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작품성이 뛰어난 단청을 소개하는 내소사 단청 사진전은 오는 12월 말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대웅보전 외벽의 단청은 꽃살무늬를 제외하고는 오랜 세월동안 빛이 바래 내부 모습이 일반인 눈에 띄지 않았으나 이번 사진전을 통해 황학백학도, 천정 우물정자 안에 그려진 구름문양, 비천상, 불교전통악기 그림 등 다양한 단청의 문화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소사 단청은 나무빛깔과 나뭇결을 그대로 드러낸 형태의 단청이라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이 전시된 단청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아름다운 불교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탐방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일반에 내소사 단청의 아름다움을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소사는 지난여름부터 봉래루를 일반에 개방해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불교문화재의 우수성을 일반에 알리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전시회를 감상한 한 탐방객은 "그동안 겉모습만 훑어보고 갔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웅보전 내면의 아름다움도 알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흥사, 승군 지도자 서산대사 추계제향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11월 11일 호국명승장 서산대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추계제향을 경내 표충사에서 개최했다.

서산대제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지휘했던 팔도선교도총섭 승군장이자 대선사인 서산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제향행사로 유교식으로 진행하는 서산대사 국가제향과 불교식 제향으로 진행하는 법요식이 함께 열리는 특색 있는 의식이다. 행사는 해탈문에서 서산대사의 영정이 봉안된 표충사까지 위패봉송을 시작으로 법요식, 행장소개, 봉행사, 인사말, 법문 등이 이어졌다.

정조대왕 때부터 매년 봄 · 가을 국가제향으로 봉행돼오던 서산대제는 일제 탄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여 년 전부터 불교식 제향을 실시해왔다. 이후 대흥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옛 문헌 〈표충사 향례홀기〉와 〈진설도〉 등의 기록을 근거로 2012년 유교식 국가제향을 복원해 매년 봄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산사의 밥상' 5기 수료…46명 배출

천년고찰에서 사찰음식전문가들이 새롭게 배출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1월 9일 '산사의 밥상' 5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사찰음식 전문가를 배출했다. 강좌는 지난 8월 21일 무더위 속에서 시작해 산사의 다양한 나물류, 전류, 국류 등과 계절 음식 등 강좌를 개최해 두 달간의 교육을 거쳐 46명의 산사의 밥상 전문가를 양성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정성과 마음을 담아 공양 올리겠다는 수강생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찰음식의 품격과 정성이 깃든 음식을 전해주었으면 한다"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화엄사는 전 국민 건강식탁 프로젝트 '산사의 밥상' 여섯 번째 강좌를 2018년 3월에 시작하며, 2월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료생들이 직접 만든 사찰음식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둘러보고 있다.

인생의 최대이슈 죽음을 면하는 생로병사 부처님 육년 고행 숨을 멈춘 4분루 진통 정진 마음주머니로 현관을 여는 생사해탈 법은 억억 만겁에 한번 듣고 영상의 자리와 여의보를 내려놓은 진법은 비구니 보살 등 일체종교 성불도 통하는 루진통 수련

마음과 생명과 자성은 염불 말과 문자 참선 그 어떠한 수련도 찾지 못하고 공기주머니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명은 오직 현관 문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고 위대 하기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은 이생에 올 때 가져온 빚을 염라국에 명을 내려 60일에 한번 드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 빚을 감는 천신들의 잔치날이자 수행자들에 지선의 복력으로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오통은 누구든지 주문없이 하나 그 수복이 다하면 오세고가 나타나 천상계에서 퇴물하여 성불이 없고 루진통을 한자만이 혜안이 열려 마음과 생명의 공기주머니. 들어가는 현관을 보는 견성성불 생사해탈 하는 루진통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오통으로 하였으나 루진통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니라 하신 것은 여러 방편으로 고행을 하기에 단 한번의 루진통 평생 수행한 공력보다도 인법일여 즉신 성불하느라 일체종교가 하나되는 루진통. 주문만이 영과 혼 일체 삼라만상 귀신을 바로 회원상생하는 초능력 얻은 자만이 병겁을 다스리는 정법안장 윈시 반본 하느니라.



일체 고액 소멸하는
달마구입처 : 태일
010-9292-3110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 입제일 : 2017년 11월 27일(화) 밤 9시 ■ 해제일 : 11월 29일(수)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 간편한 옷 무박 2일. 동참비 1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029-01-2167866 곽한영(태일)
■ 상담전화 : ☎032-502-6625, 010-9292-3110, 010-9718-4449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 청지공사 불선도 천궁도통회
사)대한불교달마조계종 예성용천사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합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일체의 흙과 물은 다 나의 먼저 몸이요,
일체의 바람과 불은 다 나의 본체이거니
산 것을 풀어서 살려주라.

– 범망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사찰행사, 회심곡
(화청), 바라춤,
염불, 49구재,
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6246-6672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것을 알 수 있다 (암,질병,묘터산소,송사재판,이혼수,낙태유산,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천기누설)

010-4014-8822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속히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보담스님 하늘소리

영가천도. 점안 각종
의식.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010-9229-9899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 (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풍경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기도스님, 처사님 모십니다

절에서 공부할 행자
모십니다
(부산)
010-3840-4355

인연되는 곳을
구합니다
노승은 다 년간 사주명리
철학을 경험한 바, 불자님
들의 궁금증을 인도, 감정
하여 드릴 수 있는 사암을
찾습니다. 뜻이 있는 사암
스님은 연락주세요.
010-3806-846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가평)
010-3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 환영, 55세 이하)
041-673-838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불교실전의식 학인모집

본 교육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재의식에 필요한 사물(북,태징,요령,목탁) 및 바라춤, 나비춤,법고(홍고)를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휴심사교육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14번 출구)
010-8588-2816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루는 특수한 기도법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향다원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우리들의 내면에 빙의(신들림)나 우울증,어깨통증환자를비롯해수많은증상들로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84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주 문 : 전화·문자 010-4475-6611 (주소와 성명, 염주 번호를 선택하여 주문주세요.)
계 좌 : 농협 351-0895-1240-43 (자비의등불)
보급처 : 캄보디아 국제NGO 자비의 등불 후원사업체(향불원, 등록번호 221-82-72640)

교육학 박사



진각스님의 명리학교실 · 단기속성교육과정 개강

- 제도권 학문이 된 命理學을 수학하여, 방편으로 삼고자 큰 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제1기 초급입문반과정.
- 한자(漢字)를 몰라도 가능하며 명리상담법, 작명법을 주 1회로 하여 짧은 속성단기과정 강의.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 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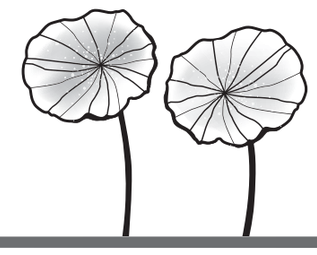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악행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 증일아함경 –



충남 논산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380㎡
- 사찰이 조용하고 깨끗함. ic부근 접근성 좋음
- 양도가액 : 1억 2천 5백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부지 : 55평 ◎ 면적 : 150평
◎ 인법당 : 4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10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정선 토지(급)안내
- 한적하고 교통 편리함
- 토지 80.00㎡. 야산임야.시멘트도로접
- 2차선도로에가까움. 토굴터로좋음
- 급 매물 토지.위치 좋음
- 양도가액 : 3천2백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기도터(급) 안내
- 소재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 대지 200평, 농지 770평
  집 1층, 콘크리트 33평
  방 3, 화장실 1, 다용도실 2
  2층 법당 슬리브 판넬지붕 11평
- 사각정, 물레방아 연못,
  소나무 80 그루
- 양도가 : 2억 5천 급 양도

010-9274-18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IC 15분 거리
- 면적 : 부지 55,000㎡, 건물 270㎡
- 법당, 삼성각, 용왕당, 요사채2동, 황토방 연못, 채전밭, 각종 유실수
  산과 계곡,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법당방 6,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 가액 : 5억 5천만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5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각8평
  요사채1 40평, 요사채2 26평, 기타 8평
- 국내유일의 나전칠기탱화 상단, 신중단
- 지방문화재급:석조미륵마애불상 탱화(약 150년) 100년된 석조지장보살
- 5층석탑:석조금강역사 2구(석조)
- 가액 : 12억

010-9245-821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시장 앞 대로변
  중심지역 7년하던곳
- 확장이전 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3층 40평정도 법당.방2개
  공양실겸 부엌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3백40십
-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음
- 시설합 1350 만원

010-2847-628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1,500평 남짓 법당 목조,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일억 8천 모두 합 2억 5천 5백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사 찰 안 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소백산 국립공원내 달발골
- 부지 : 10필지 3,036평
- 용도: 대지 3필지 469평
  전 7필지 2,567평
  법당: 38평, 창고: 15평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12억

010-2480-2918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000평, 한옥 50평
- 정원수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7억 8천만원

010-5923-3388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 770-2(허)가 06-2231
공신공인중개사 "급 매물" 안내
- 위치 : 부산시 15분 거리 근교..
  양산 명곡 마을에 위치한 사찰
- 대지 200평, 건물 120평 (대웅전, 요사채, 불두) 마당, 일주문
- 주위 대지시세 약 3백만원,
- 등기부 매입시 8억8천만원 등재
- 급한사정 : 8억 3천에 양도

010-3570-0025

사찰(급)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 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 중앙동, 시장 초입에 있음
- 원불 : 아미타, 관세음, 산신
- 탱화 : 부처님 후불 금신중 칠성. 2층 34평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육백, 판넬바닥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9906-96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 : 공양실, 방 2칸
- 가액 : 2억 7천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60평
- 가액 : 7억 5천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 평수 : 400평
- 법당, 산신, 용왕, 공양간 스님 방, 건물 6동 집기일체 완비
- 법회 바로 할 수 있음
- 사찰 앞 아름다운 연못
- 꼭 하실 분 연락 바람
- 가액 : 보증금 2천, 월 50만

010-3850-7179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 2천(5천만원 빼드림)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격암 남사고선생 십승지지》
- 위치 :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 부지 : 대지 136평
- 건물 : 46.42평 1층 법당
  2층 거실방 3개
- 특징 : 심야전기시설
- 가액 : 3억 8천만원

010-2480-29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30평
- 방7칸, 스님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 시내에서 5분거리,
  입지 조건 최고

010-2498-789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 4층 (5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차후 조정 결정
- 무료주차시설 완비

010-9421-9364

암자터(펜션.전원주택)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소재
- 대지 300평. 건물 25평 (조립식). 전답 921평
-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명당터. 토목 조경 완료
- 가액 : 5억

010-3518-395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 법당, 용궁전, 산신각, 요사채
- 총 1,515㎡ (458평)
- 가액 : 6천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3개, 공야간, 창고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독채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50평
- 1층 : 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2층 : 방3, 거실
- 도로변대문 3m 연결
  냉난방시설, 얼마전 올수리
  일반주택구조, 동남향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인테리어비)

010-6838-31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땅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철역앞 역세권
- 전용면적 100명
- 최신식 현대인테리어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3천만원, 월 220, 시설비 8천

010-5800-93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평수 265㎡(80평) 2층 법당 20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체 15평
- 아랫체 창고 방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융자 4천 안고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8794-1257
010-6222-583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의 35호
- 대지 367평 전체 옛날 집 약 100년 흙집
- 지금 사용하고 있던 아주 좋은 명당자리, 대학총장님이 태어난 자리
- 약 30평
- 거리: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 감곡IC 10분
- 가액 : 1억 5천 조정가능

010-6674-1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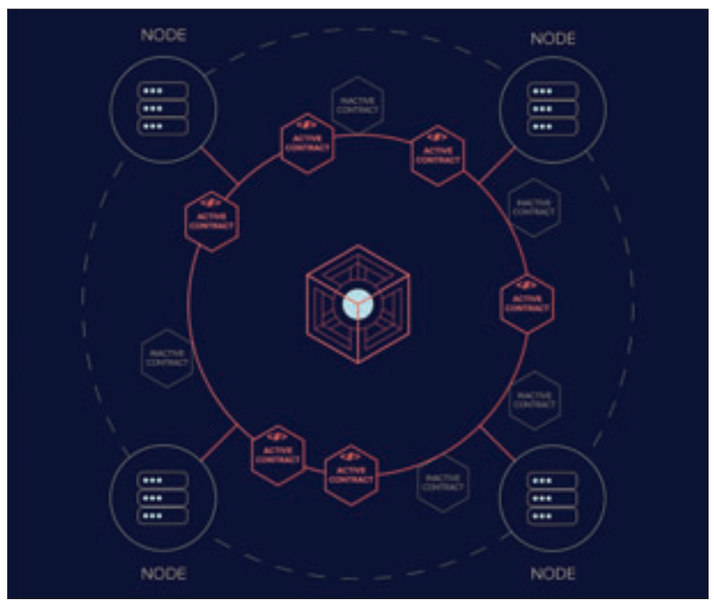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 내, 방 2개, 주방 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가상화폐 시장 '젠 프로토콜' 뜬다

비트코인 매거진, 11월 15일 보도

거래시 확보시간 자동계산
일반인 참여 가능성 높여
참여형 채굴 등 장점 돋보여



나스닥 닷컴에 소개된 '젠 프로토콜' 개념도.

최근 금융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젠 프로토콜'이다.

가상화폐 잡지 '비트코인 매거진'은 11월 15일 '젠 프로토콜, 금융서비스를 위한 진보한 접근법'(Zen Protocol Advances Smart Contracts for Financial Services)이란 글을 나스닥 닷컴(www.nasdaq.com)에 게재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글 도입부에 미국 선승인 스즈키 순류 스님의 격언을 들었다. 비트코인 매거진 측은 "미국에서 대중에게 선불교를 알리고 있는 순류 스즈키 스님은 '미국에서 불교전법은 초심자들의 경우 가능성이 많지만 전문적인 경지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며 "많은 면에서 이 격언은 오늘날 대두되는 가상화폐 금융 기술의 세계적인 부상을 콕 찝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오늘날 가상화폐 금융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이며 복잡하여, 많은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접근장벽이 있는 상태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새로운 금융시장에서 기존 기업과 개인은 서류업무와 관료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반면, 많은 대중들은 이 시장의 장벽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며 "결과적으로, 금융참가자들은 제한된 접근을 위해 중개자들에게 의존한다. 중개자들이 없이는 참여자들은 자산을 발행할 수 없고 일부 자산 등급에서는 거래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젠 프로토콜'을 소개했다.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젠 프로토콜'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안전한 P2P금융을 확보해 은행 및 브로커와 같은 중개인의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젠 프로토콜의 방식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건 금융상품을 만들고 거래 할 수 있다. 옵션 선물, 디지털 통화 등 무수히 많은 금융상품이 참여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젠 프로토콜은 여러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경쟁업체인 이더리움의 대안으로 보인다. 젠 프로토콜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작동하며 이더리움이 가진 몇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경우 채굴된 화폐가 부족할 시 거래가 중단되며, 그 동안에 사용된 화폐가 모두 반환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젠 프로토콜은 리소스 측정을 통해 계약 완료까지의 시간을 감안해 채굴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에 젠 프로토콜은 멀티 해싱 채굴 시스템을 구현해 보다 많은 이들의 협력을 유도한다.

젠 프로토콜 개발팀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 계에서 종사했다. 수년간 연구후 2016년 6월부터 프로토콜 개발이 시작됐다. 젠 프로토콜은 장기적으로 스위스 은행과 연계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프로토콜 CEO인 아담 펠로우는 "젠 프로토콜은 'Zen'이 가진 정신에 근간한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사람들 간에 믿음과 책임감을 갖고 가상화폐 시장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폭력' 위해 불교-기독교 힘 모아야"

종교간대화위원회, 6번째 불교-기독교 종교간 대화 열어

'비폭력'을 주제로 한 불교-기독교간 종교간 대화가 대만에서 열렸다.

'바티칸라디오'는 11월 14일(현지시간) "11월 6일부터 4일 동안 '비폭력을 위해 함께 갑시다'를 주제로 불교-기독교 종교간 대화가 대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로마 교황청 종교간 대화위원회(the 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18명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됐다.

행사에서는 종교간 대화 위원회 차관급 사무총장인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주교가 개회사를 맡았다. 미겔 주교는 "1964년PCID가 설립된 이래로 전세계 불교 신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총회의 주제는 베삭 축제를 앞두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전통적으로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종교간 대화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친 종교간 대화를 열었다. 첫 번째 종교간 대화는 앞서 말한 대만 불광산에서 1964년 열렸으며, 두 번째는 1995년 "말과 침묵"을 주제로 1998년 인도 방갈로 사원에서, 세 번째는 2002년 일본 도쿄에서 '불교의 승가와 기독교의 교회'를 주제로, 네 번째는 2013년 이태리 로마에서 '공동체에서의 평화'를 주제로, 다섯 번째는 2015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불자와 기독교인들의 우애 증진을 위해'를 주제로 열렸다.

미겔 주교는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들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라며 "특히 대부분 많은 분쟁들이 가난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여성들의 가정 폭력에 대해 언급하며 "폭력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활동이 아닌 삶과 죽음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 또는 단기의 전쟁의 영향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잔학 행위의 목격자 들이다. 우리는 매일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바티칸라디오'는 11월 14일(현지시간) "11월 6일부터 4일 동안 '비폭력을 위해 함께 갑시다'를 주제로 불교-기독교 종교간 대화가 대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바티칸라디오

전 세계 13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해 매년 사망하고, 전 세계 인구의 약 12억 정도가 폭력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그는 "민족주의, 성·인종 차별 주의, 종교 근본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 그들의 폭력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호주 수도에 불교사원 '첫 삽'

호주 불자인구 증가 반영 지표…티베트 불교 사찰 '평화 사원'


캔버라 최초 사찰 '평화사원' 기공식서 첫 삽을 뜨는 호주 정부수석장관 앤드류 바.
사진출처=캔버라 타임스

폭력 근절·마약 중독 막기 위해
명상수업·문화 행사 등 진행
2019년 완공·일반에 개방 예정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최초의 사찰이 건설된다. 이 사찰에서는 문화 행사를 비롯, 여러 사회적 활동도 진행 될 예정이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주 언론 '캔버라 타임스'는 11월 8일 티베트불교협회 주최로 캔버라에 최초 불교 사원인 '평화 사원(The Stupa Temple of Peace)' 건설에 첫 삽을 떴다고 전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앤드류 바(Andrew Barr) 호주정부수석장관, 캔버라 티베트불교협회장 라마 최닥 린포체(Lama Choedak Rinpoche) 등이 참석했다. 이는 90년대에 비해 불자가 3배 이상 늘어난 지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찰은 2019년 초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290만 달러가 예산으로 잡혀있는 상태다. 린포체는 "호주에도 이제는 불자가 많다. 과거와 다르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사찰은 꼭 필요하다"며 "이 사찰로 평화를 증진시키고 폭력을 근절하며 마약중독을 막고자 한다. 매우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류 장관은 "이 사찰이 캔버라서 여러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도시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캔버라에서 보는 티베트사찰의 모습 또한 멋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사찰은 2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100명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명상홀을 포함해 여러 공공 공간을 포함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치앙 마이의 잠 들지 않는 밤

태국 대표적 축제 '로이 끄라통'과 풍등 축제

11월, 태국 치앙 마이의 밤은 다양한 불빛으로 반짝인다. 경쾌한 음악소리도 울려 퍼진다. 이곳에서는 11월 내내 풍등 축제가 진행된다.

'릴리전뉴스'는 11월 13일 태국 대표 축제인 '로이 끄라통(Loi Krathong)' 축제와 함께 치앙 마이서 진행되는 풍등 축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조명했다. '릴리전뉴스'는 축제가 "매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많은 지역서 보름달을 환영하며 이뤄진다"며 "그 중 치앙 마이는 다양한 불빛과 연등이 매우 아름답다"고 설명했다.

로이 끄라통 축제는 타이력 열두 번째 달 보름에 열리는 민속 축제다. 이 기간에는 전국의 물길이 연꽃 모양으로 만든 배 '끄라통'으로 가득 찬다. 끄라통에는 불을 밝힌 초와 꽃, 동전 등을 싣는다. 태국 사람들은 작은 배를 띄워 보내면서 축복을 빌고 액운을 흘려보낸다. 거리서 행사를 마친 뒤에도 사람들은 집에 불상을 세워두고 각자의 예불을 진행한다. 이러한 의식들은 불교적 사상서 기반했다고 '릴리전 뉴스'는 밝혔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치앙 마이 주민들이 풍등에 소원을 담아 날리고 있다. 사진출처=릴리전 뉴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치매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는 방법

•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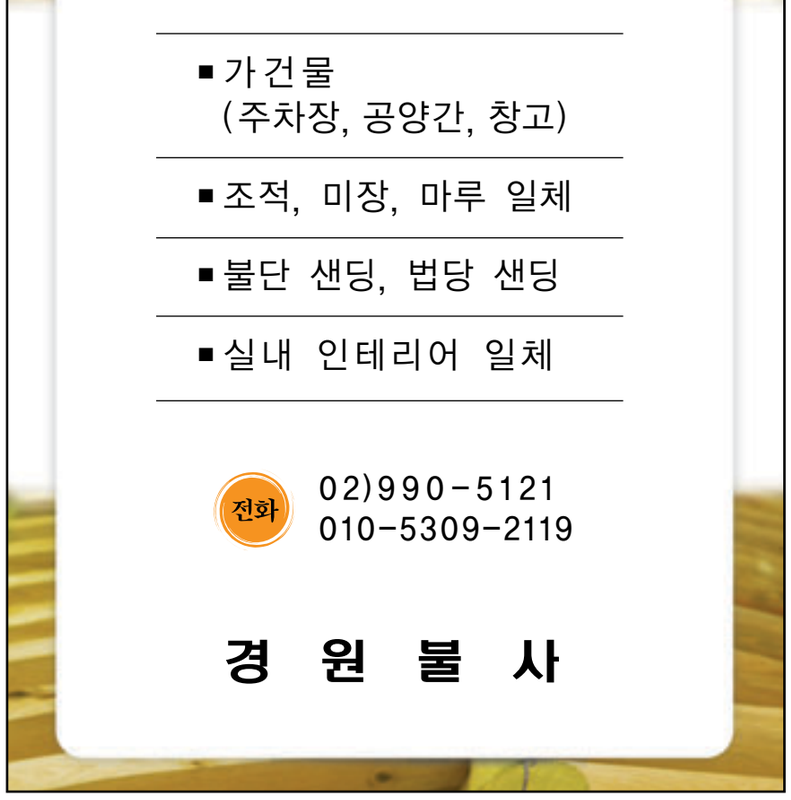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비틀림이 없음
• 지진에 강함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不二' 없는 적폐청산은 또 다른 갈등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㉓



의식수준으로 나타난 행태

요즈음 우리 국가는 과거에 쌓인 잘못을 처벌하는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필자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청산이라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SNS 언어폭력이다. 새 정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강한 의지로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적폐청산인데, 과거에 이루어진 잘못된 관행들이 누적되어 새로운 국가사업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이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SNS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청산을 하는 쪽은 잘못이 쌓였다고 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쪽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니 청산은 되지 않고 갈등만 심화되어 새로운 적폐를 낳고 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부가 의도하는 길이 순조롭지 않고 헤매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방식으로 적폐가 청산될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리더라도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태도를 힘들지만 고맙게 받아들인다. 필자도 어릴 때 할머니한테 매를 맞으면서 자랐지만 할머니가 한 번도 원망스럽거나 미운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따랐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때때로 과거의 행적을 살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일어나는 처벌의 과정을 보면 잘못을 들추어 처벌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일 뿐 함께 잘 살아보자는 사랑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처벌 대상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다. 들추고, 감추느라 국가는 힘이 소진되고 있다. 거기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집행하는 정부의 행태보다 이를 지지하는 SNS는 처벌 대상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언어폭력으로 나타나 더욱 가관이다. 나다니엘 호오돈의 '주홍글씨'에서처럼 과거정권에서 일한 사람들을 실패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로 몰아놓고 그들이 한 행위를 '적폐'로 낙인찍어 심판을 하고 있다. 마치 인민재판과 흡사하다.

며칠 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검사의 부인이 울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며 통곡했다는 기사가 올라오자,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자 자살한 것 가지고 오버한다. 네 남편이 나라 뒤집어놨어. 구족을 멸할 일, 더럽게 살다가 더럽게 뒈졌다"라고 쓴 댓글을 올렸다. 이들의 댓글을 읽다가 망연자실하다 못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자 함께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한 마디로 그들의 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의식혁명'의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분노나 적개심이 있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은 150 이하라고 한다. 150이라는 수치는 짜증을 잘 내고, 욱하기 쉬우며, 과격하고, 불안정하고, 툭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의 성격특징이다. 흔히 '두고 보자'라는 말처럼 꼭 되갚아 주려는 마음이 담겨있다.

인간은 에너지 덩어리다. 그 에너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세상에는 호의적이고 진실하고 사려 깊은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심 사납고 남을 잘 속이고 불쾌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호킨스 박사는 이러한 에너지가 한 개인을 이끌어가는 의식으로 보고, 의식수준을 1에서 1000사이로 나타내었다. 1000에 이르는 의식수준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간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예수나 부처, 크리슈나와 같은 성자의 에너지가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150 이하는 분노, 욕망, 공포, 비탄, 절망,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매우 거칠거나 삶의 의욕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개인에게서 발산되는 에너지의 힘이 어떠하냐에 따라 세상은 평화롭거나 불행하다. 이러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에너지가 삶의 방식을 만든다.

> "
> **국가 적폐청산과 SNS 언어폭력**
> **잘잘못 두고 양측 갈등만 심화**
> **상대적 관계 받아들여 이해하고**
> **사심 없는 사랑으로 국가 운영을**
> "

명상 통한 의식의 해방

우리의 삶은 주로 '상대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인 삶이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되거나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삶이다. 순수 에너지로부터 생성된 우주나 인간은 음과 양이 서로 대립되고 상보적이면서 순환하도록 형성되었다.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대립만 있고 상보는 없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가를 운영한다. 상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에 집착하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자기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운영한다. 누군가가 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도록 밀고 나간다. 그러다 보니 거칠어지고 강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틀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도록 권유한다. 상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혼은 우주적인 힘과 지고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깨닫지 못한 상태이고, 지고의식의 개별화된 일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은 의식이 흐리고, 정신능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지성의 힘이 미약하다. 이들은 물질적 육체에 현혹되고, 반무의식적인 꿈의 상태로 살아간다.

인도의 성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말하길 "자신의 과거 생을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습관에 묶여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의 양식에 더욱 더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과거에 행했던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국가를 경영하든 개인의 삶을 경영하든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면 현재의 삶을 놓친다. 흔히 나 자신이나 세상에 이로움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삶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과거기억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현실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없다. 현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순간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생명에너지를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진 영혼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영혼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몸에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순환하는 7가지 생명력 센터(Charkra)가 있다. 잠자는 영혼인 쿤달리니(kundalini)가 깨어나 생명력 센터를 거쳐 위로 상승할 때 심리적 변형과 육체적 갱생, 의식의 정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척추 기저부인 회음부에 위치한 물라다라 차크라(근간)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집착상태에 있다. 행동양식은 두렵고 불확실하며 탐욕스럽다. 이러한 특성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아이들의 특성과 같다. 이 차크라의 의식은 흐리고 단편적이며 주된 관심사는 육체적 생존과 안전에 있다. 그 다음 척추의 천골(하복부) 부위 스와디스탄 차크라(자아의 거처)로 상승하면 욕망이나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호기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행동양식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노골적으로 접촉하고자 시도하고 예민하다. 마치 세상과 관계하고 경험하려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같다. 그러나 진실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상승하면 척추의 요추부위인 마니푸라 차크라(보석의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 자기중심적이며 충동적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지력이 강하다. 행동양식은 개인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적이며, 인정을 얻고자 한다. 세상을 알아가는 젊은이들의 특성에 해당된다. 특히 이 차크라와 동일시된 사람들은 에고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높은 지식과 명료한 의식을 획득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 혜택만 원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다. 이 세 번째 차크라까지가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지배한다. 아마도 나만의 틀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대적인 사람들은 이 수준의 의식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척추의 등 부위에 있는 아나하타 차크라(신성의 소리)에 이르면 영적인 성장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데, 행동양식은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양심이 발달하며, 자아를 깨닫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이 있고, 좀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중년의 인생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척추의 경부, 목의 맞은편에 있는 비슈다 차크라(순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영적인 눈, 아즈나 차크라(다스리고 조절하는 주체), 뇌의 상부 백회에 있는 사하스라라 차크라(천 개의 빛)에 이르면 더 높은 지식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려는 열렬한 갈망을 가지게 되고, 행동양식은 평화롭고 통찰력이 있으며, 영혼의식으로 살고,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는 다른 이들과 기꺼이 지식을 공유한다. 그리고 행동은 언제나 자비심이 있고,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의식의 해방이 일어나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영적 에너지의 이동은 지속적인 명상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려면 나만이 행할 수 있다는 에고를 내려놓아야 하고, 진실하며 따뜻해야 한다. 지도자가 의식의 확장을 통해 사심이 없고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적폐를 청산합시다"라고 한다면, 적폐의 대상이든 국민이든 마음의 문을 열고 지도자와 함께 동참할 것이다.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의 방식과 상대방의 방식을 둘이 아닌 하나, 전체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밭 죽순 식물성 단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2,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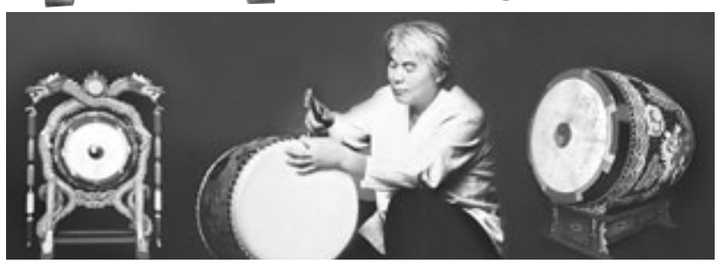


임해 밭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73호 현대불교
2017년 11월 22일(10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1년

일체 살림살이가 과학이며 또는 진리며 도(道)며,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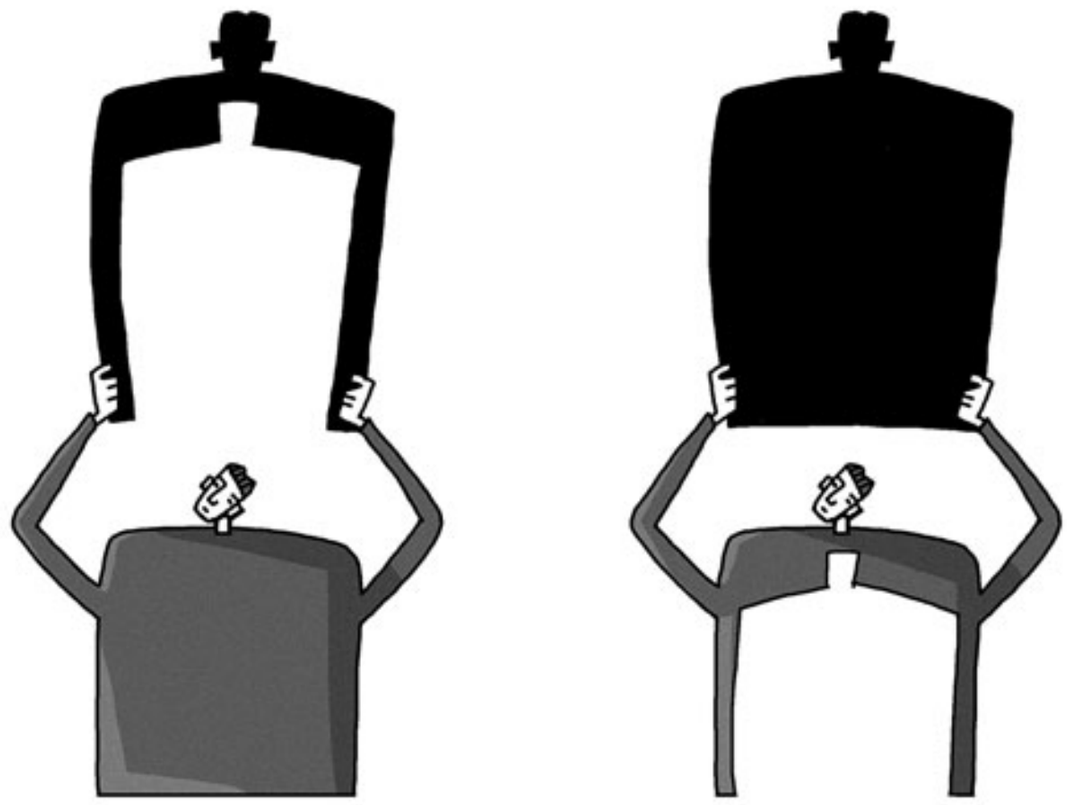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한자리에 같이하면서도 한 달 동안에 몇 번 못 본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가끔 뵌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나 미물 사는 거나, 사람들은 차원이 높아서 임신을 해도 하나만 낳고 그러지마는 사람의 차원까지 이르지 못한 미물의 짐승들은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간도 한생각을 잘못해서 어떻게 행동이 돌아가고,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삶의 고(苦)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한번 그런 일들을 검토해 볼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벌레의 세계든 짐승들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또 우주의 모든 섭리든 그 살림살이가 다 똑같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살림살이가 즉 과학이며 천체물리학이며 또는 진리며 도며, 불교라고요. 조그마한 데다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독교다, 카톨릭교다, 불교다 이런 이름에 끄달리지 마시고, 어느 종교라는 것을 갈라놓고 끄달리지 마세요. 사람은,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들은 다 생명이 있겠지요. 불성은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걸 알게 되고 진화되고 창조되겠죠.

오늘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종합해서 본다면 그런 이치가 한두 건이 아닌데 옛날에 어느 한 동네에 만석꾼이 살았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교인데 진실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니깐요. 만석꾼이 살았는데, 그 양반은 자기 집 노비들을, 종들을 너무도 학대를 했습니다. 동네 일판에서 만석꾼이라면 아마 그 이웃은 다 자기의 노비로서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로 비유할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 한 동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노비들을 너무 잔인하게 부렸습니다. 돈만 알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저 먹는 거라도 넉넉히 주고서 들여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게 먹으며 농사를 지어 주는데 피와 땀이 흐르면서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와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왜 더 들여오지 않느냐?" 하고 두 부부를 묶어 놓곤 때리고 하니 그건 뭐, 돌아가면서 그 고통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매를 맞고도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나무를 안 해 오면 주인한테 또 얻어맞을 테니까 고만 나무를 하러 갔죠, 아파도.

나무를 한 짐 해서 지고 내려오다가 그 매맞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 스님이 다가오더니 "왜 그렇게 울고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이가 하는 소리가 "참, 무슨 죄를 많이 짓고 났던지 이렇게 노비로서 태어나서 그저 걸핏하면 때려서 건강치 못한 몸으로 나무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젊은 스님한테 말했단 말입니다. 젊은 스님이 하는 소리가 "여보시오,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몸뚱이 태어나서 얼마나 가리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어차피 노비로 태어난 거 그대로 그대로 마음을 안유시키면서 조금만 더 살면 죽을 텐데 뭘 그러시오." 하고 가거든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나, 더 슬펐습니다. 한 세월을 노비로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부모도 불쌍하지마는 자기의 동생들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했더라는 얘깁니다. 동생이 있어도 이웃에 살면서 또 노비 노릇을 하니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낳았어도 또 노비 노릇을 해야 하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지금같이 먹고 죽을 약이라도 있으면 그냥 몽땅 다 먹고 죽을 텐데 말입니다. 아, 그때야 양잿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양잿물도 맘대로 못 먹고 죽습니다. 종이기 때문에요. 남의 노비인데 만약에 자살했다면은 그냥 둡니까, 그 가족을.

그래서 더욱더 슬퍼서 울다가 할 수 없이 눈물을 씻고 다시 나뭇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고서 참 근근이 내려왔는데 그 맞은 독도 있고 하니깐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죠. 앓다가 죽어서는 양반집 주인의 손자로 태어나고, 또 그 양반은 죽어서 그 노비의 손자로 태어났더란 말입니다. 아마 누구나가 이렇게 태어나서 같이 산대도 모를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 잘하죠. 구더기는 자기가 파리가 된 줄 모르고 파리는 구더기였다는 걸 모른다고요. 매미는 또 굼벵이라는 걸 모르고 굼벵이도 매미라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니, 정말로 자기 부모가 이 세상에 자기와 연결이 돼서 10대 종손, 11대 종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통 모르거든요. 당대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나쁜 것에도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좋은 것도 착을 두지 말고, 이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엇갈려서 바뀌었습니다. 사연은 많지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엇갈려서 양반은 종이 되고 종은 양반이 되었죠. 양반이 종노릇을 하려니까 양반으로 살던 습이 남아서 아상이 많아. 아무리 종놈으로 태어났을지언정 이건 아만이 머리끝까지 있단 얘깁니다. 그러니 종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한술 더 떠서 매를 더 맞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던 사람은 또 종의 습이 있어 가지고 항상 자기가 높은 줄 몰라. 항상 눈물이 잦고 노비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 남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형님들도 있고 아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나요? 양반, 상놈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요, 종이라는 건 때려죽여도 살인도 아니었죠.

종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난 척을 하니까 몰매를 맞고 지내다가, 어느 날 그만 헛간에 불이 났단 말입니다. 불이 났는데 그 양반 노비는 소를 끌어내려다가 그만 불에 데었단 말입니다. 소도 데고 자기도 데었는데 그거를 다 끄고 보니까 서너 군데나 데었단 말입니다. 소도 엉덩이가 데어 가지곤 그냥 훌렁까지고 그랬으니 주인집에서는 "소도 돌볼 겸 외양간에서 같이 자거라." 이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고 서로 둘이 끙끙대고 앓고 또 소는 소대로 송아지들을 두어 마리 낳아 가지고선 새끼들도 있는데 어미가 엉덩이가 그렇게 데었으니 그냥 앉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또 지푸라기가 닿으면 "음매" 하고 소릴 지르면서 울어요.

그렇게 지낸 지 며칠 후에 어느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스님이 오셨는데 시주를 하라니까 그 양반의 집에서는 쌀 한 됫박 갖다가 부으면서, 우린 만석꾼인데 만 오천 석이 되게 해 달라고 스님한테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돌아서다가 외양간을 보시고는 그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깐 그 전생 양반 노비는 말입니다, 이생에서는 종이죠. 종이 하는 소리가 "무슨 팔자가 이래서 종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 나는 나를 낳은 우리 부모도 죽이고 싶도록 원망스럽고, 자기 주인 양반도 어느 때든지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싶다." 그러거든요. 전생에 양반이었을 때 성질이 그대로 남아서 말입니다. 전자의 각본대로 나오니까.

아, 그렇게 성질을 피우니까 "허허!" 웃으면서 스님이 하는 소립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자네 때문에 들어온 것만은 아닐세. 저 소로 인해서 들어왔네. 소의 얘기는 이렇다네. 저 묘향산 상원사에 어느 행자로 들어와서 살던 스님일세. 그러나 수좌(首座)가 돼 가지고 부처님 앞에 놓는 돈만 그저 긁어 가고 여자를 좋아했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몰래 산을 내려가서 어린애를 낳아 놓고 살지도 못하고는 그냥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원한을 사고 욕심을 버리지 못

☞ A18면으로 계속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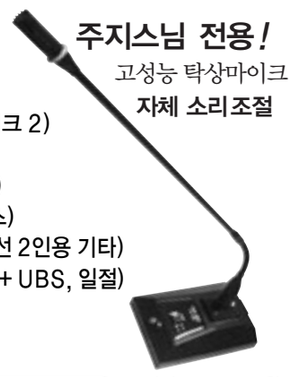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조절



가격 : 185,000원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아들이 아버지하고 둘 아닐 때에 비로소 열쇠를 받는다

☞ A17면에서 계속

하고 승려의 본분을 지키지 못해서 소가 됐다네.” 그러거든요.

“그래, 저것 보게. 송아지를 낳아 놓고도 엉덩이가 아파서 저렇게 앉지도 못하면서 꾸부정하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걸 좀 보게. 얼마나 고통인가? 그래도 인제 울면서 뉘우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주일만 있으면 데려가려네.” 하거든요. 또 “자네는, 이 소의 인연으로 인해서, 소를 이렇게 극진히, 자기의 아픔과 같이 잘 거두기 때문에 자네도 인연 따라서 앞으로 법도를 닦아서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라네.” 했거든요.

그러고 간 지 삼 일 만에 그만 그 사람도 죽고 소도 죽었더랍니다. 그러니깐 양반의 집에서는 야단이 났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소도 죽고 그 종도 죽고, 더 기막힌 건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나자 송아지 두 마리조차 다 죽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어느 집이 참, 가난한 집이지마는 남의 노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으로 인도를 해서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 태어나서 그 스님의 불씨가 그래도 인연이 있어서인지 다시금 스님네 노릇을 하면서 도를 닦았답니다.

그러니 도를 닦을 때에 어떻게 닦았겠습니까? 산중에서 도를 닦을 때는 새 한 마리 빼놓지 않고 곡경을 당하게 한,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나와,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다짐하고 중노릇을 잘해서 앞으로 모든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원이 뚜렷하게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여자를 봐도 나무토막 같아, 그렇게 한번 겪어서. 그 애길 다 들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짚세기에다가 떡하니 새끼 오락지를 매되 방울을 달고, 어디든지 산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휘휘 젓고선 다녔단 말입니다. 팔자걸음으로 슬슬 떼면서.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벌레 하나하나도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친구로 만들었고, 모두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로 만들었다는 뜻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몸 하나하나에, 즉 말하자면 화생(化生)이라든가 태생(胎生)이라든가 또는 습생(濕生)이라든가 난생(卵生)이라든가 이러한 사생(四生)이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사생이 다 들어 있다는 그 묘한 법을 어떻게 일러 드리나 하는 생각에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그 사생의 인연은 어떻게 지어진 인연일까? 자기가 수없이 겪어 나오면서 살아나가던 습으로 인해서 알로 낳고 태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또는 화(化)해서 낳고 하는 그 인연들을 자기가 몽땅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내가 먹었다, 악한 것을 하나 살생을 해서 먹었다 합시다. 벌 하나라도, 벌도 여러 가지지만 독이 든 벌이라고 할 때는 벌 하나 먹어서, 내가 주장자가 완벽하게 서지 않은 빈집이라면 독 있는 벌 하나를, 생선 하나를 잘못 먹어도 그 생선 속에 든 사생이 다 내 인연이 된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독이 든 물체를 하나 먹으면 그 물체 속에 사생이 우리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씨는 악의 씨를 낳고 선의 씨는 선의 씨를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종류의 습을 가진 것을 먹게 되면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생이 전부, 수십억 마리에 관한 건이 전부 악으로 이루어지고, 악으로 낳게 되고, 악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끝간 데 없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인연을 만나면은 그 악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생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남의 악한 종류를, 독을 먹는다면 그 모두가 독의 물이 든단 얘깁니다. 모두가 흡수가 되는 거야. 기능이 마비가 되고, 무슨 독한 약을 먹으면 그렇듯이, 내가 악한 것을 먹으면은 그 악한 피가 흘러서 내 피가 오염이 되니 그 생명들이 전부 마음 씀씀이를 악하게 쓴다 이겁니다.

그뿐인가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만다면 별문제가 아니죠. 한생각으로 사생의 모든 모습을 바꿔 가지고 모습 모습이 다 다른 수십억 마리의, 모습도 다르지만 마음도 다 다른 그것이 한꺼번에 지금 오장육부에 다 있으니 그게 오염이 된다면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모습도 모습이려니와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오염된 악의 씨는 마음 하나에 의해서 수천수만으로 금세 늘어 갈 수가 있는 씨가 나옵니다. 그러니 오염된 그 씨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해치는 겁니다.

모습으로 나오는 것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데서, 즉 영령(英靈)의 씨가, 악한 씨가 보이지 않는 데 수없이 피를 타고 돌면서 또는 전파를 타고 돌면서 나가서는 어디에고 다 퍼집니다. 사람이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도 나고 듭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 말로 하리까? 시급한 문제는 우리 마음으로서 어떻게 한생각을 잘해서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애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버리지 않고 친구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체가 없는 마음은 체가 없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식(識)이 식을 먹고 식에게 식이 먹힙니다.

그러면은 식과 생명, 영원한 나의 주인공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의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 나는 그 의식 자체가 바로 한 의식이란 얘깁니다. “한 의식 속에 수천수만 가지가 나고 드니 그것을 조절해서 전부 그 자리에 놔라.” 이 소리를 항상 하고 있죠? 그러면 때에 따라서 모든 친구들이 내 몸속에 든 친구와 더불어 같이 둘이 아니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들이 나 아님이 없을 것이요, 마음들이 나 아님이 없을 것이요, 아픔이 나 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게 동시에 어떠한 일을 한다면, 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나도 이걸 들어야만 나라가 융성하고 또 편안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팽창될 때 나쁘게 될 때는 좋게 조절을 하고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평등하게, 즉 말하자면 위로 너무 솟아오르는 건 탁 쳐서 내리고 또 너무 내려가는 건 위로 올리면서, 평등하게 두면서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런 공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다함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자리도 싫다 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아마 마다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엔 때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친구라면 어떠한 분야의 어떠한 용도에서는 두루두루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자가발전소에서 전력이 나오는데 용도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집안은 집안대로, 또 공중에서 쓰는 건 공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용도대로, 즉 말하자면 발전소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굴러가면서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나가서 용도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몸뚱이가 한 몸뚱이가 아닙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했듯이,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 상구보리 하면 하화중생이듯이. 내 몸속에 지금 수십억 마리의 중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화중생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몸뚱이 하나로 비유해서 세상에 탁 나왔을 때는 그 많은 중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선장님들은 배를 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모든 배 밑에는 수레바퀴가 달려서 지금 팔방으로 고정됨이 없이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뚱이가 배고, 발은 배 밑의 바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 평발이지.

여러분은 ‘나 아닌 나’가 그렇게 많은 숫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습 없는 나’가 그렇게 많아서 나고 든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모습 없는, 바로 타인의 모습 없는 세균이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 그냥 하나가 돼 버려야 탄로가 나지 않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둘이 돼 버린다 말입니다.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 몸뚱이를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배 속에 타인이 하나 들어 왔으니까요. 그러니 배 속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꼭 주인공에서 나오는 건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주인공에서 어떤 세균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다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게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선 보이는 대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역력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합니까?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가지고 있고 또 광대무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에 탈이 생겨서 말이 잘 안 나온다면 목을 자기가 스스로 수술을 하고 또 간이나 심장도 그렇고,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체는 타인도, 그 타인도 주인공은 둘이 아니라서 내 전화통과 그 전화통과 벨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꼭 안다. 저 사람은 참 안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져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은 언젠가는 건져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뭐, 한순간입니다. 이 도리가 그렇게 무서운 도립니다. 여러분이 욕심 착, 이런 걸로 벌어지게 해서 남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나 착이나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디서든지 샘이 나올 듯하다가도 한울에서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한울이라면 한마음 말입니다. 개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 한마음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마음이 돼야 한마음의 열쇠가 나옵니다.

만약에 한마음이 되지도 못한 사람이 열쇠를 받았다면 그 재주를 이용해서 ‘에이, 너 맛 좀 봐라!’ 대번에 이러한 마음이 나오니, 자동적으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자신에게 열쇠를 맡깁니까? 자신이 아비고 지금 현재 자신이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아들한테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둘이 아닐 때에 비로소 열쇠를 받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 한 생각에 그러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는 사람은 ‘너 맛 좀 봐라!’ 하고 망하게 만들면 아주 즉석에서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는 얘깁니다. 고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인가 또 걸립니다. 나는 놈한테 걸려요. 그래 가지고 톡톡히 당하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그러한 데서 마음 하나하나를 낼 때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깨쳐 보지 않는다면은 내 몸과 둘이 아님을 몰라요. 또 내 자리 네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내 아픔 네 아픔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네 아비 내 아비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참 간절하게 자식이 없어서 우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없어서 우는 자식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런 벌레들도 짐승들도, 저런 섬 같은 데 한번 마음의 눈으로 스르르 좀 봐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좀 여유 있게. 쫓기고 쫓고, 피를 내고 울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쫓기고 쫓다가 먹히고, 부모는 자식이 없어져서 울고, 자식은 부모가 없어져서 우는 그 꼴을 둥글리면서 보십시오.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벌레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개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생명들의 모습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개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
한마음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마음이 돼야 한마음의 열쇠가 나옵니다.

※위 법문은 1987년 1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급변하는 이 시대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어떻게 살 것인가

경남 교육연수원 지정
특수 분야 직무 연수(2학점)

- 연수기간 : 2018년 1월 10일 09:00 ~ 1월 12일 17:00 (2박 3일 27시간) 1월 18일 09:00 ~ 12:00 (3시간)
- 연수대상 (인원) : 유, 초,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20명
- 연수장소 :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 연수비용 : 1인당 자비 부담액 5만원 (숙박비 없음)

나는 쉬고 싶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비움의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연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 ~ 12월 8일
- 주요 강의 내용 :
  1일 :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을 여는 대화
  2일 : 마음의 원리,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3일 : 마음의 활용, 마음과 소통, 변화하는 나
- 신청문의 : 이메일, 전화로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서와 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이 메 일 : kmsjooin0@naver.com yik308@hanmail.net
- 전화문자 : 010-2529-7495 010-7442-1586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아름다운 자연 속
치유와 힐링의 공간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2박 3일간의 마음 여행



| 불자 세상보기 |

단풍과 정원사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좋은 정원은 정원사 능력에 달려
내버려 두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

현대 위기는 기계적 접근서 비롯
선의 갖고 '정원형 지성' 키워야

대한민국 · 조계종 새 출발 다짐
위대한 정원사 거듭나기 위해선
서로 예의 갖추고 신뢰 쌓아야

우리 동네 청계사 입구의 단풍 풍경이 가슴에 찡하게 다가온다. 멀리서 보면 붉은색, 노란색, 갈색 등이 한 색으로 묘합(妙合)되어 보이고, 가까이 보면 각각 다른 색의 저고리를 입고 바람과 함께 춤추고 있다. 단풍 색깔의 어울림이 다른 듯하면서 같고, 같은 듯하면서 다르다. 소나무는 최초의 엽록체를 포기하지 않고 초록을 고집하고 있고,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을 풍경화로 그리면 이런 단풍의 모습이 아닐까?

20여 년 전 학생들과 답사여행 중 설악산의 단풍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공원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분의 이야기가 새삼 기억난다. "설악산은 거대한 정원이에요. 저절로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사의 도움이 없으면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 수 없어요. 태양도 정원사이고 비도 정원사예요. 많은 정원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원사가 사람이에요. 이제 학생 여러분은 설악산의 정원사가 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때 참으로 멋지게 말씀하시는구나 감탄하였다.

그 후 나는 단풍을 보면 정원과 정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했는데, 지금은 더욱 의미 있고 매력적인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 그 계기는 에릭 리우와 닉 하나우어가 공저한 조그마한 책자 〈민주주의 정원 (The Gardens of Democracy)〉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정원과 정원사'라는 은유를 통해 민주주의가 꽃피고 경제적 번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인류가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기계형 지성'과 '정원형 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계형 지성은 합리적인 동물로서의 인간과 완벽한 방정식으로 운용되는 세계를 믿는다. 반면에 정원형 지성은 비합리적이지만 선의를 가진 인간과 생태계로서 변화하고 살아 생동하는 세계를 믿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는 기계형 지성의 산물이라고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원형 지성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세상을 하나의 큰 정원으로 보면서 정원사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훌륭한 정원사는 절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날씨와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뿌린 씨앗을 살피고 비료를 주고 토양을 관리한다.

또한 흙을 갈아엎고 여러 식물을 바꿔가며 심기도 한다. 따라서 훌륭한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정원 공동체를 위한 따뜻하고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붓다의 연기 사상을 응용한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에 금방 공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리라. 정원은 바로 '연기의 광장'이고 훌륭한 정원사는 연기의 지혜를 깨닫고 이를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보살임이 분명하다. '정원형 지성'은 바로 연기법의 사유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텃밭을 일구고자 하고 있고, 조계종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어떤 정원을 만들 것인가는 바로 정원사의 자질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 위 책의 저자들은 '위대한 정원사'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의를 잃지 말자"는 것을 마지막으로 넣고 있다. 예의는 진정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예의는 시민사회의 형성에 있어 가장 생명력 있고 유연한 힘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를 낳는 원천이라고 본다.

지금 한국사회는 서로의 폐부를 찌르는 칼날 같은 용어와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다. 예의 없는 정원사가 싸우고 있는 한 아름답고 멋진 정원을 어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찬란한 가을을 보내면서 새삼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는 정원사를 만나고 싶다.

社說

지진 피해 복구에 자비 손길을

11월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발생한 역대 두번째 규모의 지진이다. 이번 지진의 여파로 상당한 규모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현황에 따르면 이재민 1346명에 부상자 62명이 발생했다. 부서진 주택만 1200건이 넘고 금이 간 학교, 훼손된 다리 등으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이에 불교계도 긴급구호단을 파견하는 등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호물품이나 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연재해는 자신이나 친구, 친척 등 내 주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나는 대비행문을 수행해 항상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 한다. 생활하기 어려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옮겨 다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고 하셨다.

이를 대비행의 문에 머물러 중생 앞에 나타난다고 하셨다. 이는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들이 부처임을 설하신 것이다.

지금 포항지역에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이 있다. 여진이 이어지며, 혹은 더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쌓인 이웃들이 있다.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자비 실천을 다짐하는 이라면 포항 지역의 이재민들을 돕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할 것이다.

스마트한 신행생활 신호탄 올리자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붓다로살자'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음성 독경, 명상 메시지 등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앱 개발에 앞장서 왔다. 포교원만 해도 연령대에 맞춘 '마음거울 시리즈'를 매년 출시하는 등 모바일 시대에 맞춘 포교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붓다로살자' 모바일 앱은 기존 앱과 달리 사실상 대부분의 불교 수행을 망라해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참선과 염불, 독경과 사경, 주력과 절, 명상, 심지어 개인수행까지 앱 내에 탑재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붓다로살자' 모바일 앱 출시를 기해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사전 공개에서 4700명이 이 앱을 다운받았으며 50·60대도 만족도가 높게 분석된 것이다.

도심사찰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각종 법회 상황을 중계하는 일반 불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 등 SNS에 불교계 소식을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불교계에서는 불교신자들의 생활 형태가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각종 사찰 사이트와 뉴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모바일 앱 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바일 환경에 맞는 포교, 전법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무엇보다 모바일을 활용해 보다 활발히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붓다로살자' 앱은 새로운 불교전법과 신행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붓다로살자'를 다운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사유의 숲을 거닐며

야딩서 만난 청정 법신

송마나 작가

천천히 걸었다. 그렇게 걷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몇 걸음이라도 빨리 걸으면 곧바로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차서 걸을 수 없었다.

'선내일(仙乃日)' 설산이 오른쪽에서 그윽하게 나의 더딘 발걸음을 굽어보고, 왼쪽으로는 '사량둬지(夏落多吉)'가 송곳처럼 솟아 있다. 두 산 사이로 멀리 '양마이용(央萬勇)'이 하얀 구름을 하늘로 뿜어내고 있다.

1928년 영국의 루커가 발견한 야딩(亞丁)은 '신선의 땅' 또는 '최후의 샹그릴라'라고 불린다. 특히 티베트인들은 6,000m 높이의 선내일, 사량둬지, 양마이용, 세 설산이 品자로 위치한 이곳을 관세음보살, 금강보살, 문수보살의 삼신산(三神山)으로 받들며, 세계 24 불교 성지 중의 하나로 꼽는다.

이 성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길고 힘든 여정이었는지 모른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오지, 더욱이 해발 4,600m의 우유해(牛乳海)까지 오르려면 고산병이 큰 문제였다. 서울을 출발하여 중국의 곤명, 대리, 리장, 중전(中甸)의 도시를 거치면서 고도를 서서히 높여 나아갔다. 중전에서 야딩의 관문인 도성(稻城)까지 거의 비포장 산길을 버스로 12시간 달렸고, 도성에서 야딩 입구까지는 다시 택시를 대절하여 3시간을 달렸다. 그곳에서부터는 오로지 두 발로 긴 순례를 하였다.

5,000m가 넘는 산들이 에워싼 광야를 묵묵히 걸었다. 발밑이 아스라한 계곡을 벌벌 떨면서 건넜고, 얼음 덮인 고갯길을 수없이 넘었다. 바람은 거칠고 햇빛은 눈부셨다.

구름은 하늘의 쪽빛에도 흰색을 물들이지 않았다. 내 몸 안의 허파 만이 산소를 갈망하며 헉헉거렸다. 정신이 육체를 토닥이지 않았다면 두 발은 결코 걸음을 옮기지 못했을 것이다.

드디어 피라미드처럼 우뚝 솟은 양마이용이 눈앞에 나타났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문수보살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났다.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순간 53 선지식을 찾아 헤매다가 문수와 보현보살을 만나 입법계(入法界)에 들었다는 선재동자를 떠올렸다.

"문수보살이시여, 이끌어준 안내자도 없이 그 멀고 높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헐떡이는 이 가슴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간절했다.

눈을 살며시 떴다. 문수보살을 덮은 하얀 눈 속에서 푸르른 빛이 새어나왔다. 문수보살을 보필하며 좌우로 늘어선 뾰쪽한 봉우리들 사이에서 푸른빛은 더욱 선명했다.

만년설에 뒤덮여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얼음이었다. 햇빛이 내려쬐어 눈은 녹아 흐를지라도 눈 속의 푸른얼음은 그 모습 그대로 빛났다. 태초부터 있어왔던 청정 법신(法身)이다. 얼음이 흰 눈을 쏟아내고, 흰 눈은 녹아 흘러 우유해를 이룬다. 산 위에 떠 있는 바다 같은 호수는 가운데가 푸른빛이고 바깥 원은 우윳빛이라서 우유해이다.

얼음과 눈과 호수의 물은 하나이다. 예쁜 꽃들이 들판에 가득 피었다. 야생화를 키운 우유해의 근원은 푸른얼음이다. 만법의 바탕인 법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에 가득하다. 삼신산을 덮었던 푸른빛 서기가 내 가슴 안에서 맴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륜사(지장암)
• 사찰등록번호 : 제 01-0298호
• 주 소 :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2 (창신2동 626-3)
• 성 명 : 강민수 (정철)
• 승려번호 : 011-0922

상기사찰은 개인사재로 창건한 개인사찰이므로 금번 태고종의 종무처리가 개인사찰을 보호하는데 미진하므로 본인과 사찰은 사찰재산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태고종을 탈종합니다.

불기 2561년 11월 2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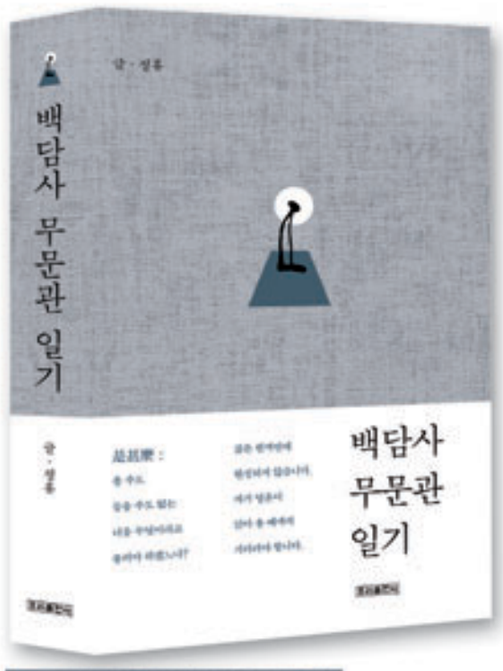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是甚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죽음 언제든 온다는 걸 알면 마음 비우고 살아갈 수 있어"

"집착 내려놓을 때 내적 성숙 가능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 돌아보길"

백담사 무문관 일기

글 · 정휴/신국판 양장/16,000원

그는 몸과 마음에서 無碍의 자유를 풀어내는 雲水이다.
衲僧과는 평생 把手共行한 寒山 같은 도우이다.
일찍이 禪敎를 全錄掌握한 宗門의 聖骨이나 기꺼이 범추를 박대하지 않으니 그 法衣는 강호를 덮고 남았다.
陋巷에 머물 때는 승단이 불조혜명의 구심처가 되도록 온몸을 던지고 蘭若에 들어서는 생사의 關頭에서 任運自在를 보여준 法主가 바로 禪師다.
거년에는 설악산 無門關에서 保任하더니 門 없는 門을 부수고 나와서는 드디어 천하에 한 물건을 내놓았다. 그 末後句는 一隻眼을 얻은 작가 宗師라 할지라도 혀를 빼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납승은 더 이상 보아야 할 눈도 말해야 할 입도 없다. 왜 그런지는 책을 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조실 무산오현 –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표현하는 一言一句가
古劍처럼 빛났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



1년의 결실인 소백한 용두리 호두는
농부의 정성과 청정자연을 머금은 한농의 선물입니다.

소백산 고랭지의 청북 예천 용두리는
품질과 맛 좋은 호두가 내기로 유명하여 예부터 호두골 이라 불렀습니다.

소백산 용두리 신품종 호두는 알이 크고 속살이 실하며 깨기가 쉽습니다.
토종호두보다 인기 많고 가격이 높은 이유입니다.
간혹 거뭇한 호두알은 겉껍질 색이 착색된 것입니다.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향긋한 소백산 용두리 햇호두,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
수차례의 선별작업으로 속이 비거나 기준보다 작은 호두알은 걸러냈습니다.
그래도 기준 이하의 호두가 있을까봐 조금 더 넉넉히 담았습니다.

Walnut

호두의 효능



건과일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기능
동맥경화, 피부노화방지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60-70% 함유
심장질환 예방, **항암**, **당뇨**에 효과
하루 **7알** 권장
두뇌 **노화 예방**, **뼈 건강** 향상

호두 이야기



용두리 호두 농장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튼튼하게 자란 호두나무를 보면 뿌듯하답니다.
9월에 호두가 영글기 시작하면 호두를 털기 시작합니다. 호두둑! 떨어지는 호두비에 머리를 안 맞으려면 잘 피해야 한답니다.
건조까지 마친 소백산 용두리 호두는 선별작업을 거칩니다.
속이 비고 깨진 호두알을 골라 낸 후 드시게 편하게 포장을 한답니다.
벌어지지 않은 호두알은 숙성 후 탈피기에서 청피를 제거하고 세척합니다.

100% 국산
무농약
제초제 쓰지 않은
청정호두

1kg 28,000원
(택배비 3,000원 별도)
2kg 56,000원
(택배비 무료)

■ 주문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 입 금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聖鐘社 SUNG JONG SA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불서출판 37년 한 길…“탄허 스님 역경불사 큰 영향”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푹 빠져 살았다. 그래서 그가 펴내는 책한권 한권 마다 절절한 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산문 밖의 禪 윤창화 출판인(65 · 민족사 대표)

선지식을 만나 禪智를 쌓다

한문공부 차 14세, 월정사 찾아
〈발심수행장〉 읽고 발심 · 출가
탄허 스님 시봉 10년, 큰 공부
“지식과 정신적 자산 된 기간”

불심 간직한 채 세상 밖으로

27세 환속, 출판사 ‘민족사’ 창립
90년대까지 불교학술서만 출판
수 십종의 불교출판계 명저 탄생
37년간 700여 종 불서출판 족적

“좋은 책만 내야겠다.” 한 생각 37년. 그 세월 속에서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성본 저〉 〈벽암록5권-석지현 역주〉 〈대승경전과 선-김호성 저〉, 〈신라화엄사상사 연구-김상현 저〉 〈대승기신론 강설-이평래 저〉 등 수많은 명저가 탄생했고, 700여 종의 책이 출간됐다. 중요한 것은 그 책들이 모두 불서라는 것이다. 한 생각으로 37년을 살고 있는 출판사, 민족사와 그 대표 윤창화다. 그의 ‘37년’과 ‘37년’의 ‘비긴즈’다.

‘탄허’를 찾아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윤창화는 월정사에서 출가한다. 중학교 진학을 잠시 미뤄야 했던 윤창화였다. 시절이 그랬다. 봄이었던 세월이 어느덧 가을을 넘어 겨울로 흘러가고 있었다. 학창과 점점 멀어지는 세월은 윤 대표나 그의 어머니에게 ‘고민’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윤창화와 그의 어머니가 한 생각에서 만난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

당시 윤 대표의 집은 월정사와 가까웠다. 그리고 월정사에는 선지식 탄허 스님이 계셨다.

“월정사에 탄허 스님이 계시니 입산하면 한문이라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뜻이었다. 탄허 스님은 한학의 대가였다. 윤 대표 역시 자신의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때였다. 윤 대표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월정사로 향한다. 열네 살이었다. 불연이라는 말 밖에 무엇이 더 있을까. 월정사 근처가 아니었다면 인연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 대표는 탄허 스님을 바로 만날 수 없었다. 한문 공부는 시작할 수 있었지만 탄허 스님의 한문은 아니었다. 당시 ‘탄허’라는 이름은 불가의 울타리 밖에서도 쉬운 이름이 아니었다. 열네 살짜리 소년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가슴을 때린 ‘발심수행장’

윤 대표의 입산은 일반적인 ‘출가’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미로서 자식의 교육을 걱정했던 일이었고, 윤 대표 역시 중단된 배움을 잇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불연이란 늘 간단치가 않다. 산문에 발을 디딘다는 것이 간단한 인연이 아닌 것이다. 윤 대표가 행자복도 없이 행자 아닌 행자로 지낸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윤 대표는 어느 날,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만난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더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며, 굶주린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홀연히 백년에 이르거늘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라고 닦지 않고 방일하겠는가….”

이유 없는 부처님의 그늘은 없었다. 원효 스님의 문장은 소년의 가슴을 무겁게 때렸다. 소년 윤창화는 원효 스님의 문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이 되어야겠다.”

‘출가’였다.

마침내 탄허 스님을 만나다

정식으로 머리를 깎고 행자복을 입은 윤 대표는 입산한 지 2년 만에 사미계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탄허’라는 이름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먼 곳에 있었다. 윤 대표는 출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탄허’를 찾아 입산했던 그 날을 떠올렸다.

“나는 아직도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한 그 이름과 마주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불가의 계율을 지닌 출가자다. 원효 스님의 문장에 무릎을 꿇고 그 문장 너머에 있을 공부가 궁금하여 산문에 남았다. ‘탄허’라는 이름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닐 진데, 그 이름을 같은 땅에 두고 이렇게 멀리만 있다는 것은 좋은 책을 서가에 두고 읽지 않는 것과 같다.”

윤 대표는 그 길로 탄허 스님의 시봉을 청한다. 불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길을 간단하게 가는 것이었다. 마침내 윤 대표는 입산의 시작이었던 ‘탄허’라는 이름과 마주하게 된다. 당대의 선지식을 지척에서 시봉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면서 축복이었다.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없었으나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선지식의 그늘 속에 있었다. 선지식과 함께 같은 하루를 사는 것이 공부였다.

“유교의 4서를 배우고도 학문에 뜻을 두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는다면 그 스승과 제자는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산문에 들어 사집(四集)을 배우고 나서 공부에 뜻을 두지 못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다.”

스승의 하루하루는 가랑비가 되어 소년 윤창화를 적셨다. 윤 대표는 십 년 가까이 탄허 스님을 모셨고, 그 인연은 윤 대표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했다.

“탄허 스님을 모신 일이 저에겐 지식의 기반, 정신적 자산이 되었죠. 크고 작은 경책들까지도 지금의 저에겐 양분이었어요.”

환속

어느 날, 윤 대표는 환속한다. 그의 나이 스물일곱 살 때였다. 그는 어느 날 출가했듯이 어느 날 환속했다. 출가의 이유가 아득히 먼 문장에서 비롯됐듯이 환속 역시 먼 곳에서 부른 인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또한 지금 윤 대표의 삶을 놓고 본다면 그의 환속은 또 다른 이름의 불연이라 할 것이다. 출가불연을 속세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듯이 속세로 돌아가는 불연 또한 글자 몇 개로 적어내기 힘든 일이다. 눈을 감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일여(一如)’다. 필요한 시절을 만난 것이다.

민족사, 불교출판의 새 길을 열다

윤 대표가 산문을 나온 뒤 사바에서 시작한 일은 출판사였다. 1980년 5월 9일. 윤창화의 민족사가 문을 연다. 윤 대표의 환속을 또 다른 불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민족사다.

“탄허 스님을 모시면서 스님과 스님의 주변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공부였고, ‘불서출판’이라는 원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님의 역경과 간경 불사를 곁에서 본 것이 씨앗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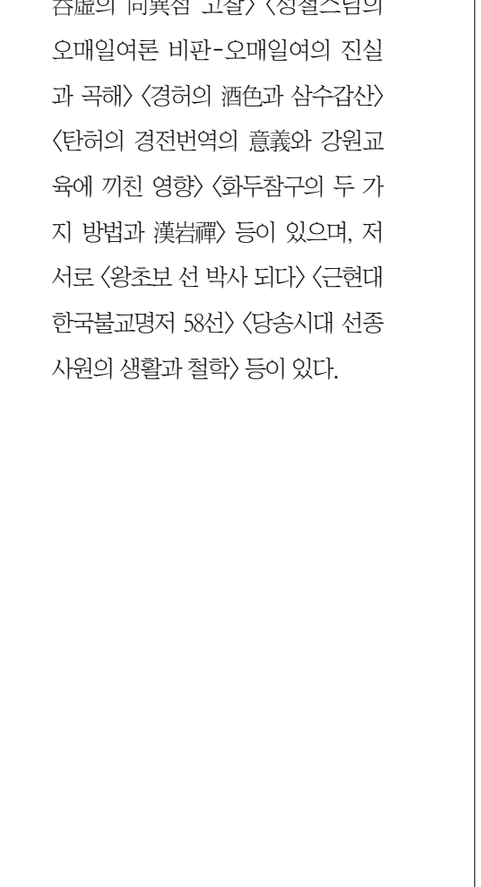
B3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해현(海賢) 노화상

B5
문화
아리담문화원의 뮤지컬 ‘주어사’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윤창화 대표는?

1965년 월정사에서 출가했으며,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했다. 1980년 출판사인 민족사를 열고 현재까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졸업했다. 논문으로 〈해방 후 譯經의 성격과 意義〉 〈漢岩의 자전적 구도기 一生敗闕〉 〈漢岩禪師의 서간문 고찰〉 〈無字話頭 十種病에 대한 고찰〉 〈경허의 지음자 한암〉 〈漢岩과 呑虛의 同異점 고찰〉 〈성철스님의 오매일여론 비판-오매일여의 진실과 곡해〉 〈경허의 酒色과 삼수갑산〉 〈탄허의 경전번역의 意義와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 〈화두참구의 두 가지 방법과 漢岩禪〉 등이 있으며, 저서로 〈왕초보 선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명저 58선〉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등이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펴낸 〈중국 선종의 성립사 연구〉, 〈대승기신론 강설〉,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벽암록〉 등 불교 서적.



계 받은지 3년후인 20세 때의 윤창화(사진 왼쪽).



1974년 탄허 스님의 인촌문화상 수상 당시 모습.

700종 불서편찬, 傳法의 또 다른 이름

원효의 문장, 그 너머를 꿈꾸다

경영악화로 학술 비중 감소

본인 저서 〈당송시대~〉로

2017년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

'윤창화 대표' B1면에서 계속

그랬다. 윤창화의 민족사는 다른 출판사와는 많이 다른 길을 걷는다. 민족사는 불교개설서, 개론서, 학술서 등 불교전문서 출판에만 매진한다.

"다른 책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출판사는 사회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시대의 지성들이 바라보는 출판사를 만들고 싶었고, 한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 수 있는 책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에겐 '불서', 그 중에서도 학문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불교전문학술서였어요."

윤 대표는 당시 불교 전문학술서를 출판하는 출판사 없다는 시대적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불교전문서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있었다. 민족사는 본격적으로 불교 전문학술서를 내놓기 시작한다. '깨달음 총서(46권)'가 그것이다. 깨달음 총서는 출판계와 불교계 안에서 분명 새롭고 주목할 일이었다. 1980년대 초 한국 불교는 학문적인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 국내 불교학계는 일본불교의 연구물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민족사는 국내 불교학계에 필요한 불교개설서, 개론서 성격의 일본 불교학술서들을 번역해 출판함으로써 불교연구의 길을 넓혔다.

1980년대부터 10년간 일본을 비롯한 해외 불교학계의 연구물을 번역 출판해온 민족사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내 불교학술서 출판을 시작한다. 첫 번째 성과가 성본 스님의 〈중국 선종 성립사 연구〉(1991)다. 책은 민족사의 명저 중 하나다. 선어록이나 공안도 충분히 탐구가 가능하다는 결론과 방법론까지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민족사는 1990년대 말까지 약 20년간 400여 권의 불교 전문학술서만을 출판한다. 대중서는 없었다. 민족사의 정체이자 윤창화의 정체이다.

변절, 어쩌면 너무 늦은

20년, 짧지 않은 시간이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린 긴 시간에는 시련이 없을 수 없다.

"민족사가 문을 열고 거의 20년 동안 전문 학술서만 내다보니 출판사는 돈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

불교 전문학술서, 돈이 될 리 없다. 윤 대표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윤창화와 민족사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다. '돈이 될 리 없는 것'에 있었다. 윤 대표가 민족사를 시작한 것은 사회와 불교에 이유 있는, 의미 있는 출판을 하고 싶어서였다. 이유와 의미를 지키는 동안 출판사엔 돈 대신 부채가 쌓인 것이다. 출판사도 기업인 이상 더 이상은 힘겨운 일이었다.

"50% 할인판매"

1998년 윤 대표는 부채를 덜어내고자 '깨달음 총서(46권)'를 50% 할인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단행한다. 결과는 좋았다. 부채의 일부를 해결한 윤 대표는 남아있는 모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전 품목 할인판매를 단행한다. 두 달여의 할인판매 행사로 모든 부채가 정리된다. 하지만 책이 나올 때마다 부채는 또 다시 쌓였다. 2003년엔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사가 더 이상 전문학술서만을 출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족사는 전문학술서 비중을 30%~40%로 줄였다.

"변절한 것이죠. 그래도 민족사의 책들은 모두 불교의 성씨를 가진 책들입니다."

윤 대표는 웃으며 '변절'이라고 했다. 하지만 왠지 그 변절이란 말엔 비난이 따라붙지 못했다. 민족사는 지금까지 불교 전문학술서와 불교경전 시리즈, 경전해설서, 불교입문서, 불교교리 등 700여 종의 불서를 출판했다. 서두에 밝힌 책들 말고도 명저라고 불리는 민족사의 의미 있는 출판은 수없이 많다.

빠알리 경전에 수록된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교리를 수록한 일아 스님의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은 2008년 발간된 후 지금까지 매 년 2천부가 팔린 스테디셀러다. 석지현 스님의 〈벽암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역된 것으로 고전역주서의 전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한국 근현대불교사연구-김광식 저〉 〈무아윤회문제의 연구-윤호진 저〉 〈콘사이즈판 불교사전-김승동 저〉 등 수 없이 많다. 어쩌면 이쯤에서의 변절은 너무 늦은 변절일지도 모른다.

다시, 공부

불교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의 올해 학술상 수상자로 윤창화 대표가 선정됐다. 작품은 본인의 저서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 이하 당송시대~〉이다. 자신이 직접 저술한 책으로는 세 번째다. 2008년 집필을 시작해 약 10년의 집필을 거쳐 2017년 2월에 출간된 〈당송시대~〉는 선종의 여러 청규와 선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각종 제도, 가람 구성, 생활철학, 그리고 그 사상적 바탕 등 당송시대의 선 전반을 탐구한 수작이다. 동아시아 불교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선종사원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선원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까지 담고 있는 주목할 만한 저작이며, 간화선 전통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기초자료이자 미래를 위한 방향 설정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마흔셋 쯤 됐을 때,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산문에 들던 날과 탄허스님 곁에서 공부에 대한 발심을 키워갔던 때가 떠올랐죠. 공부와 너무 멀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학 공부도 다시 했고, 불교 공부도 다시 하고 있고, 출간도 하게 됐죠."

〈불교평론〉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윤창화 대표의 저술은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개척 및 학문과 대중과의 만남, 재야학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평론'의 지향점에 부합한다. 이번 학술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과의 연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모두에게 던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렇다. 윤창화가 산문에 있지 않고 세간에 있는 인연은 바로 저것일 것이다. 그의 환속이 또 다른 불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거처는 바뀌었으나 그의 삶은 늘 '불교'이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표는 앞서 환속의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답을 해주지 않았다. 환속의 이유가 거창해야 하는데, 너무 시시한 것이었다면서 엷은 미소로 대신했었다. 하지만 그가 환속의 이유를 모두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자는 말미에 깨달았다. 그가 산문을 나와서 산 37년, 그는 그 '37년'으로 환속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말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37년 동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글자 몇 개로 말해 달라 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말한 '시시해서'라는 말이 다시 생각난다. '시시해서.' 그는 여전히 원효의 문장 너머가 궁금한 것이다. 그 궁금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바에서의 37년, 아직은 시시한 것이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new


연꽃향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 약쑥향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리스 침대 교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㉓ 해현(海賢) 노화상

112세에 정토종 마지막 조사로 추대

"비록 글자를 모르셨을지라도 한마디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히 염(念)하여 마음을 밝혀 견성하셨으니, 나(정공 법사)는 해현 노화상을 정종(淨宗)의 제14대 조사로 삼가 추천한다." -〈무량수경 심요〉



어린나이 '효행' 이름 높아
18세에 옹창 차유, 발심
문화대혁명 후 불교 중흥

중화권에서 가장 존경 받은 염불 선지식

2013년 1월 17일 새벽, 중국 하남(河南)성 남양(南陽)에 위치한 시골의 작은 절 래불사(來佛寺)에 112세의 고승 해현(海賢) 노화상(老和尙)이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다. 떠날 시간을 미리 알고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펼치는 사명을 완수하였다. 전혀 고통 없이 홀연하고 편안하게 육신을 벗어버리고 아미타부처님의 인도 하에 연화좌대에 앉으셔서 극락왕생한 것이다. 세수 112세, 승랍 92년이 되었으니, 이를 듣고 본 많은 불자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미 중국 본토는 물론 중화권에서 널리 알려진 정토의 선지식인 해현 노화상의 왕생 소식을 전해 들은 염불행자들은 노화상을 정토종의 조사로 추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전세계 200여 지회에 3억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정종학회(淨宗學會)의 정신적 지도자인 정공 법사(淨空法師, 92세)는 2014년, 해현 노화상을 정토종의 제14대 조사로 추대했다. 국내에서는 〈화두 놓고 염불하세〉란 책으로 염불의 수승함을 널리 알린 제13대 조사 인광 대사(1861~1940년)에 이은 마지막 정토종 조사로 추대된 것이다. 정공 법사는 〈무량수경 심요〉에서 추대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

"노화상께서는 한평생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진실로 닦고 원만히 증득하여 '진성(眞誠) 청정(淸淨) 평등(平等) 정각(正覺) 자비(慈悲) 간파(看破: 알아차림) 방하(放下: 내려놓음) 자재(自在) 수연(隨緣: 인연을 따름) 염불(念佛)' 의 21자를 실현하셨다. 그 성취의 관건은 전일하게 정성을 다해 염불함에 있었다."

어려서부터 채식 · 염불한 효자

중화권 최고의 선지식인 정공 법사가 극구 찬탄한 해현 노화상의 말 없는 가르침은 그의 삶을 따라가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될 것이다.

〈내불삼성 영사집(來佛三聖 永思集)〉에 따르면, 해현 노화상의 속성은 문(文)씨이고, 이름은 천현(川賢)이며, 자는 청선(淸選)이다. 선조는 예남(豫南) 당하현(唐河縣) 소배사진(少拜寺鎭)에 살았다. 노화상은 청나라 말 광서 26년(1900년) 8월 19일 태어났다. 부모와 조부모는 독실한 불제자였다. 12살 때, 그의 부친은 호북성 수주에서 도적떼들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노화상은 형제가 다섯 분이며,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채식과 염불을 한 그는 천성이 순박하고 숙세의 선근이 깊어서, 어린 나이에 이미 '효행' 으로 마을에 이름이 났다.

악성 종양 관음기도로 고치고 발보리심

18세 때에 노화상은 허벅지에 옹창(癰瘡)이 나서 살이 썩어 문드러졌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았지만,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인과를 깊이 믿은 그는 "아무리 좋은 묘약도 업으로 인해 얻은 병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탄식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심으로 오로지 '관세음보살' 의 성스러운 명호를 칭념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고치기 어려운 그 옹창이 거짓말처럼 저절로 싹 다 나았다. 노화상은 이 일로 인해 부처님 말씀은 지극히 진실하며, 관세음보살의 "모든 고통과 액난을 제도하신다"는 말씀이 과연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믿게 되었다. 또한 이 일은 그로 하여금 윤회의 길은 험하고 생사문제가 가장 중대함을 깨닫게 해주어, 마침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켰다.

전계 화상에게 '아미타불' 전수염불 배워

민국 9년(1920년), 노화상은 20세에 굳은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작별인사를 하고서 동백산(桐柏山) 운대사(雲臺寺)의 전계(傳戒) 화상에게 귀의하였다. 전계 화상은 친히 머리를 깎아주고, 법명은 '해현(海賢)', 자(字)는 '성성(性誠)' 이라 지어주었다. 전계 화상은 본래 임제종 백운(白雲) 선사 계파의 선사였지만, 해현 화상에게 참선을 가르친 적이 없으며, 경전 강설과 설법도 가르치지 않았다.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육자홍명(六字洪名)만을 전하며 늘 끊임없이 염불할 것을 부촉했을 뿐이다. 해현 화상은 3년 뒤인 23세에 호북성 영보사(榮寶寺)에 가서 구족계를 받았다.

체광 법사 등과 3년간 토굴 수행

해현 화상은 일찍이 동백산의 도화동(桃花洞), 운대사(雲臺寺), 탑원사(塔院寺)에 상주하면서 14곳의 황폐한 산을 개간하거나, 사람들을 도와 11곳의 도량을 세웠다. 1940년부터 1942년까지는 당대의 고승인 해묵(海墨) 법사(1968년 앉은 채로 염불 왕생), 해원(海圓) 법사(선종과 정토종을 겸수, 2000년 입적 후 2천 여 사리 수습), 체광(體光) 법사(허운대사의 심인을 전수받고, 2005년 좌탈입적)와 탑원사에서 초막집을 짓고 함께 수행하기도 했다.

문화대혁명 때도 묵언 염불하며 채식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홍위병은 절에 난입해 경서를 불사르고 불상을 훼손시키고 스님들을 강압적으로 환속하도록 핍박하였다. 이때 화상은 산 아래 마을에서 생산대 대장으로 배치를 받았다. 화상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염불하였고, 저녁에 몰래 절을 하였다. 큰솥에 오신채나 고기가 들어있을 때는 솥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푸성귀를 먹었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래불사의 많은 호법거사들은 당시 화상이 머물던 탑원사에 가서 래불사로 돌아와 정법(正法)을 선양하고 도량을 회복할 것을 청했다. 노화상은 "단지 몸 둘 곳을 튼실하게 하기만을 꾀할 뿐, 어찌 구태여 문과 뜰을 보기 좋게 꾸밀 필요가 있으랴!"하면서, 단지 대전(大殿) 세 칸과 서쪽 곁채의 나한전 세 칸을 세웠으며, 불상을 진흙으로 빚어 모셨다.

제11대 판첸라마의 존중을 받다

1991년, 화상의 사제인 해경(海慶) 법사가 평생 염불수행을 하다 원적하자 금강불괴(金剛不壞: 육신사리)의 몸을 성취하였다. 해경 법사를 항아리에 모신 지 6년 9개월만에 다비를 하여 탑에 봉안하려 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 꼿꼿이 앉아있었던 것이다. 2005년, 이미 105세의 고령이 된 노화상은 해경 법사의 법체를 금신(金身)으로 장엄해주기 위해 멀리 광주에 갔다가 우연히 티베트의 제11대 판첸 라마를 만났다. 이 젊은 법왕자(法王子)는 노화상을 마치 살아 있는 부처님처럼 받들었으며, 지극한 정성으로 함께 점심 공양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임종 직전 112세까지 승복 기워 입고 일해

2012년 3월, 원명사(圓明寺) 주지 인영(印榮) 법사가 노화상을 모시고 원명사에 가서 승복 한 벌을 공양했다. 노화상은 승복을 입어보고는 길이가 좀 길다는 느낌이 들자, 그 자리에서 바로 손수 바늘귀에 실을 꿰어서 순식간에 승복의 가장자리를 감쳐서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출가승다운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극락에서 온 자비 보살의 화신

노화상의 성품은 온화하여 화를 낸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진실로 모든 일을 웃어넘기고 사람들에 대해 포용하지 않음이 없던 분이었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차라리 오신채를 먹은 입으로 염불할지언정, 채식을 한 입으로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랜 도반인 '무쇠 다리 승려(鉄脚僧)' 연강(演强) 법사는 "해현 화상은 틀림없이 불보살이 응화(應化)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평생 동안 어떤 사람과 무엇을 얻기 위해 말다툼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평했다. 정공 법사 역시 해현 화상을 "연지해회(蓮池海會: 극락세계)의 성현"이라 하였으니, 고승들의 이러한 평가가 어찌 빈말이겠는가.

염불 만났으면 이번 생에 왕생해야

2008년 가을, 해현 노화상은 래불사 주지를 인지 법사에게 부촉하면서 "절이 없는 것은 두렵지 않고, 단지 도(道)가 없을까 두려울 뿐이다. 귀와 눈이 멀지 않으면(남의 허물을 못 본 체 하지 않으면) 절의 주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당부했다. 노화상은 늘 사람들에게 이르길,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큰 복덕과 선근이 있는 사람이니, 반드시 이러한 대단히 좋은 인연을 꽉 붙잡아 성실하게 염불하여 이번 생에 왕생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속 미련 버리면 극락이 마음에 있다

해현 노화상은 왕생하기 하루 전인 2013년 1월 16일 오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자들과 함께 사원 앞에 있는 채소밭에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일했다. 제자들이 노화상에게 이제 그만 쉬실 것을 권하자, 그는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이후로는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네"라고 했다. 노화상은 또 "마음속에 보리(菩提)가 있는데, 어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부처님 다리를 붙들려 하느냐? 스스로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으면 자연히 극락이 마음에 있다"고도 했다. 제자들은 노화상이 왕생하신 뒤에야 비로소 미리 작별인사를 한 것임을 알았다.

승단 화합해야 불교 중흥 가능

해현 노화상은 왕생하기 3일 전, 책 한 권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서 한 거사에게 기념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여러 고승 · 대덕들이 정토법문을 예찬하고, 불법을 홍양(弘揚)하는 정공 법사를 찬탄한 내용을 모은 책으로, 제목은 〈약요불법흥 유유승찬승(若要佛法興 唯有僧讚僧)〉이다.

"만약 불법을 흥성하게 하려면, 오직 승가가 승가를 찬탄해야 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모든 종파와 사부대중이 화합하여 염불법문을 되살리고 불교 중흥의 큰 불사를 지어 나가기를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1.15~2017.11.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사랑 연습’ 통해 가공된 마음… 행복 내뿜는 ‘보석’

스님의 사랑수업

원빈 지음 | 이층버스 펴냄 | 1만 3800원





“사랑베풀기 실천할 때 세상보는 안목 열려 어느 순간 사랑의 눈으로 보는 자신 발견”

현대인들은 돈과 명예를 갖지 못하는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보다 더 큰 고통은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 한다. 내 눈동자에 비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인간 관계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인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작은 어렵지 않다. 단지 내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1주일에 하나씩 연습해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자인 원빈 스님〈사진〉은 말한다. 내가 사랑받고 존경싶은 만큼 타인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의 본질은 사랑에 가까워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사랑 베풀기를 선택하고 실천할 때 안목이 열리기 시작해 모든 존재가 사랑받아 마땅한 존귀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일곱 가지 사랑 연습을 1주일에 하나씩 연습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 제목을 보고, 책을 펼치며 이런 질문을 떠올렸을 수 있다. ‘스님이 웬 사랑 수업?’

아마도 근거는 이럴 것이다. ‘스님이 사랑을 알까? 사랑을 해보긴 해봤을까? 결혼도 안 하잖아?’ 등등. 사랑에 대한 오해는 이 지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사랑 수업은 이성에 대한 연애 공략서 같은 것이 아니다. 붓다가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자비로웠듯 스님들은 자신의 수행력만큼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연습한다. 그렇기에 스님은 사랑을 하지 않고 모른다는 것은 편견이다. 직접 체험만큼은 아니지만, 간접 체험 역시 매우 생생한 경험일 수 있다. 스님만큼 각양각색의 인생을 간접 체험하는 사람도 아마 드물다.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둑 두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옆에서 구경하는 이들의 눈에는 훤히 보인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문제가 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내 문제가 아닌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이 겪는 관계 속의 문제를 간접경험 하며, 나름대로 훈수 둔 내용을 기억해보면 결국 그 답은 사랑이다. 대개 상담 속의 질문은 고통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길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의 회복이었다. 이 책은 이런 사랑 회복을 위한 7가지 사랑 연습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 사랑 연습을 실천하는 목적은 사랑의 힘을 회복해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이해를 통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실천이 시작된다. 이 점을 집필하는 동안 항상 되새기며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1장, 2장, 3장서 제공한다. 만약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1장은 필수적으로 살펴보고, 바로 4장의 사랑 연습으로 건너뛰어도 무방할 것 같다.

1장서는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에 대한 재정의를 살펴보며 전체적인 책의 틀을 잡고 있다. 2장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3장서는 사랑이 불러오는 행복의 선물들을 살펴본다.

4장은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데, 7가지 사랑 연습을 소개한다. 사랑을 주고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무작정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7가지로 쪼개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자못 흥미롭다.

5장서는 이러한 사랑 연습이 무르익으면 도달하게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에 대해 소개하고, 사랑 연습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되짚었다.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사랑 연습을 집필하며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호통보다는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빈 스님이 강조하는 7가지 사랑연습

무엇을 마음에 품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뀐다. 자신을 사랑할 때 자화상(스스로가 그리는 이미지)이 회복돼 자신의 존귀함을 확신하게 되고, 생명체를 사랑할 때 타화상이 회복되어 눈동자에 비친 이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으며, 세상을 사랑할 때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위대한 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듯 사랑 그 자체가 되어 존재의 진실을 자각하게 된다.

두려움, 분노, 탐욕, 죄책감, 수치심 등의 두려움 부류 감정으로 향하던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긍정, 신뢰, 낙관, 용서, 이해, 존경, 고요함, 축복 등의 사랑 부류 감정으로 나아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저자인 원빈스님은 일곱 가지 사랑 연습을 통해 올바로 가공된 원석은 삶의 행복을 내뿜는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둘,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에게 기쁘게 인사하기
셋,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을 관찰하며 장점 찾기
넷,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의 장점을 감탄하며 칭찬하기
다섯,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에게 작은 것부터 베풀기
여섯,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의 장점을 따라 배우기
일곱,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과 진심으로 축복하기

▲저자 **원빈 스님**은?

해인사서 출가한 원빈 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후, 대한민국 육군 군종 장교로 임관해 미래를 이끌 주역인 군인들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강연, 법회, 스터디 등을 통해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원빈 스님은 현재 산청 송덕사 주지이자, 행복문화연구소 소장, ‘자비도량 만일기도’와 청년커뮤니케이션 리딩모임 ‘블루붓다’의 지도 법사를 맡고 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행복한 두 시’와 BBS 불교방송TV ‘원빈 스님의 최고의 행복학, 불교’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BTN 불교TV ‘청춘토크쇼 절친’을 진행한다. 저서로는 〈같은 하루 다른 행복〉 〈명상선물〉 〈불교인문학 극락추천서〉 〈읽기만 해도 신심 나는 법구경 이야기〉 등이 있다. 팟캐스트, 유튜브와 다음카페 ‘행복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한다.

“외로운 사람에게 촛불은 하나의 세계”

촛불

가스통 바슐라르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1만 5천원



프랑스의 과학철학자이자 시 철학자로 프랑스 현대사상사의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진 가스통 바슐라르의 〈촛불 La Flammc D’ une Chandelle〉이 출간됐다.

‘시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철학자이며, 철학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 〈촛불〉은 가스통 바슐라르가 임종 1년 전에 집필한 마지막 저서이다. 수많은 시인들, 예술가들의 필독서인 이 책은 촛불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시적 몽상에 대한 탐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촛불이 촉발하는 이미지들의 시학, 뿐만 아니라 촛불 앞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바슐라르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사유하면서 꿈꾸고 꿈꾸면서 사유하던 시절, 촛불은 영혼의 고요를 재는 압력계일 수 있었고, 결이 고운 평온,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내려가는 평온의 척도일 수 있었다. 평온해지고 싶은가? 조용히 빛의 작업을 수행하는 가벼운 불꽃 앞에서 가만히 숨 쉬어보라”

촛불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뒤덮고 물결을 이루던 촛불집회가 어느덧 1주기에 이르렀다. 한국에 밀란 쿤델라, 로맹가리 등 프랑스 문학을 꾸준히 소개 번역해온 이 책의 역자 김병욱은 촛불광장에 나갔다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촛불은 대체 무엇인가. 촛불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다가 이미 반세기 전에 바슐라르가 집필한 〈촛불〉서 궁금증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빛에 대한 몽상은 우리를 친숙함의 골방으로 데려간다. 우리 내면에는 오직 가물거리는 빛만 용인하는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예민한 마음은 부서지기 쉬운 가치들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은 투쟁하는 가치들과 하나가 되기에 어둠에 맞서 싸우는 미약한 빛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작은 빛에 대한 우리의 모든 몽상은 오늘날의 삶에서도 심리적 실재성을 유지한다.’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판본이 〈촛불의 미학〉이란 제목으로 나온 바 있다. 대학에 재직을 하면서 가스통 바슐라르로 논문을 쓴 역자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책에 깊이 빠져 사람들에게 〈촛불〉이라는 책의 존재를 새삼 일깨워주고 싶었다. 덧붙임으로 이 책을 새로 번역한 의미와 함께 맨 마지막 장에 담은 옮긴이 해설 ‘〈촛불〉 고독한 몽상의 시학’에서는 한평생 과학인식론을 연구하는 철학자이자 시적 몽상을 연구하는 시학자의 삶을 살았던 바슐라르의 사유의 축과 몽상의 축 그리고 과학적 사유와 시적 몽상의 사유에 대한 역자의 해석이 이채롭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마치 아름다운 한편의 시를 읽는 것과도 같은 몽상과 상상력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단어와 문장 사이사이 책 자체가 하나의 촛불이 되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의 내면에 고요히 타오르며 희미하게 꺼져가는 영혼을 밝혀준다.

김주일 기자

▲저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철학자, 인식론자, 과학철학 및 과학사 교수, 문학 비평가, 시인 등 다양한 면모의 활동으로 프랑스 현대 사상사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작가이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는 프랑스의 철학자로, 1927년 〈근사적(近似的) 인식에 관한 시론〉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디종 대학 교수를 거쳐 1940년 파리 대학에 초빙돼 과학사 · 과학철학을 강의했고, 동 대학의 과학사 · 기술사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1954년 명예교수가 되었다. 또한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고 국가문학대상을 수상했다. 데카르트적 인식론과 비뉴턴적 역학 개념 등을 도출하게 되는 과학사 연구 중에 이른바 객관적 과학 이론의 인식론적 방해물로 개입하는 인간의 꿈과 상상력의 존재, 그 무한 깊이의 힘과 매력을 발견하게 된 그는 향후 그것들의 개성적 표현인 구체적 문학 작품을 종횡무진 읽어가면서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정신분석학적 음미에 몰두하였다. 그는 물 · 불 · 공기 · 흙의 4원소에 대한 독자적인 ‘물질 상상력’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프랑스 신비평 분야의 대부로 떠받들어지고 있다. 1962년 파리에서 사망, 고향인 샹파뉴의 바르 쉬르 오브에 묻혔다.

“가야기획에서 만드는 도서출판 하이의 불교서적은 꼭 챙겨두어야 할, 전문성을 가진 책입니다!”

작명록은 (한국 278성씨 , 성씨별로 완벽하게 작명한 이름 6,065,726개를 음양, 음오행,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수리오행에 모두 맞게 지은 이름을 사주에 맞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新사주연구
사주 공부에 “꼭” 필요한책 | 저자:지안스님



프랑크 영어 이름
*작명록(上 · 下) 구입시 무료 증정합니다.



작명록(上 · 下)
완벽하게 좋은 이름짓는 책 | 저자:지안스님



불교 의식 시리즈(1~5)
불교 의식에 “꼭” 필요한 책 | 저자:지안스님

가야기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삼송테크노밸리 B동 433호 | 전화 02)379-2400 | 팩스 02)379-2401 | gaya2400@nate.com

아픈 역사에 담긴 '종교화합' 가르침

뮤지컬 '주어사' 11월 28일 서울서 공연

수원 아리담문화원 주최
제스트컴퍼니 연출 맡아
마가 스님 등 4대 종교
대표패널 화합 토크쇼도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천진암과 주어사지는 한국 가톨릭계의 발상지로 여겨진다. 1779년(정조 3) 권철신을 비롯해 정약전 · 김원성 · 권상학 · 이총억 등이 강학을 펼친 곳으로, 이들은 한역서학서를 통한 가톨릭 교리를 검토하며 신앙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신자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해준 스님들이 관군에 의해 처형당한 일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일로 천진암과 주어사는 폐사의 아픔을 겪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스님과 가톨릭 신자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동행이 현대 후손들의 성지 개발 갈등으로 빛바랬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최근 이 같은 역사의 가치를 되새기고, 종교화합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불교계 뮤지컬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수원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은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화합의 역사를 노래하는 '뮤지컬 주어사-생명이 중한디'를 공연한다. 아리담문화원은 지난해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한 심포지엄 및 화합 한마당'을 개최하며 이 뮤지컬을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약 45분간 펼쳐지는 뮤지컬 주어사는 천진암과 주어사지 관련 역사자료와 구술 등을 바탕으로 창작됐다. 주어사의 역사와 종교화합의 의미를 대중에게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다 떠오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공연은 아리담문화원 산하단체로 등록한 제스트컴퍼니가 맡아 가톨릭신자들이 사찰에 몸을 의탁해 천주학을 연구하고, 이를 염려한 조정이 관군을 파견해 스님과 관련자들을 박해하는 모습 등을 연출한다.

아리담문화원장 송탁 스님은 이웃종교와 이웃문화에 대한 배타성 극복을 이번 공연의 중요 가치로 꼽았다. 스님은 "종교간 갈등이 심각한 오늘날, 주어사 역사의 올바른 계승은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 그리고 화합의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현대 종교가 지향해야할 초종교화된 종교의 가치를 표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뮤지컬 주어사는 길지 않은 공연이지만 주어사 복원이 단순한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종교 문화가 공존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장이었다는 점, 주어사 스님들의 대자비심과 희생정신, 주어사가 최초 이웃종교를 향한 열림의 장이었던 사실, 이웃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제거 등 현대사회 종교에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

아울러 뮤지컬 끝난 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이웃종교 화합을 위한 토크쇼'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이명권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민학기 용주사 신도회장 등 4대 종교인이 참여한다.

불교 대표인 마가 스님은 "주어사 스님들은 조건 없는 자비실천으로 이교도들을 보호해줬지만 그 결과는 죽음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조화로운 세상이 평화의 기반이 되고, 이 위에서 종교화합도 가능하단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뮤지컬 주어사의 한 장면. 가톨릭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주어사에 침입한 관군과 스님들이 대립하고 있다.
아리담문화원 제공



최정인 궁중자수장의 작품 '25조 가사'

佛心, 한땀 한땀 자수로 꽃 피우다

해인사성보博, 기획특별전

한땀 한땀 농인 전통 자수에 담긴 불심(佛心)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선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불심, 자수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5년, 2013년 대통령상 수상 이력이 있는 최정인 궁중자수장의 개인작품전으로 불교자수, 병풍자수, 흉배자수 등 47여 점의 다양한 자수 작품들이 일반인에게 공개 · 전시된다.

특히 전라남도 대원사 시왕탱화(전남 유형문화재 제266호)를 모본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수놓은 시왕도 10폭과 한국자수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자수가사(보물 제654호)를 재현한 작품은 최 궁중자수장의 역작이다. 또한 오늘날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옻칠장에 자수로 장식한 목가구, 자수 브로치 등 생활공예 자수 소품도 함께 전시된다.

신성민 기자

청년불자 작가들의 솜씨 뽐낼 場 열린다

12월까지 BAF공모전

2018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청년불자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BAF청년작가공모전'을 개최한다. 'BAF청년작가공모전'은 2016년과 2017년 열린 청년불교미술작가전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불교철학'을 주제로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공모분야는 △평면회화 △입체 △공예 △미디어 등으로 만 35세 이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해외에 거주 중인 청년작가나 외국인 작가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홈페이지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12월 31일까지 공식 이메일(baf@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내년 1월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02)2231-2013

노덕현 기자

국난극복 '고려시대 나한도' 첫 공개

동국대박물관, 12월 8일까지 나한 특별전

13c 몽골침략 막기 위해
나한 신통력에 의미 담아



동국대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되는 고려시대 오백나한도 중 원상주존자. 김의인(金義仁)이 제작 뒷일을 맡았다. **동국대박물관 제공**

고려시대 무차별적인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고자 불력(佛力)을 빌어 제작한 나한도 4점이 처음 공개된다.

동국대박물관(관장 정우택)은 12월 8일까지 특별전 '나한-깨달음에 이른 수행자'를 개최한다. 나한은 산스크리트어 Arhat의 한자음역인 '아라한'의 줄임말로 이상세계에만 존재하는 불보살과 달리 실존했던 수행자이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구제하라는 임무를 위임받은 제자를 뜻한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나한제를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국난극복을 위해 500폭의 나한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동국대박물관은 동국대 개교 111주년을 맞아 청자로 만든 나한상을 비롯해 다양한 나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 중에서도 1235~1236년 제작된 나한도 중 국내 개인이 소장한 4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박물관 측에 따르면 이 나한도는 몽골 침입을 받은 고려가 나한의 신통력으로 국가를 지키고자 제작한 500폭 가운데 일부로 현재 한국, 일본, 미국 등에 10여 점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귀중한 그림이다.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한 오백나한도는 화기는 없지만 이곽파(李郭派) 서풍을 따르는 점을 미뤄볼 때 일군(一群)의 고려시대 수묵 오백나한도의 하나로 짐작된다. 제작시기는 1235년 또는 1236년으로 추정된다. 개인 소장의 오백나한도는 화기가 남아 있어 을미년 10월 즉 1235년에 그려졌으며, 김의인(金義仁)이 제작 뒷일을 맡았다. 특히 현존 오백나한도 중 유일하게 '인병속감(隣兵速減)'이란 문구가 쓰여 국난극복의 목적을 입증해주는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시되는 보물1882-1호 십육나한도 역시 화기를 통해 같은 시기 오백나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백나한도와 별도로 십육나한도를 그렸다는 근거자료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외에 미국 호놀룰루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석가설법도도 선보인다. 이 그림은 결가부좌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8구의 보살과 10대 제자를 배치했다. 화기는 남아 있지 않지만 존상 형상과 표현기법 등으로 미뤄볼 때 16세기 중반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10대 제자와 청법자가 그려진 유일한 금선묘 그림이자 완성도 높은 불화로 평가받는다. (02)2260-3722

윤호섭 기자

적벽으로 상징된 무한 향한 시선들

불일미술관, 박은신 초대전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11월 28일까지 제2전시관에서 박은신 작가의 초대전 '고요의 바다' 전시를 개최한다. 홍익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자신만의 오브제를 통하여 작품을 완성시키는 작가다.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조우에서 시작되는 박 작가의 작업에는 두 가지 시선이 교차된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도약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 무한을 향한 시선. 이것이 작가에게는 우주로, 붓다로, 적벽으로 상징된다. 또한 현실을 인식하는 시선은 떨어지거나 흩날리는 꽃잎,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통해 드러난다.

박 작가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낙화는 비상으로, 소멸은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신성민 기자



수법당장엄일체
미단단단집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저 절로 가는 길
㉓ 미황사에서 도솔암 가는 길

도솔천 열리는 하늘 아래 첫 도량


기암괴석 시야로 보이는 남해 바다.


달마산 배경으로 앉아있는 미황사 대웅전.

• 걷는길 : 미황사 – 대밭삼거리 – 하숙골재 – 떡봉 – 도솔암
• 거리와 시간 : 5km정도, 4시간 예상


암벽 사이에 돌축대를 쌓아 그 위에 세운 도솔암. 피앗이 열리는 도솔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상징한다.

미황사(美黃寺)에 가면 대웅전 주춧돌부터 먼저 보라. 불교가 바다를 건너온 역사를 게와 거북의 돈을새김이 전하고 있다. 대웅전 천정에도 '옴마니반메훔' 산스크리트어가 문양을 이루고 있다. 최근 미황사 앞길에 '천 년 숲길'이 생겼다. 1,200여 년 전, 조선조 숙종 때 세웠다는 부도사적비가 그 길에 있는데, 여기서도 불교의 해양전래설을 엿볼 수 있다.

어느 해 사자포에 돌배가 한 척 나타났다. 의조대사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니 금인(金人)이 노를 잡고 있었고, 화엄경과 법화경,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53선지식의 경상(經像)이 실려 있었다. 의조대사 일행은 그 모두를 배에서 내려 봉안할 곳을 물색했다. 그날 밤 의조대사의 꿈에 금인이 나타났다.

"나는 우전국 왕이다. 금강산에 경상을 모시려다가 이 산에 일만 불(佛)이 있어 여기에 배를 세웠다. 소에 경상을 싣고 나가 소가 누워 일어나지 않는 곳에 봉안하라."

의조대사가 깨어보니 검은 소가 나타났다.

미황사는 그래서 생긴 절이다. 미(美)자는 소울음을 음사한 소리이며, 황(黃)은 금인을 뜻한다. 우전국은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등장하는 나라로,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이다. 금인은 황면노사(黃面老師)라고도 부르는 부처이다. 금인을 인도의 왕이거나 아유다국의 공주 허황옥으로 확대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허황옥은 훗날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다.

이 땅의 불교가 옛 고구려 땅을 거쳐 왔다고는 하나, 고창 선운사, 영광 불갑사, 김해 장유사에서는 서해와 남해를 건너왔다는 해양전래설이 떠돈다. 신라 남해왕 때 인도 월씨국의 불교가 동해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황사는 한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절이다. 달마산 489m에 해가 뜨는 반대편 기슭에 있어서 아침볕이 늦다. 카메라로 대웅전을 찍지만 달마산 그늘이 오래 머무르고 있어 자꾸 흔들린다.

카메라 렌즈에 대웅전뿐 아니라 뾰족뾰족한 뒷산 봉우리들이 들어온다. 언뜻 보면 병장기를 세워 둔 무기고 같은 모습인 달마산이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서 스님에게 도솔암 가는 길을 물으니 둘레길인 '천 년 숲길'을 곧바로 권장한다. 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지 아래위를 훑는다.

"산을 타려면 부도전에서 올라가는 게 수월하고요. 미황사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한데요……."

끝말을 입속에 넣고 우물거렸다. 그에게 반배하고 자리를 뜬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는 무슨 심사에선지 험로를 택해 걸었다.

가파르긴 했지만 30여 년 꾸준히 산행해온 몸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다. 오를수록 멀어져가는 미황사를 집 나온 아이처럼 뒤돌아보았다. 아침햇살이 미황사 기와지붕보다 먼저 남해바다에 닿아 쪽빛 물결을 반짝였다. 능선에 오르니 풍경이 하나 더 생겼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남벌판이 기름진 햇빛을 머금고 번들거렸다.

눈길을 거두어 능선의 앞뒤를 보자 소문으로 듣던 대로 칼산이다.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꺽여지고……. 천수경의 신통한 문장이 떠올랐으나 내가 거기 갔기 때문이라기보다 진도 · 완도 · 보길도 · 어룡도 · 백일도 · 흑일도 · 당일도 · 장구도……아주 쾌청한 날에는 제주도까지 보이는, 바다와 하늘 사이에 쉼표처럼 떠 있는 섬들에 세상은 그지없이 평온해 보였다. 지옥도 달마산 봉우리 같다면 한 번쯤 갈만하지 않을까.

동국여지승람은 '달마대사의 법신이 늘 상주하는 곳'이라고 해남 달마산을 단 한 줄로 소개한다. 달마는 선종 초조 달마대사의 이름이지만 '진리'라는 뜻으로 산스크리트어 다르마(Dharma)에서 왔다. 미황사 대웅전을 카메라에 담을 때 보았듯이 달마산은 뾰족한 바위투성이인데, 그 옛날 우전국 왕자 금인의 눈에 비친 1만 불상이다.

피안의 세계 상징하는 '도솔암'
험준한 달마산 정상에 위치해
해양 불교 전래의 흔적 열봐

봉우리들의 높낮이에 따라 내 몸도 오르락내리락했다. 피안으로 가는 배가 파도에 출렁거리는 기분이다. 어지러웠다. 출렁거리는 배 말고도 고가도로를 달리는 차들처럼 구름이 내 머리 위를 빠르게 지나고 있었다. 구름의 그림자도 능선의 바위와 흙을 훑으며 빠르게 지나갔다.

지독한 너덜길이었다. 미황사 스님의 흐린 말끝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때 배가 암초에 걸렸는지 기우뚱했다. 사실은 내가 바위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다. 칼산이 절로 꺽여 지기는 커녕 통증이 와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웠다. 나와 함께 나둥그러진 배낭을 주워 약품함을 열었다. 압박붕대로 발목을 칭칭 감는 동안 부처를 몹시 시기했던 사촌 데와닷따가 생각났다.

데와닷따는 살해를 결행하려고 영취산 산마루에서 부처가 오기를 기다렸다. 부처는 굴러오는 바위를 피해 겨우 죽음을 모면했지만 발을 심하게 다쳤다. 주치의 지바카가 부처의 다친 발에 칼을 대어 치료했다.

"부처님, 통증이 심하신가요?"

"지바카, 나 여래는 윤회라는 긴긴 여행의 종착점에 도착했다네. 모든 번뇌와 방해와 핍박에서 벗어났지. 하지만 몸의 통증만큼은 어쩔 수 없구나."

부처가 신통술을 부려 다친 발쯤은 너끈히 낫게 하려니 생각한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매우 놀랄 것이다. 부처의 신통력에 대한 의문은 이밖에도 더 있었다. 부처가 춘다의 상한 음식공양으로 식중독에 걸렸을 때였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 유행지인 쿠시나가르로 향하는 부처에게 어떤 비구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데 왜 하늘나라 약으로 병을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는 웃음을 머금었다.

"집은 오래되면 허물어지지만 땅은 변함없이 평온하단다. 나의 마음은 땅과 같아 평온하지만 내 몸은 헌 집과 같구나."

내 몸도 헌집 대문처럼 덜컹거렸다. 다행히도 발을 삐었을 뿐 심하게 다친 건 아니어서, 스틱을 짚고 대밭삼거리까지 올 수 있었다. 미황사 스님이 수월한 길이라 했던 부도전에서 올랐다면 대밭삼거리를 훨씬 지났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도솔암이 있으니까 도솔천이 열리는 세계이리라. 사람의 몸으로 감히 도솔천에 오르는데 이만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여전히 머리 위로 구름이 지나다니고 발아래서 바다가 번쩍거렸다. 구름을 머리에 이고 능선을 걸을 때 나는 하늘의 시간을 통과한다. 그 시간은 지상에서의 시간보다 빨라서 어떤 거리든 단축하게 된다. 옛사람들 중 어떤 이는 축지법을 쓴다고도 했다. 아마도 능선을 잘 이용하여 거리는 물론 시간을 단축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뜻이리라.

하숙골재를 지나 떡봉에 올랐다. 이쯤이면 피안의 세계인 도솔암이 보일 차례이기에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었다. 마침내 도솔암을 가리키는 표지가 나타났지만, 내 눈에 띈 건 놀랍게도 차안의 세계에서 흔히 보는 컨테이너박스였다. 한 스님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도 놀란 얼굴이었다. 어찌 그 다리로 예까지 왔느냐는 눈길이었다.

잠시 후에야 알았지만 도솔암은 컨테이너박스가 기대앉은 봉우리, 그 건너편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본 박스집은 도솔암 암주 법조 스님이 기거하는 일종의 요사채였다.

법조 스님은 해남이 고향이란다. 산 위에서 고향을 내려다보며 수행한다는 이야기에 어떤 기구한 사연이 배어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출가자에게 그 연유를 물을 수는 없었다. 법조 스님뿐 아니라 스님의 과거란 대개가 검게 칠해진 금기의 시간이므로 오래 이야기를 나눠도 절름발이 대화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수백 년 동안 폐사지였던 도솔암을 법조 스님이 복원하여 11년째에 이른다고 했다.

"이제 고만 산 아래로 내려가야제. 장기집권은 곤란한 법이여."

너털웃음을 터뜨리는 스님을 뒤로하고 요사채를 나왔다. 봉우리 결을 돌아 내려가는 길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도솔암이 보였다. 새의 둥지, 높다란 바위 틈새에 낀 도솔암은 영락없는 그것이었다. 지나던 새도 날갯짓을 멈추고 바라볼 것 같았다. 아니, 우리 집을 어찌 날개 없는 인간이 지었지?

도솔암에서 내려다보니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섬들은 또렷했다. 진도 쪽으로 배 한 척이 가고 있었다. 날이 서도록 햇살이 쨍쨍한데 이상하게도 피안과 차안을 구분하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참 본성은 오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릴 수 있지만 오염 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깨어있고 열려 있으면 무한한 가능성을 접근하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와 순수한 에너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도움은 마음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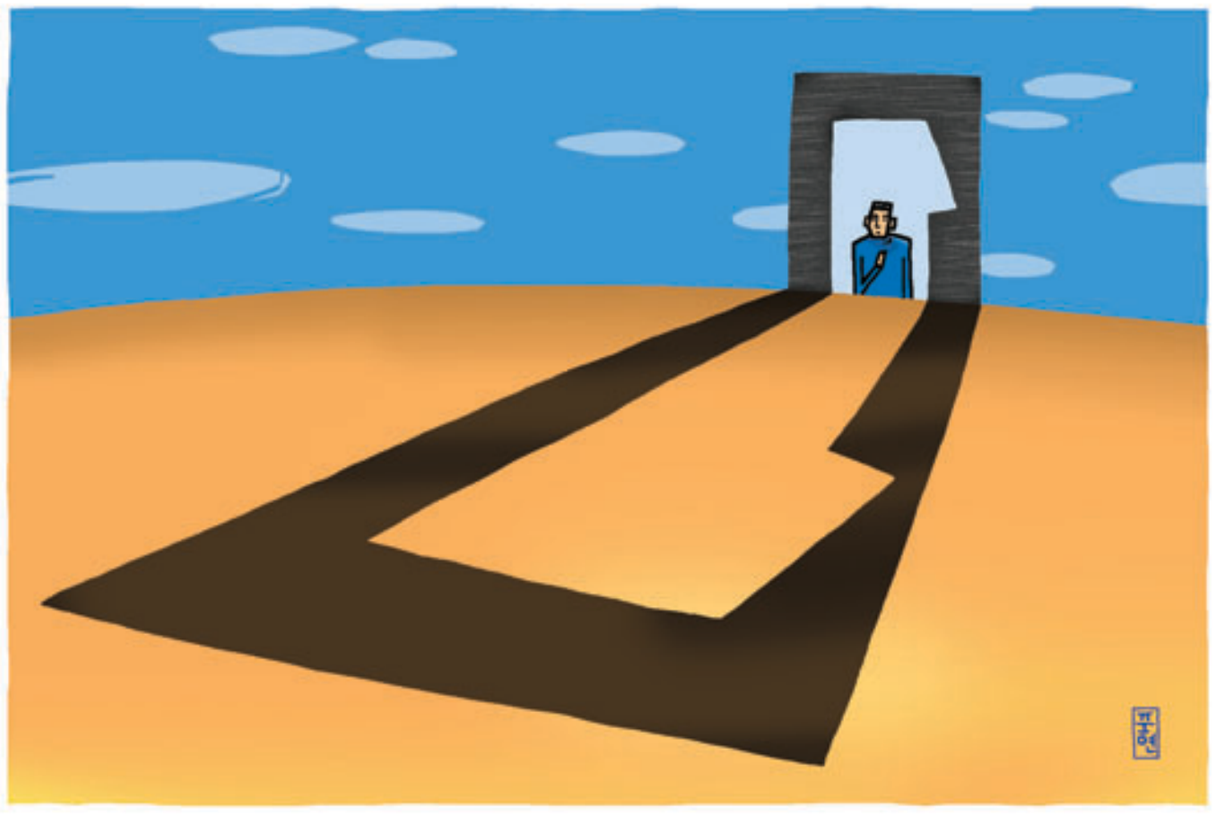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사이다'

⑩ 깨달음은 우리 모두의 것

자기 안의 등불을 바로 보자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오로지 나고 죽음을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三界)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서산대사 〈선가귀감〉中

출가자에게 있어서 공식적 멘토이자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약 2600년 전 싯다르타 태자는 29세에 출가하여 6~7년간의 치열한 수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증득하시고 깨달은 자(붓다)가 되었다. 그 덕택으로 지금까지 세세생생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과 행복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묵묵히 정진하는 수행자라면 할 수 있는 물음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깨달음이 크고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려워만 하고 꺼려한다면 수행의 성장과 발전은 멈추게 될 것이다. 작은 깨달음, 소각(小覺)이 모이고 모여서 중간 깨달음인 중각(中覺)이 되고 그 중각들이 모여서 언젠가 부처님과 같은 큰 깨달음 대각(大覺)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해 전 우리나라에서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간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조계종 원로이자 한국불교 전통 간화선 수행자인 고우 스님과 위빠사나의 대표적 수행자로 각광 받는 미얀마의 파욱 스님의 만남이었다. 곧, 수행법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만남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파욱 스님은 위빠사나의 지혜를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본성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집착과 번뇌, 윤회도 없다'고 했다. 반면에 고우 스님은 '우리는 원래 모두가 부처'이고, 간화선 수행은 '나와 남'이라는 분별과 착각을 깨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논쟁하며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은 참 아름답다. 필자는 큰 스님들처럼 깨달음에 대하여 가타부타 하긴 어렵다. 아직 어리고 배움이 짧으며 수행력은 얕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깨달음'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공부해가며 끊임없이 성찰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반야심경(般若心經)〉을 통해 '깨달음'에 대한 작은 소견을 나누고자 한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곧 '지혜'의 증득이자 자비의 실천이다. 지혜의 경전인 〈반야심경〉에 불교의 핵심 사상과 깨달음이 잘 녹아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조계종 표준〈한글반야심경〉中

위 내용은 〈반야심경〉의 도입부이자 중심 주제이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최신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관자재보살)이 유용한 어플(반야바라밀다)을 실행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플이 곧 '반야바라밀다'이자 나의 수행법이 되는 것이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는 '어두운 방에 전등을 켰더니 환한 불이 가득차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다'라는 수행법 어플을 실행했더니 자비광명의 환한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으로 인해 나의 실존을 환하게 보게 된다. 불교에서는 '몸-마음-의식'을 5온(색 · 수 · 상 · 행 · 식)이라고 하며 그것이 곧 '나'라고 한다. 하지만, 밝은 빛으로 비추어 보니 그것(나=5온)이 공(空)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참된 空, 진공묘유를 담고 있어
텅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찬 것
현대물리학서 입자는 곧 '파동'
'있으면서 없는 것' 만물의 실체
이고득락 위해선 바른 수행 필요

그렇다면, 공이란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온갖 고통에서 건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까? 필자는 공이 불성(佛性)이라고 생각한다. 참된 공은 아무 것도 없는 무(無)가 아니라 묘한 무언가가 있다(=眞空妙有). 나를 비추어 주는 그 불빛도 불성이자 공이고, 비추어진 후에 밝혀진 실체도 불성이자 공인 것이다. 따라서, 텅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찬 것이고, 무아(無我)이면서 참나(眞我)인 것이다.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현대물리학에서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입자는 눈에 보이는 고정적인 것이지만,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동적인 것이다. '있으면서도 없는 것', '입자이면서도 파동'인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이자 빛의 성질이다. 〈반야심경〉에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다.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불성과 공의 상태를 가기 위한 방편이다. 어떻게 해야 이고득락(離苦得樂)할 수 있을까? 즉, 마음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고통을 떠나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 수행을 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그것은 곧 계정혜(戒定慧)라는 삼학도(三學道)이다. 계율을 시작으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다.

큰 틀에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방법으로 간화선과 위빠사나가 있다. 간화선은 '이뭣고', '무(無)', '뜰 앞의 잣나무' 등을 스스로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화두(話頭)로 삼고 정진하여 스스로가 부처임을 단박에 깨치는 수행법이다. 위빠사나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초기불교의 전통수행법이다. 특히, 들숨과 날숨 등 호흡에 집중하고 몸과 마음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림'으로써 체계적으로 깨닫는 수행법이다. 그 외에도 기도, 염불, 절수행 등 많은 수행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과 깨달음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하나 있다. 누군가의 인가를 받는 문제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스승이나 도반이 나를 점검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자칫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권력이 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쓸 수도 있다.

또한, 수행을 게을리 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점검이 객관적 지표로서 참고가 되므로 수행 과정에서는 필요하지만 결국 자신에 대한 검증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한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참된 주인이 되어야, 모든 것이 진리다(隨處作主 立處皆眞)'라는 임제(臨濟)선사의 말씀과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自燈明 法燈明 自歸依 法歸依)'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잘 새겨보아야 하겠다.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4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4



야생화(小)



행복한 세상(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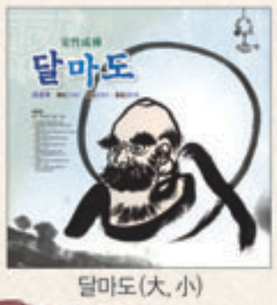
선화의 향기(大, 小)



선으로 가는 길(大, 小)



천진불(大, 小)



달마도(大, 小)



붓다의 향기(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관음도(大, 小)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밝고 향기롭게(大, 小)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

Buddhist True Network

대한민국 No.1 불교 전문 종합 채널

정목스님의 향기로운 만남 / 나무아래 / 앉아서 / 뮤직에세이 편지 / 차승환의 유쾌한 쇼 / 진미령의 맛있는 절밥 / 광우스님의 소나무 / BTN특별기획 서유기 / 송봉주의 음악풍경 / 원영스님의 해피타임 / 그대에게이르는 길 / 운성입니다 / 어라차차 신나는 붓다! / 법륜스님이 안내하는 붓다의 길 깨달음의 길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 / 안녕하세요 환산스님입니다 / 감성식객 자연을 먹는 법 / 나를 깨우는 108배 / 마음의 선물 혜민입니다 / 일요 초청 법회 / 여보 사랑합니다 /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 문화는 유산이다

절에서 만난 친구 절친 / 사찰기행 문화를 품다 / 어머니 나의 어머니 / 마음의 향기 / 뜰앞에 잣나무

월도스님과 함께하는 BTN주말조선 / 진명스님의 지대방 / 스님의 속이 뻥 뚫리는 고구마 / 드라마 붓다

BTN

* BTN붓다회 1주년 기념 *

4시간 특별생방송

11월19일(일)

1부 14:00 새롭게 도약하는 붓다회

2부 15:00 붓다회와 함께하는 2017 핑크리본 재즈 콘서트 - 조계사 이원생중계

3부 16:00 아름다운 회향, 아름다운 붓다회

4부 17:00 우리는 붓다회 가족입니다

※ 본 특별생방송은 BTN모바일과 인터넷 페이지, BTN라디오 동림으로도 방송됩니다.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YESGOOD.CO.LTD

성지순례는 역시 마하연 입니다!

미얀마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부처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인도네팔 "품격 성지순례" 출발 확정!

인도성지순례의 정석, 마하연과 하면 역시 다릅니다.

신비스러운 불교왕국 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티베트 8일 성지순례

하늘길 칭짱열차 체험

인천-서안-라싸-암드록초-장체-시가체-라싸-칭짱열차-서안-인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4대불산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 6일

대만 불광사(공승) 대법회(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이후탈라-담불라-시기리야-캔디-콜롬보

반 야 용 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